



12

198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12호

(루게 398)



◆◆◆◆◆◆◆◆◆◆

## 차 례

◆◆◆◆◆◆◆◆◆◆

당.....	4
백두산을 우리러 .....	5
어머님의 높은 뜻 꽃피워가리.....	7
투쟁과 삶의 영원한 귀감.....	8
충성의 그 길을 따라 억세계 가렵니다.....	10
위대한 승리, 빛나는 전망.....	11
그날에 살고싶어 .....	14
불타는 저녁노을 .....	15
잊지 못할 이한해를 보내면서 .....	16
불타는 충성의 열정으로 .....	17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이 날 은 귀중한 열매 .....	18
생동하고 심오한것 .....	21
풍만한 정서가 흘러넘치는 가사 .....	23
벽계역장 .....	25
소박한 진실은... ..	35
나는 강선사람.....	36
대를 잇자 (외1편).....	37

여보게들 좋은 자리 둘만 내주세요 .....	37
나의 로동의 기쁨 .....	38
창조의 상상봉을 날으고저 .....	39
투쟁의 노래를 더 많이! .....	39
어머니 .....	40
이 땅 그 어디에 가있을지라도 .....	50
그가 간직한것 .....	51
젊은 시절의 위훈 .....	54
끝없는 동쪽길 .....	56
황금파도여! .....	60
뜨거운 마음으로 .....	60
행복이 넘치는 새집에서 .....	61
철길우에서 .....	63
우리 마음 따라세우는 그 모습은... ..	64
시에서 정서와 운률의 호상관계에 대한 당의 독창적문예리론 .....	65
고향땅을 안고 산 청년 .....	70
풍산민요 .....	77
혁명동지 그 사랑을 노래부르자 .....	78
굴도 한배 미역도 한배 .....	78
주추돌 .....	79

# 당

김석주

당  
그대를 생각하면  
숨없이 솟아오른다  
백두의 흰 메부리

당  
그대를 생각하면 떠오른다  
광활한 누리를 덮은  
크나큰 노을빛 기폭이

천만의 의지와 신념을 묶어세운  
강철의 산악  
하늘과 땅과 세월을 한몸에 안은  
비상히 크고 성스러운 봉우리마냥  
당은 우리 마음속에 솟아있다

하나의 메부리에 근원을 두고  
산발들이 천리에 뻗어내리고  
강줄기들이 만리에 흘러내려  
강토를 이루고 생활이 펼쳐지듯

당, 그 위대한 품에 근원을 두고  
영원한 빛발 흘러내리고  
온갖 생명이 태어나고  
생활의 억만흐름 펼쳐지는것 아닌가  
당은 그 모든것을 안았다

당이어 우리는 믿지 않는다  
하늘과 땅과 생명  
저 우주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어떤 하늘의 신비한 존재도

우리는 믿는다 당이어  
신비로운 전설이 아닌  
자주의 푸른 하늘과  
락원의 땅을 창조한  
지상의 가장 위력하고 강대한 힘을!

그대 얼마나 시련 많은 머나먼 길을 걸어  
그대 얼마나 휴식 없는 긴긴 세월을 걸쳐

오늘의 이 행복 이 기쁨을 안아왔던가  
쓸쓸한 들판, 처량한 황무지  
설음이 덮였던 이 땅우에  
생명으로 아름답고  
삶의 노래로 아름다운  
자유의 강산 행복의 푸른 숲을 펼친 그대  
당은 만능의 힘을 지녔다

우리 크나큰 그 품에서  
생을 받아안았나니  
인민의 힘도 재능도 노력도  
그대로 하여 역세며 빛나고

그대는 수령님의 품에서 생을 받아안고  
향도의 해발로 앞길 밝히기에  
그처럼 위대하고 영광 빛난다  
그 기치도  
그 위업도  
그 력사도

조선로동당  
부르면 언제나  
그 이름 크나큰 메아리 되여  
만민의 심장을 울리고  
누리의 한끝까지 끝없이 울려간다

조선로동당  
생각하면 언제나  
신성하고 존엄에 넘친  
위대한 량심앞에 다가서는듯  
우리 마음 숭엄하고 깨끗해진다

당이어, 그대 없이는  
생활도 웃음도 꽃도 없다  
당이 없이는 너도 나도 우리도 없다  
이 세상도 없다

우리의 생명이며 빛인 당이어  
우리의 힘이며 슬기며 용맹인 당이어  
우리의 생활과 창조의 모든 세계인 당이어!

# 백두산을 우러러

구희철

## 1

푸른 밀림의 바다우에  
구름을 헤치며  
거연히 솟아  
천하를 굽어보는 백두산

언제 바라보아도  
변함없는 그 모습  
우러르면 마음도 숭엄해지는  
조선의 성산 백두산!

너의 그 천고의 밀림은  
몇천번 락엽이 지고  
몇천번 다시 푸르러  
장엄히 설레이는것이나

오, 백두산  
너의 산악의 줄기줄기에  
너의 장강의 굽이굽이에  
어떤 수난의 력사가 깃들었느냐

한가닥 삶의 불빛을 찾아  
류량하는 인민이 너의 기슭에  
구슬픈 자욱을 새기며 지나가고  
화승총을 멘 독립군이  
천년이끼오른 너의 기슭에  
마지막 자욱을 남기던 그날에

너는 민족의 아픔  
인민의 고통을 한가슴에 안고  
분노에 치를 떨며  
만리에 백설을 휘뿌리지 않았더냐

말하라 백두산아  
반만년 력사우에  
오직 한분  
너의 상상봉에  
해방의 큰 자욱 새기시며  
이 나라 전설의 영웅으로  
일제대군을 무찔러  
동서천리에 그 이름 떨칠제

너도 그날에  
만리 대공에 이마를 치여들며  
이 나라 천만산악을 거느리고  
혁명의 성산으로 솟아오르지 않았더냐

오, 백두산!  
너는 그 력사의 날로부터  
겨레의 마음속에 솟아 빛을 뿌린  
희망의 메부리  
신념의 산악이었다

## 2

다 타버린  
광술불 마지막 연기  
하염없는 한숨처럼  
빼앗긴 강토우에 사라져가던 그 세월

백두산 장군별이야기  
전설처럼 들으며  
북으로 백두산으로 발걸음 옮겨갈제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의 힘으로  
조선을 부르신  
장군님의 이 이야기  
2천만동포를 깨우쳤고  
3천리강토를 일으켰나니

견힐길 없던  
압제의 두터운 구름을 태우며  
너의 울창한 밀림속에서  
밤마다 우등불이 타올랐다

백두산에선  
눈보라도 천리를 날고  
술방울 하나도  
왜적이 쳐들어오면  
폭탄이 되어 터진다는 전설

김일성장군님은  
2천리 장강을  
종이 한장을 놓고

넘나드신다는 이야기

천년이끼오른 진대나무  
녹을줄 모르는 장설우에  
조국의 지도를 펼치시고  
조국진군의 붉은 화살 그으실 때  
이 나라 강산은 기쁨에 설레였고

그 붉은 진군의 화살표 따라  
고난의 행군길 열어간  
그 자욱자욱 따라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길은 열렸나니

세월은 가고 세대는 바뀌어도  
력사우에 력력한 30년대여!

백두산!  
여기서 시작되었다  
우리 당의 뿌리도  
인민주권의 첫 요람도  
행복한 오늘의 첫 삶도...

30년대  
고난의 행군길 헤쳐온  
그것이 조선의 의지였고  
한흙의 미시가루를 군량으로 나눈  
그것이 조선의 사랑이었고  
전사한 대원의 아들딸을 안아 온  
그것이 조선의 의리였다

그 사랑, 그 의지!  
그 신념, 그 의리!  
장군님 품에서 시작되어  
씩터 뿌리내리고  
꽃피어 열매맺힌  
빛나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여!

오, 백두산, 혁명의 산  
주체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빛나는 삶이 뿌리내린  
백두산, 너는 영원한 혁명의 기념비여라

3

진정 못하고 설레이는 백두밀림은  
피어린 항일의 이야기 전하는것인가

깊디깊은 천지의 맑은 물은  
그날을 못잊어 명상에 잠긴것인가

천리를 날으는 바람소리  
여기선 혁명의 노래로 울리고  
천년이끼에 뒤덮인 아찔한 벼랑도  
여기선 혁명의 의지를 키워주며  
하늘가로 치달아오르는구나

한그루 나무에도 큰뜻이 어렸고  
한줄기 내물에도 노래가 실렸고  
한가닥의 산길도 위훈으로 굽이치는  
조선의 산 백두산아!

장군님 따르는 마음  
백두산 너와 함께 뚫어번지고  
장군님 모시는 마음  
삼천리에 뿌리내린  
너와 함께 변함 없으리니

백두산  
위대한 수령님 위업의 자욱우에  
영광스러운 당의 자욱이 새겨지는  
너 혁명의 성스런 산악아

너의 억센 뿌리  
너의 깊은 뿌리가 있어  
조선의 어제와 오늘과 래일이 있고  
백전백승의 우리 당도  
주체의 우리 조국도  
존엄 높은 우리 인민도 있어라

백두산!  
한생을 오르고  
만대를 오른다 해도  
오르고 또 오르고싶어  
조선이 오르고  
세계가 오르는 상상봉이여!

아, 영원한 전설속에 노래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당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라 백두산!

# 어머님의 높은 뜻 꽃피워가리

석광희

철을 따라 피는꽃

송이송이

유서깊은 오산덕기슭에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뿜는

회령의 백살구꽃

자나 깨나 못잊어

여기로 여기로 굽이쳐오는

온 나라의 마음을 반기며

꽃보라를 뿌려주는가

천만송이 실레는 꽃속에 묻힌

고향집 사립문가에 서니

붉은 별 빛나는 군모를 쓰시고

밝게 웃으시는 어머님 모습

만발한 꽃속에 숨엄히 어려와

류달리도 치미는 뜨거운 생각

오매에도 뵈고싶은 간절한 마음

아, 조국을 향하여 진군하시던

구름발 걷히는 새벽의 산마루에서

장군님 우러러 물어보신

그 고향땅에 벌써 몇번째

행복의 노래속에 꽃은 폈건만

혈전의 수십만리 멀고도 험한 길을

장군님 따라 헤쳐오신 김정숙어머님

조국의 봄을 안고 개선하신

평양에서 회령은 기차로 하루길

그 길만은 종내 못오셨던가

오 조국건설의 분망하신 나날에

수령님 계시는 창가에 빛나던 등불

깊은 밤에도 꺼지지 않던 해방산기슭을

혁명의 사령부가 솟아있던

백두산의 그 기슭으로 생각하시었나니

장군님을 받들어

할일도 많고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잠시나마 뜰수 있겠느냐고

고향이야 언제인들 못가겠느냐고

웃으시며 하시던 그 말씀이어

인민의 가슴에 길이 솟아있을

준엄했던 대사하의 불언덕

수령님을 몸으로 막아 보위하시며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싸우신

녀성친위전사!

혁명의 위치를 지켜

변함이 없고

드림이 없으시였던

그 높고 뜨거우신 뜻

우러러 새기고 되새길수록

충성의 해발로 비쳐오는 영상이여

문득 바라보니

오산덕에 만발한 백살구꽃도

이 가슴을 울리며 흘러흐르는

회령천의 맑은 물도

어머님을 그리며 실레이는가

아 세월이 갈수록 더욱 소중히

가슴깊이 안고사는

어머님의 고결한 뜻

우리 당을 우러러따르는 길에

충성의 천만송이 꽃으로 수놓아가리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가리

## 투쟁과 삶의 영원한 귀감

리일복

누구에게나 일하고 투쟁하고 살아나가는데서 마음속에 따르는 삶의 기준이 있는것이다.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이런 물음앞에 대답할수 있는 높고 숭고한 기준이 마음속에 정해져있을 때 더 훌륭한 혁명을 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인간의 삶을 숭고한 높이에서 이끌어 올리는 기준이 될수 있는 삶, 인간들이 언제나 눈앞에 그려보며 것처럼 일하고 살려고 애쓰게 되는 아름답고 고매한 삶!

우리 인민에게 이런 삶의 기준, 투쟁과 혁신의 참된 모범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런 일인가!

아버이수령님께 향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과 고매한 혁명정신으로 하여 대를 두고 길이 따라배울 참된 삶의 기준, 승리에 이끄는 불멸의 정신적인 기치로 별처럼 빛나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참으로 어머니의 고귀한 혁명업적과 숭고한 충성심은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한 투쟁과 삶의 귀감으로 아로새겨져 승리에 이끄는 크나큰 힘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열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길지 않은 생애에 보통사람들이 몇대를 두고도 이룩할수 없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가장 높고도 숭고한 충성심으로 혁명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를 받들어 높이 모신 충성의 귀감이신 김정숙어머님!

어머니의 그 업적, 그 모범은 사람들이 한생을 따르고 따라도 다는 오를수 없는 높이에서 빛나고 있으며, 이 나라 혁명하는 인민이 대를 두고 길이 길이 따르며 배울 영생불멸의 귀감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다.

나는 우리 나라 여러곳을 다니며 수많은 혁신

자들을 만나보면서 더욱 가슴깊이 느낄수가 있었다.

...노래처럼 직기소리 즐겁게 울리는 방직공장의 밝고 아늑한 방에서 혁신자처녀직포공은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를 들려주고있었다.

한해에 예견된 그 방대한 천을 어떻게 한달반 동안에 다 짜낼수 있었는가?

어떻게 벌써 7개년계획을 다 수행하고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내닫고있는가?

기자들이 성급히 련속 제기하는 물음앞에 처녀는 당황한듯 대답할 말을 미처 못찾고있었다.

처녀는 조금도 특별한 이야기가 못되며 자랑거리가 못된다는듯 어줍게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이였다.

밥을 먹으면서도 출근길에서도 어떻게 직포기사이로 빨리 누빌수 있는가를 생각했으며, 어떻게 가로등 밝은 공원에서 숨박곡질하듯 나무사이를 돌고돌며 새 순회방법을 찾아내게 되였는가를...

새것에 민감한 기자들이 특종기사감을 쓰기 위해 이모저모로 질문을 들이대고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건만 처녀는 더욱 당황해할뿐 그 어떤 《신비로운 비결》은 말하지 못했다.

제먼저 지쳐버린 기자들이 한발 물러앉아 담배를 피워물었을 때 나는 결상을 직포공처녀 가까이 놓고있으며 몇가지 물음을 던졌다.

새로운 순회방법을 찾아내고 남보다 한두대도 아닌 여러대의 직기를 더 맡고도 그토록 성차지 않아 계속 줄달음친 그 생각속에는 무엇이 자리잡고있었는가? 매일, 매순간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일했는가?

이 물음을 놓고 처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이였다. 그리고는 아까 연방 실무적인 질문들을 들이댔 때 난처해하던 기색과는 달리 안온한 표정으로, 자신에 넘쳐 또박또박 힘주어 대답하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김정숙어머님을 저는 늘 생각하곤했습니다.

일하다 막히면 이런 때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가 하고 생각하면서 새힘을 얻었습니다. 계획을 넘쳐하고도 이런 때 어머님께서는 만족하셨을가 하고 생각하면 늘 얼굴이 뜨거워지곤했습니다.»

처녀는 자기의 생각을 평범하게 말했으나 나는 가슴속에서 세찬 흥분이 소용돌이침을 감촉하였다. 물러앉았던 기자들도 담배불을 끄고 처녀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김정숙어머님처럼 혁명을 하고 어머님처럼 아버지수령님께 충성을 다 바쳐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왜 그런지 내 한일이 적어보이고 아무리 일을 하고 또 해도 성차지 않는걸요 뭐.》

처녀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 말속에서 많고많은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이 깊어졌다.

그것이였구나. 온 나라에 소문난 혁신자처녀의 마음속에 항상 힘을 주고 꺼짐 없는 혁신의 불길을 지펴준 삶의 귀감, 우러러마르고 따라도 그 높이에 이르지 못할 숭고한 혁명정신과 충성심의 모범!

위대한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그 고매한 혁명정신과 티없는 충성심은 이토록 오늘도 우리 녀성들,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끝없는 혁신과 위훈을 불러일으키는게 아닌가.

얼마전에 나는 대동강발전소 건설장을 찾아서도 이것을 절실히 깨달을수 있었다.

하늘 맑고 물 맑은 가을날이였다. 언제건설장은 본격적인 단계에서 들끓고있었다.

우리 나라 굴지의 대수력발전소들을 맡아두고 건설했다고 말할수 있는 로력영웅 장동무는 하늘가에 솟아오른 산악같은 언제우로 나를 이끌었다.

그는 환갑이 멀지 않은 나이였으나 아직도 날파람있게 아찔한 사다리를 타고오르며 연공의 숨씨를 자랑하고있었다.

언제우에 오르니 구름 걸린 벼랑우에라도 오듯 발바닥이 사물거릴 정도로 아찔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유보도를 거닐듯 태연스럽게 이쪽 불로크에서 저쪽 불로크로 나를 이끌며 설명해주는것이였다.

《발전소언제 셋을 세우고나니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군요. 생각같아서는 우리 나라 강마다 모조리 이처럼 언제를 쌓고싶은

데...》

그는 사랑스럽게 자기가 쌓는 네번째 언제를 둘러보며 희끗한 머리를 쓸어넘기는것이였다.

《그 나이 친구 영웅아바이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마 드물텐데 욕심이 너무 많군요.》

나의 말에 불만족이란듯 그는 손을 뻗혀 내저었다.

《아니지요. 난 한일 없이 나이만 먹은게 한입니다.

어제밤에두 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책을 읽다가 자신이 걸어온 길을 곰곰히 돌이켜보았지요.

어머님께서는 길지 않은 생애에 얼마나 많은 투쟁업적을 쌓아올리셨구 얼마나 높고 위대한 충성심을 발휘하신것입니까!

그 높이에 오르자면 아마 우리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태어나 고쳐 산다구 해도 도저히 모자랄것입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이 로력영웅의 흥분어린 말을 들으며 나는 언젠가 평양방직공장에서 만났던 그 직포공처녀를 생각했다.

나이도 일터도 직종도 다르지만 생각은 얼마나 신통히도 같은것인가!

어찌 이것을 20대의 처녀직포공이나 60대의 영웅연공의 생각이라고만 하겠는가.

어데 가나 이런 사람들을 나는 수없이 만날수 있었다.

이 땅우에 살며 일하며 혁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늘 가슴속으로 위대한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을 생각하며 고무적힘을 얻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는 충성을 다바쳐 일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 나는 확신한다.

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어머님의 고매한 품모를 삶의 기준으로, 투쟁의 귀감으로 생각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엔 변함이 없으리라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신참된 충성의 모범으로서, 혁명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로서의 어머님의 참다운 삶은 먼먼 미래에 가셔도 이 나라 인민의 영원한 투쟁과 삶의 기준으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귀감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 충성의 그 길을 따라 억세게 가렵니다

저는 얼마전에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2부)를 다시한번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 소설이 훈련장과 초소들에서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들끓고있는 우리 병사들의 가슴에 더 높은 전투적기백과 혁명적 열정을 안겨주기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어머님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혁명전사의 충성심이란 과연 무엇이며 삶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되어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주먹같은 흰눈이 펄펄 날리는 초소에 서있을 때나 가파로운 산밭을 뚫아오르는 군사훈련의 나날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2부)에 형상된 김정숙어머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총을 더 힘있게 틀어쥐고 혁명적의지를 굳게 다지곤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나라를 빼앗긴 설움과 고통을 한몸에 체험하시며 어리신 나이에 항일전에 나서신 김정숙어머님, 굶주림과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으로 곤난을 겪고있는 유격근거지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혁명의 배신자들과 견결히 맞서 싸우시는 어머님께서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시는 열렬한 충성심만을 간직하고 일해나가십니다.

그렇듯 뜨거운 진정이 있었기에 시시각각으로 죄여드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시고 어머님께서 원쑤들의 흉계속에서 근거지인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가슴에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었으며 불같은 마음으로 원쑤들과는 타협없이 싸우셨던것입니다.

인내성있는 교양과 설복으로 녀성들을 조직에 묶어세우시는 어머님의 그 영상, 총탄이 비발치는 위험속에서 끓는 죽가마를 이시고 동지들을 찾아산판으로 달리시는 어머님의 그 모습은 참으로 뜨거운 눈물 없이는 읽을수 없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원쑤들의 그 어떤 악랄한 책동도, 걸음마다 막아서는 겹치는 난관도 결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김정숙어머님의 불같은 충성심을 흐리울수 없었으며 드팀없는 신념을 깨뜨릴수 없었으니 어머님께서 헤쳐오신 자국자국은 충성의 붉은 꽃으로 수놓아져있습니다.

혼란속에 헤매이는 삼도만아동단사업을 수습하기 위하여 바치시는 그 정력과 지새우신 밤과 밤, 자신께서는 끼니를 건느시면서도 장군님의 뜻으로 키워야 할 혁명의 후비대들을 위해서는 험한 벼랑길을 뚫아오르시며 산나물과 풀뿌리를 캐시는 모습, 《민생단》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 희생된 차웅도회장을 두고 것처럼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두 딸을 한몸에 안으시여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볼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뜻으로 근거지인민들을 묶어세우시는 어머님의 그렇듯 강의한 충성의 마음이 있었기에 소리없이 시들어가던 녀성들도 혁명의 꽃으로 다시 피여날수 있었으며 버림받던 아이들도 해방의 봄빛을 안고 굳센 꽃망울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참말로 소설을 읽어가느라면 저도모르게 그속에 파묻혀 어머님께서 슬퍼하실 때면 같이 슬퍼하고 어머님께서 원쑤와 맞서 싸우실 때면 같이 원쑤를 증오하는 불같은 마음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깊은 밤 숲눈길을 헤치며 행군해갈 때면 유격근거지 어린이들을 위하여 벼랑을 뚫아오르시는 어머님의 그 모습이 안겨오고 사격목표를 겨눌 때면 원쑤들에게 명중탄을 안기던 어머님의 눈빛이 어려와 병사의 이 가슴에 백배의 용기가 솟는듯 싶고 어머님께서 저의 무기를 덧잡아주시는것만 같습니다.

저는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2부)를 읽으면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높으신 충성심을 따라배워 조국보위초소에서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잡고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켜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됩니다.

조선인민군 하사 리성철

## 위대한 승리, 빛나는 전망

박호섭

우리는 지금 위대한 사변과 승리로 충만된 우리 당의 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각에 살고 있다.

가장 복받은 인민의 민족적궁지와 환희가 하늘 땅에 차넘친다.

주체의 기발을 창공높이 날리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50여년의 력사! 그 력사우에 오늘은 우리 당과 혁명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아로새긴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를 민족적인 대경사로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는 길에서 세련되고 단련되고 로숙해진 불패의 당,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단결되어 시대와 력사 앞에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한 우리 당의 승리의 대회소식은 대륙과 대양을 넘어 온 누리에 퍼져간다.

우리 당의 뿌리를 마련하시고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그를 불패의 당으로 자래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열린 당대회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또하나의 영광이며 행복이며 자랑이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그 령도적권위가 비할바없이 높아진 가운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결심을 안고 충성의 마음마음들이 모여온 영광의 대회!

당대회는 5차당대회로부터 10년간의 혁명업적을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새로운 휘황한 전망을 펼쳐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통성과 번영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 놓았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은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불패의 당이다.

우리 당 제 5 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제 6 차대회에 이르기까지의 10 년!

실로 우리 당은 1970년대의 이 10 년간에 가장 위대한 사변들과 승리로 가득찬 슬기로운 자욱을 내디디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로동

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갔다.

우리 당이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튼튼히 틀어쥐고 걸어온 3대혁명!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라고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3대혁명을 이끄시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시였다.

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우리 당의 승리이며 주체사상의 승리이기도 하다.

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파동,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는 이상기후현상, 부르조아출판물들이 인류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던져진 불안한 시기로, 공업이 뒤걸음칠치고 농업이 퇴보하여 침체기로 묘사하는 1970년대, 바로 이 년대에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참으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마련되었는가.

민족분열의 고통을 안은 나라가, 그것도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맞서있고 그들의 무모한 도발에 매일 매시각 부딪치고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겠는가!

얼마전에 외국에서 발간되는 한 주간잡지는 우리 당 제 6 차대회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조선에서 이룩된 위대한 변혁은 시대와 혁명의 첨단에서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고있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그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외국의 한 기자가 찾은 이 대답!

이는 너무도 명백한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미 당 제 5 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인민이 1970 년대에 진행할 혁명을 바로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으로 규정하시고 이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눈내리는 공장구내길도 이른아침 농장의 포전

길도 풍랑 사나운 바다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걸고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의 수천수  
만리길 우에 새겨진 그 자욱자욱에는 3대혁명을  
앞당겨 실현하시려는 그이의 철석같은 의지와 신  
념, 조국과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그 어디에 가시고 그 누구를 만나시어도 인민  
들을 언제나 한품에 안으시여 우리 시대의 혁명  
전사로 내세워주시었고 그들의 가슴가슴에 고귀  
한 정치적 생명의 불사약을 안겨주시여 혁신자로,  
영웅으로 되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

어느 누가 사람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기  
술창안을 하였다면 제일 기뻐하시는 수령님, 모  
내는 기계가 성공하였을 때에는 우리 농민들이  
반만년만에 허리를 펴게 되었다고 그렇듯 크게  
웃으시며 농장의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신 어버  
이수령님!

온 나라의 텔레비전화와 농촌의 빠스화, 수도  
화를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또 얼마나 많은 길  
을 걸으시고 걸으시었던가.

참으로 3대혁명을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 기울  
이신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3대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해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당핵심들과  
청년지식인들으로써 3대혁명소조를 무어주시었으며  
그들이 일해나갈 방법까지도 하나하나 가르쳐주  
시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는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  
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  
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  
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  
법.

하기에 백두밀림의 벌목장으로부터 연백의 풍  
년벌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의 모든 초소, 모든  
일터에 파견되어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다바쳐  
투쟁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  
전사답게 3대혁명의 기수로서 시대앞에 지닌 혁  
명임무를 가장 빛나게 관철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오늘 인민대중  
자신의 요구로 전환되어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남  
김없이 발휘하고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다그치는 강한 사동력으로 되었다.

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용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에 기쁨을 드  
리기 위해 살며 일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삶의 유  
일목적으로 되었다.

수령, 당, 인민이 한덩어리로 되어있는 나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  
여!》의 공산주의적구호를 심장깊이 간직한 우리  
인민.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의 이익, 사회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혁명  
적으로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우리 인민이  
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고열로동,  
유해로동은 옛말로 돼버렸고 농민들은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하는 이 나라의 녀인들은 봉건적예  
속,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난데 이어 가정일의 무  
거운 부담에서 많이 벗어나 지금 그들은 이 세상  
에서 가장 행복한 녀성으로 되었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내 나라!

무대와 극장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와 거리, 들  
판에서도 언제나 노래와 춤, 웃음이 넘치는 락원  
의 강산!

100만의 지식인부대가 육성되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큰 몫을 담당할수 있  
게 된 조선!

어린이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부터 국가와 사회의 혜택속에 커가고 나라의 모  
든 어린이가 무료로 11년동안 의무적으로 공부하  
는 《배움의 나라!》

세금이란 말조차 모르고 병나면 누구나 무상으  
로 치료를 받고 90에 환갑을 맞는 지상락원에서  
인민은 근심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게 잘살  
고있으니 대를 두고 내려오던 《지상락원》을 갈  
망 하는 꿈을 바로 우리 당이 현실로 펼쳐주었  
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하나로 뭉쳐진 내 조국에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 수많은 명작들이 태어나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가 열리게 된  
조선의 1970년대!

우리 나라의 공업생산은 해마다 15.9%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자랑찬  
승리인가!

창건 첫날부터 큰걸음을 걸어온 조선로동당!

한 자욱에 세기를 주름잡는 김일성동지의 당!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한 1970년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  
는 위대한 3대혁명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우리 인  
민은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을 승리로  
확신성있게 향도하였거니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70일전투》에서 영예로  
운 승리자가 된것도, 원썬들의 무모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조국앞에 커다란 위협이 닥쳐왔던 197  
6년 8월의 그날에 우리 인민이 산악처럼 일떠나  
서 난국을 맞받아나갈수 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  
의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온 나라를 차넘치게 하고

속도전의 열풍으로 전국을 불어일으킨 영광스러운 당은 검덕과 청산땅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를 지피고 그것을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로 타번지게 하였거니 오늘 3대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발은 제철소의 구내에도 동해의 천리어장에도 풍년든 농장벌의 창공에서도 힘차게 나뭇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친히 찾아주신 숨은 영웅들.

그들을 우리 시대의 모범으로,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높이 내세워준 우리 당!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이며 그들의 모범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숭고한 정신을 지닌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이 대중적사상개조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진 조선의 1970년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위업이 꽃피고 열매맺은 1970년대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하기에 협동벌의 영웅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이 있는 한 우리는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오직 승리의 한길만을 달려올수 있었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이 있기에 우리에게겐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는 이 말은 우리 전체 인민의 심정이며 신념이다.

위대한 비약의 년대기우에 자랑스럽게 새겨진 우리의 신념!

이런 신념이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한결음에도 세기를 뛰어넘는다.

세기에서 세기를 주름잡으며 큰걸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

1970년대를 승리로 아로새긴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우리 인민은 1980 년대의 높은 고지로 진군을 시작하였다.

우리앞에 펼쳐져있는 전망은 참으로 휘황찬란하다.

1,000 억 킬로와트시의 전력!

1 억 2,000 만톤의 석탄!

1,500 만톤의 강철!

150 만톤의 유색금속!

2,000 만톤의 세멘트!

700 만톤의 화학비료!

15 억메터의 천!

500 만톤의 수산물!

1,500 만톤의 알곡!

30 만정보의 간석지개간!

이것은 1980 년대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 대전망목표이다.

1980 년대의 전망목표!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해보지 못한 이 웅대한 목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앞에 펼쳐주신 휘황한 설계도이다.

이 웅대한 목표에 도달하면 1980년대말에 가서 우리의 공업총생산액은 1946년 공업총생산액의 1,000배로 늘어나게 되며 1946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8시간동안에 생산하게 된다. 이때에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설것이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전망인가!

해방된 조선, 1946 년의 생산수준으로 걸음을 옮긴다면 천년이 걸려야 하는 1980 년대의 전망고지!

어찌 그뿐이랴!

혁명과 건설의 보다 휘황한 래일이 우리의 가슴을 흥분으로 설레게 한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의 성스러운 위업이 실현될 멀지 않은 미래,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될 조선의 농촌...

얼마나 희망찬 미래가 우리앞에 펼쳐져있는 것인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가 실현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실현되어 사람도 사회도 새로와질 우리의 조국!

공산주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길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게 될 조선의 1980 년대!

어찌 그뿐이랴, 1980년대에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질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때 대한 적극적인 방안과 그의 10 대시정방침!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발기하신 이 공명정대한 방침은 지금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 폭풍파도 같은 반향을 불어일으키고있지 않는가!

우리앞에 펼쳐진 전망은 휘황하고 우리가 도달하게 될 목표는 뚜렷하지만 또 우리가 전진하여 갈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도 많을것이다.

그러나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의 앞에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 계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거니 우리는 큰걸음으로 나아갈것이며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그날에 살고싶어

김송남

마치  
그 한순간  
그 말씀 한마디를 놓치면  
이제 울 즐거운 앞날  
나머지 생애를 다 잃어버릴듯

온 나라가 뜨거운 숨결을 모아  
당대회 높은 연단을 우러를 때  
우리의 가슴가슴  
뜨겁게 올려주던  
아버이수령님 그 음성-

그 위대한 구상이  
당의 새 결심으로 울리고  
당의 결심은  
우리의 피방울로 높뛰어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우리의 눈동자 얼마나 더 밝아졌던가

내 사는 집에  
내 서있는 일터에  
아침저녁 높아가는 그 웃음소리  
나도 다는 몰랐던  
말 못할 기쁨에 젖으며  
바라보는 하늘빛이  
그날엔 더 고왔다...

전설같이 신비로운듯  
희망의 열개 봉우리  
강철과 쌀과 그 모든 재부의 산악들이  
우리의 하늘을 더 높이 들어올릴  
더 좋은 그날에 살리라고  
오늘에 흘리는 땀이 더 소중했다

어데선가 먼 강물소리도  
이제 흘러갈 기슭이  
더 좋으리라 노래하는듯  
부는 바람도  
사회주의 높은 언덕을 향해  
발걸음 다그치자고 속삭이는듯

아, 듣기만 해도  
가슴 울렁이는 미래  
얼마나 더 좋으랴  
그날에 일하며 살아가기가  
바라기에 앞서  
걸음걸음 기쁨이 기다려주리

어데서나 생각처럼 즐거운 일들이  
소문없이 집집의 문을 두드리리

거기는 이 년대의 한끝  
아직은 그 몇번  
꽃피고 눈내리고 해를 바꿔야 하건만  
아버이수령님 가리키시니  
이제는 벌써 래일처럼 가까운곳

세계는 환호를 보내고  
우리의 마음은  
감격의 열풍을 터친다  
위대하고 영광에 찬  
원정의 새길에서...

그 가르치심 새겨들으며  
가슴 높뛰던  
기쁜 하루사이에  
진정 가장 빛나게 살수 있는  
한생의 삶을 새로 찾은듯

그 어떤 장엄한 선언처럼  
용해공들은 출강종을 울리고  
광부들은 도화선에 불을 단다  
인적 없는 서해 간석지에  
부푸는 흰돛인듯  
새 주인들이 천막을 올린다

다는 몰랐던  
희망의 아름다움도  
다는 알수 없던 삶의 가지가지 기쁨도  
모든것이 못별처럼 빛나오를  
우리 수령님 가리키시는곳

아, 그날에 살고싶어  
힘을 떨치며  
열정을 쏟으며  
소중히 지녀온 량심을 바치며  
우리는 벌써 길을 떠났다

이 세상 끝까지  
아버이수령님 따르고 모시여  
변함없을 그 마음으로  
한번 내여디디여  
멈춘적 없고  
흔들린적 없는  
그 무쇠발걸음으로!

# 불라는 저녁노을

백하

유난히도 붉어라  
피여오르는 노을  
이해의 마지막 저녁노을  
바라보니 떠나는 한해를 두고  
끝없이 걷고싶어라  
마치도 먼길 떠나는 벗을 작별하듯...

얼마나 살뜰한 정을 부어왔던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기울였던가  
한장 한장 달력을 넘길 때마다  
지내온 날의 보람과 맞는 날의 기쁨으로  
가슴 울렁이던 한해

오 1980년의 년륜을 새기며  
푸른 섬광을 날리던  
저 아득한 하늘우엔  
새 거리 새 공장의 웅장한 모습이  
노을에 물들어  
우렁이 떠오르고

흰구름 조용히 스치는  
인민대학습당의 정가로운 지붕우엔  
상기도 당 6차대회의 천만송이 축포  
그 붉고 파아란 꽃송이들이  
끝없이 내려앉는듯

어디를 보아도 몰라보게 변한  
이 한해의 내 조국땅  
바쳐온 로동의 나날을 두고  
스스로도 놀라웁게 생각되는  
벅찬 마음이 비껴  
노을은 저리도 불게 타번지는것인가

뜻깊은 《100일전투》의 하루하루  
그날의 하루를 백날처럼 보내고도  
별 많은 밤이면 남몰래  
야간지원돌격대의 전투장으로 나가고  
별빛아래 누런 벼단을 안아올리던

불같은 심장들을 그대로 안고  
노을은 저리도 아름다운것이여라  
아름다운것이여라  
이 땅 이해에 아로새겨진  
아버이사랑의 거룩한 자욱  
꺼질줄 모르던 당중앙의 불빛  
따르며 우려했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하늘가에 빛을 뿌리며-

아 우리 그 언제  
이처럼 크나큰 영예를 지니고  
그처럼 크나큰 경사로 해를 보냈거나  
이해의 모든 걸음걸음이  
숨은 영웅들과 발걸음 맞추어  
영광의 10월에도 내달려온 기쁨  
휘황한 새 설계도를 받아안은 행복

스치는 저녁바람  
피여나는 노을이  
그 기쁨 그 행복을 안겨주신  
아버이사랑을 끝없이 이야기하며  
보람찬 삶과 투쟁의 희열을 안겨준  
고마운 당의 그 은정을 노래부르는듯

노을이 불타라  
가없는 하늘과 눈덮인 대지  
설레이는 우리의 마음속깊이  
붉게붉게 물들이며  
불타라 온 누리에  
하나의 붉은 기폭처럼

력사에 길이 빛날  
영광의 1980 년!  
세월과 세월을 넘어 빛을 뿌리며  
기발처럼 펼쳐진 이해의 노을이여  
이 땅 이 하늘을 더 붉게 물들이며  
찬란한 새해의 아침노을로 피어나리라!

# 잊지못할 이한해를 보내면서

엄단웅

아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만수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꽃을 드리고 세배를 올리던 일이 바로 어제일만 같은데 어느덧 이 한해도 저물어가고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앞둔 때마다 감회도 깊고 생각도 많지만 올해는 더욱 그렇다. 참으로 올해야말로 얼마나 뜻깊은 해인가.

올해 1980년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경사스러운것은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열렸던 10월의 대축전이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당 조선로동당이 5차대회이후 10년만에 여섯번째 대회를 열고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지난 70년대의 사업을 총화하고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보다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80년대의 웅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한 력사적인 이 대회야말로 얼마나 의의깊은 대회였는가!

당대회를 전후하여 있었던 가지가지 그 감격적인 일들을 나는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다. 대회장 높은 연단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우리 조선인민에게는 물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휘황한 승리의 앞길을 등대마냥 환하게 밝혀준 참으로 위대한 혁명의 강령이며 삶과 투쟁의 화불이었다.

보고에서 새로 밝혀진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와 조국통일방안을 놓고 그 누군들 그러지 않았으랴만 나 역시 뿔어넘치는 감격과 흥분으로 며칠밤을 자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그 실현을 위해 내달려야 할 나의 래일을 결의했다.

올해처럼, 아니 올해보다 더한 충천한 기세와 열정으로 한다면 그 어떤 고지인들 점령하지 못하겠는가.

나는 래일로의 비약과 전진을 준비하며 자랑넘친 올해를 돌이켜본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양양이 일어났습니다. 올해에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할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력사적인 당대회가 열린 1980년,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시기로 될 년대의 첫해로서의 1980년, 이 의의깊은 해에 우리 인민은 새해벽두부터 오늘까지 위훈과 혁신으로 세기에 빛날 업적을 쌓아올렸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로 1980년대의 첫해를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전진의 해로 만든 우리 인민의 거세찬 진군을 그 무엇에 비할수 있단말인가.

력사는 또한 이해에 당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누가 보건말건 충성다해 일하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일본세의 구감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게 되었다.

온 나라 온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도처에서 소문도 없이 조국을 위하여 큰일들을 제껴나가고있으며 가는곳마다에서 힘찬 로력투쟁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록을 창조하고있다.

교육, 과학, 문화예술 등 모든 령역에서 눈부신 변화발전을 이룩하였다.

당대회를 맞이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힘차게 벌린 《100일전투》의 나날들은 영웅서사시적인, 자랑찬 로력투쟁의 불꽃튀는 나날이었다.

실로 당 제6차대회에 드리는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뿔어넘치는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새 기적을 창조해가던 벽찬 로력투쟁의 그 나날들을 감격없이 생각하는



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성장의 빠름을 두고 비온뒤의 대나무순에 비유하곤하였으나 오늘에 와서 우리 현실의 빠른 발전속도를 표현할 비유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역시 그렇다. 시간마다 변모하는 오늘의 우리 조국의 모습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 개념 역시 적중하지 못하다.

그래서 천리마속도, 《평양속도》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개념 역시 1960년대와는 또 달라졌다.

그것은 평양거리 중심부의 면모를 더욱 화려하고 품위있게 만든 인민대학습당 하나만 놓고봐도 그러하다.

주체적인 우리 건축예술의 정화라고 볼수 있는 이 엄청난게 큰, 고래등이 아니라 그대로 산악처럼 웅대한 이 건축물을 우리는 이해에 착공으로부터 시작하여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일떠세웠다.

1970년대에 우리가 지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인 체육관과 인민문화궁전의 빠른 건설속도를 놓고 세상사람들은 천리마적창조물이라고 경탄하여마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와서 우리가 건설한 인민대학습당은 체육관, 인민문화궁전의 건설속도를 몇배나 능가하였으니 그 속도를 무엇이라 표현해야 옳겠는가.

이뿐인가.

은 나라 도처에 이년대의 기념비인양 새로운 공장이 일떠서고 광산이 생겨나고 발전소가 건설되고 대형기계, 대형집배, 새로운 설비들이 물밀

듯 쏟아졌으니 한해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창하고 놀라운 기적인것이다.

우리 작가들도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 혁명적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나는 이 력사적인 해에 당대회에 드리는 충성의 선물로 장편소설 《령마루》를 창작발표하였다. 주체형의 인간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그린 이 소설은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바치는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충성의 높이에 비해볼 때 결코 만족할수 없는것이다. 아니 더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는 분발과 의욕으로 나자신을 채찍질 하는것으로 된다.

참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각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1980년대의 웅대한 전망과 투쟁강령을 펼쳐주시면서 우리 작가들에게도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우리 작가들에게 돌려주시는 이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 못한다면 당의 작가된 우리에게 무슨 삶의 보람이 있겠는가.

잊을수 없는 이 한해를 보내면서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면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이바지할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할 굳은 결의를 다지며 당대회보고 관철의 첫해를 뜻깊게 맞이하려고 한다.

## 작가결의

# 불라는 충성의 열정으로

리종렬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또다시 강조하시였습니다.

불라는 충성의 열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고있는 저는 새로운 창작적열의로 충만되어있습니다.

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전통주체의 장편소설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하기 위하여 충성의 열정을 다바쳐 투쟁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라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항일혁명전쟁의 불멸의 력사를 깊이 연구하고 창작적기량을 부단히 높여 창작과제를 빛나게 수행하겠다는것을 결의합니다.

##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이 낳은 귀중한 열매

최인경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세상에 내놓은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은 지금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보고를 받아안고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거세찬 진군을 하고있는 온 나라 근로자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청춘도 사랑도 다바쳐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와 같이 지성을 다해온 주인공 유설경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도록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특출한 성과작이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사상예술적성과 속에는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가사가 주옥같이 빛나고있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가사는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온다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이 낳은 귀중한 열매이다.

우리 당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인 우리 시대에 노래가 노는 거대한 사상정서적교양의 기능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특히는 노래에 있어서 곡의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가사의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이 한결 같이 경탄해마지않는 《노래의 나라》, 《명곡의 나라》로 되였으며 특히 우리의 영화음악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가사도 바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명가사리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일념으로 불타는 로동당시대 우리 인민의 정서를 완결된 시형상속에 깊이있게 반영한 명가사로, 우리 인민들과 청년

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부르며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생활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되였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가사는 당과 수령께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치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자인 숨은 영웅의 숭고한 감정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정서적으로 절절하게,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잘 반영한 명가사이다.

그러면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의 가사가 몇개 소절밖에 되지 않는 짙막한 시형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그처럼 감명깊게 반영할수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225 페이지)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가사는 무엇보다도 가사전편을 통하여 시종일관 그 누가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찬서리 눈바람이 앞을 막아도 오로지 충성의 한길에서 행복을 찾으며 희망을 안고 이 한길만을 가고가는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참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가사는 주인공의 이러한 사상감정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은 비단 주인공 한사람만의 사상감정이 아니라 숨은 영웅들을 따라 온 사회에 대하와도 같이 굽이치고있는 로동당시대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신념이며 감정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사상감정이 영화의 감명깊은 화면들과 밀착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보람찬 생활을 되새겨보면서 깊은 사색의 세계에 잠기게 하는것이다.

또한 가사전편이 주인공의 숭고한 감정선으로 즐기치게 일관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가사는 작품의 주제를 형상적으로 관통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주제가로서의 자기의 몫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주제가의 가사 첫절에서부터 뜨겁게 노래되고있다.

따뜻한 길을 찾아 새들은 가도  
찬바람 부는 길을 처너는 가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가사의 이 첫절은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갱생 1 호》의 중요한 연구과제를 맡고 하나의 집단이 되어 금정리현장으로 내려왔던 동창생들이 시험현장을 떠나 연구소로 다시 돌아갈 때의 주인공 유설경의 심정을 노래한것이다.

따뜻한 길을 찾아 새들이 가듯이 두 남녀동창생은 서로 사랑을 맺고 결혼을 약속하고는 안온한 연구실을 찾아 시험포전을 떠나가버리는것이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사랑을 알게 된 설경은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축복해주며 어서 새집을 꾸려주자고 진정을 다 쏟아붓는다. 그러나 윤석은 이러한 설경의 맑은 마음에 모욕과 비웃음을 던지고 가버리는것이다. 그들을 바래우고 나루가에 홀로 남은 설경의 마음은 참으로 저리고 피로왔다.

나서자란 요람은 같아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이처럼 첫시작부터 서로 다른것인가? 과학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도 애어린 연약한 처녀, 그가 걸어가야 할 과학탐구의 길은 얼마나 간고하며 넘어야 할 시련의 고비 또한 그 얼마이겠는가!

이 길은 정녕 10년을 가야 할지 20년을 가야 할지, 아니면 한생을 걸어도 끝이 없을지 기약할수 없는 험난하고 시련에 찬 길이었다.

그러나 설경은 결코 날아가는 새들을 따라 따뜻한 길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누가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찬바람부는 이 길, 간고하지만 보람찬 과학탐구의 길을 변함없이, 영원히 걸어갈것을 굳게 속다짐하는것이다.

이처럼 가사는 주인공의 가슴에 차넘치는 충성의 열정을 깊이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처음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하며 작품이 내세우려는 주제를 뚜렷이 해준다. 가사는 주인공의 이러한 숭고한 사상감정을 영화의 사건이 전진하고 극이 발전하는데 따라 더욱 고조시켜 긴장된 극적감정으로 이끌어가면서 정서적으로 더욱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가사가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감정세계를 것처럼 감명깊게 반영할수 있는것은 또한 가사가 주인공의 심각한 운명선과 밀착되어 절박한 극성을 체현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이 밝혀준바와 같이 영화의 가사는 화면과 장면의 내용에 맞아야 하며 화면의 내용을 보태여주는데 형상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극예술인 영화에서는 노래와 가사도 주인공의 극적인 체험세계,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하는것이다.

모든 문학예술작품의 감정세계는 그것이 그 어떤 단순한 생활적계기보다 인간의 운명문제와 결부될 때 고도의 심각성과 극성을 체현하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운명문제가 일정에 오를 때, 자신의 운명이 판가리될 때 가장 심각한 체험을 하게 되며 그에 따라 정서상태도 극도로 예리해지게 된다.

영화의 주제가의 이 가사는 주인공의 운명문제, 우리 시대가 제기한 심각한 인간문제를 반영하고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기약할수 없는 간고한 과학탐구의 길에 한생을 바칠것인가, 아니면 적지 않은 처녀들이 흔히 그러하듯 청춘을 고스란히 사랑과 가정에 바쳐 편안히 살아갈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인간의 운명문제였다. 따라서 이러한 운명문제를 체현한 인간의 내면세계가 극성을 체현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가사는 바로 심각한 인간의 운명문제를 안고있는 주인공의 극적체험세계를 정서적으로 절절하게 반영하고있는것이다.

꿈 많은 그 시절은 흘러갔어도  
하나의 소원안고 사는 이 마음  
청춘의 사랑은 소중해도 소중하여도  
보람찬 이 길에서 행복 찾으리

꿈많은 그 시절, 다시 올수없는 청춘시절은 아름다운 꽃나이치녀인 설경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하였으며 심장속에 뿌리내린 사랑의 감정 또한 그지없이 소중하였다.

과학과 사랑, 이것은 설경에게 있어서 그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도 사랑하고 싶었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었다. 설경에게 있어서 최철민은 귀중한 사랑을 안겨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한몸의 행복을 위해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님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수 없었다.

그리하여 설경은 것처럼 철민은 사랑하면서도, 고민하면서도 이처럼 단호히 그와 결별하는것이다.

이러한 그의 깊은 심정을 리해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청춘시절이 두번 있는것은 아니요》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영영 떠나가는 철민이를 보내는 설경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가사는 주인공의 이러한 심각한 극적체험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의 참된 행복은 개인적인 사랑과 안온한 생활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한길에 청춘도 사랑도 다바쳐 지성을 다하는 거기에 있다는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줌으로써 이처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사로 될수 있었다.

우리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만가지 고통중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심리적고통을 이겨나가며 충성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통하여 간고하고도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싹트고 뿌리내려진 주체형의 참

다운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충성심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되는것이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야 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투사들에 의하여 우리 녀성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뿌리 내려진 충성심은 오늘도 이처럼 영원한 꽃으로 피고 불멸하는 별로 빛나고있는것이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가사가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감정세계를 이처럼 감명깊게 반영할수 있는것은 또한 주인공 유설경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한데 있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의 가사는 한결같이 주인공 유설경의 보람찬 생활과 밀착되어 있으며 또 그것을 가식없이 생활 그대로의 감정으로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머나먼 산기슭에 바람 세차도  
푸른 꿈 안고사는 처녀의 마음  
찬서리 눈속에 묻혀도 묻힌다 해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이 가사의 구절들은 철민과 헤어졌던 설경이가 렬차안에서 우연히 다시 철민과 상봉하게 된후 다시한번 겪게 되는 아픈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저 멀리 눈바람 사나운 북부개마고원으로 떠나가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감정을 반영하고있는 노래이다.

화면에서 본바와 같이 주인공이 눈보라와 혹한을 물리치며 천신만고하여 찾아간 북부의 고원에서도 그를 기다리고있는것은 또 역시 실망과 아픔을 주는 시련뿐이었다. 그러나 설경은 다시한번 더 굴함없이 그 길로 달려나가 쌓이고 쌓인 눈무지를 두손으로 파고 헤치며 마침내는 그 무연한 눈속에서 세알의 귀중한 종자를 얻어내고야 마는것이다.

그것이 너무도 기쁘고 소중하여서, 기쁘고 소중하다고 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도 한가슴에 안기가 벅차서 쌓인 눈무지위에 누워 푸른 대공을 우

러르며 눈가루에 얼굴을 비벼도보고 울어도 보는 주인공의 모습은 그 얼마나 숭엄한것인가.

가사는 바로 이렇게 자기가 10 여년을 하루와 같이 정성을 다해 심고 가꾸어온 충성의 《갱생 1호》는 눈속에서도 찬서리속에서도 기어이 싹이트고 꽃이 퍼서 열매를 맺고야 말리라는 주인공의 확신에 찬 생활감정,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앞을 막아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 시대의 선구자가 되려는 주인공의 생활감정을 그대로 진실하게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는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주인공과 같이 이 심장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와 함께 정거장으로 달려가 슬픈 리별을 같이 하기도 하고 윤석과 맞서서

론쟁도 함께 하고 때로는 두엄더미를 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으로 하여 손에 땀을 쥐여가며 그와 같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시련의 언덕들도 함께 넘는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가사는 그 사상예술적원숙성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적인 가사문학이 거둔 특출한 성과작으로 된다.

가사는 이 높은 사상예술적성으로 하여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성 다하도록 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 단상

# 생동하고 심오한것

## 안창만

우리 시대 인간들의 지향은 숭고한 아름다움이며 따라서 우리 시인들의 노래 또한 그 숭고한 아름다움에 대한 열렬한 찬가이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적특징은 또한 그 숭고한 지향을 가슴에 품고있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지향을 현실화하는 적극적인 실천자라는데 있다.

우리 시대 시인들의 사명은 바로 그 지향을 아름답게 여길뿐아니라 훌륭히 노래부르는것이다.

그런데 숨은 영웅들이 걸은 과학탐구의 길이 순탄치 않은것처럼 훌륭한 노래 또한 쉽게 창작되는것은 아니다.

풍부한 생활체험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사색, 남다른 탐구를 거쳐 새로운 형상을 찾아내야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가사는 우리앞에 바로 그 생동성과 심도를 새로운 시적형상으로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고있다.

세 련으로 된 이 짧은 가사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매력있는 꽃으로 피어난 한 처녀과학자의 전모를 볼수 있으며 그의 뜨거운 사색과 고결한 결심, 그의 눈물겹게 감동적인 행동과 가슴에 품은 놀라운 포부 그리고 다감한 그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것이다.

우리 당은 가사를 직선적으로 쓰지 말고 형상적으로 쓸데 대하여 여러 차례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었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을 관철하자면 생활을 개념화 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하며 가사의 그 어떤 《틀》에 생활을 틀어맞출것이 아니라 노래가 생활의 흐름을 타고 흘러나오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그와 같은 모범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따뜻한 것을 찾아 새들은 가도  
찬바람 부는 길을 치녀는 가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이 얼마나 인간정서의 구체성, 생활감정의 생

동성으로 충만되어있는것인가. 여기엔 티끌만한 허식도 없다. 관습과 틀의 그림자조차 없다. 이 가사의 흐름은 그 어떤 노래의 흐름이라기보다 생활정서의 흐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가사의 형상성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가사에 생활의 생동성과 함께 철학적깊이를 훌륭히 보장하는데 있다.

시에서의 철학적성, 가사에서의 철학적성은 시적사상과 시적정서의 핵이다. 이 철학적성은 시대와 역사우에 아지를 자래워 만사람의 뜨거운 공감을 불러 일으킬만큼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를 발견하였을 때만 보장될수 있는것이다.

.....

찬서리 눈속에 묻혀도 묻힌다 해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

꿈 많은 그 시절은 흘러갔어도  
하나의 소원안고 사는 이 마음

...

남들은 따뜻한 것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여기며 찾아가갈 때 바람세찬 길에 나서는 처녀, 찬서리 눈속에 묻힌다 해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려는 아름다운 포부, 커다란 긍지를 안고 머나먼 산촌 바람부는 길우에 스스로 꽃다운 한생을 내대는 뜨거운 마음의 발견,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적특질을 확충하여 빛내여주는 시적종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혁명 위해 청춘을 희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여기는 처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야말로 우리들을 오래도록 뜨거운 생각에 잠기게 하는 참답고 심도깊은 인생철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와 같이 생활정서의 생동한 흐름에 몸을 실은 창작적자세와 심도깊고 의의있는 철학의 발전은 이 가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이 가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작적 시사는 참으로 많은것이다. 그중에서 몇가지만을 더 토막토막 생각해보자.

이 가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첫인상에 새롭다는 것을 느낀다. 가사는 시작부터가 새롭다. 가사는 첫구절부터 따뜻한 것을 찾아 새들은 날아가지만 찬바람 부는 길을 처녀는 간다고 시적종자를 강렬하게 토로한다.

생각해보라. 항용 어떤 내용 또는 무엇무엇을 조건지으며 노래를 떼기 시작하던 일련의 가사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음미하고 음미할수록 이 가사는 숨은 영웅의 사고와 행동이 첫발자욱부터 남다르게 비범한것처럼 그 시작부터 참으로 새롭고 독특하다.

이 가사는 또한 자기의 정서세계에 맞는 비유와 대조를 탐색하고 1, 2, 3절에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따뜻한 것을 찾아가는 새들과 바람부는 길을 스스로 택한 처녀, 과학탐구의 터전인 머나먼 산기슭에 바람은 세차도 푸른 창공에 나래치는 처녀의 꿈, 꿈 많은 청춘시절은 흘러갔어도 변치않는 충성의 그 소원 ...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실패한 가사들에서 나타내던 내용의 반복이 아니다. 이 가사야말로 시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1 절에서는 비교적 생활의 혼향을 풍기다가도 2 절 후단부터는 생활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개념화어로 줄달음치면서 3 절 마감엔 공식적인 결구를 만들어붙이던 일련의 가사들과 자기를 얼마나 뚜렷이 구별짓고 있는가.

이 가사의 형상적특징은 또한 감정색갈의 반복과 어휘의 반복을 대담하게 의도화하여 시적정서의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서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마련해주고있다.

1 절에서 《...새들은 가도》 2 절에서 《...바람 세차도》 3 절에서 《...흘러갔어도》 그리고 2 절에서 《푸른 꿈》 3 절에서 《꿈 많은》 2 절에서 《...처녀의 마음》 3 절에서 《...사는 이 마음》 이와 같은 어휘의 반복을 인위적으로 피하려고 그 자리에 다른 어휘를 바꾸어넣는다고 가상해보라...

이 기사의 특징의 하나는 또한 적지 않은 경우 노래 대상을 해설하던 비형상적인 관습을 버리고 생활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들은 한마디도 허용하지 않고있는 점이다.

가사는 서정적주인공의 지향을 표현할 때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라고 씀으로써 생활정서의 흐름에 충실하였고 론리적관단과 추리는 모두 독자들의 상상에 대담하게 맡겨버린다.

이 가사는 또한 《찬바람 부는 길》 《눈속에 묻혀도》 와 같이 사회주의현실주제 가사에서 쓰이지 않던 자연정경묘사도 대담하게 주고있다.

왜냐 하면 허식과 틀에서 벗어나서 처녀과학자의 생활을 사실 그대로 노래해야 했기때문이며 주인공의 생활에 맞게 시적감정의 강렬한 극성을 마련해야 했기때문이다.

이 가사에 대한 당의 지도와 이 가사의 형상에서 최고절정을 이루는것은 1 절의 결속과 3 절의 결속이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이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절절하고 매력있는가!... 여기엔 정치적표현도 없고 서정적주인공의 자기 회생성에 대한 찬사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드리려는 한마음을 가장 순결하게 꽃피워가는 처녀과학자의 아름다운 지향앞에서 뜨거운것을 삼키며, 처녀과학자가 걷는 그 길앞에 한없이 겸허해지는것이다.

청춘의 사랑은 소중해도 소중하여도  
보람찬 이 길에서 행복 찾으리

여기에는 혁명과 충성심에 대한 정치적표현이 한군데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아름다운 꿈을 가진 처녀과학자가 걷는 보람찬 길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충성

의 길이며 정치적생명을 빛내는 혁명의 길이라는 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가사의 이와 같은 결속은 마치도 우리에게 가사의 철학적여운이란 바로 이렇게 마련되는것이라고 힘있게 웅변적으로말해주는듯싶다.

우리 당의 현명한 가사혁명방침과, 세심하고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작완성된 이 명가사를 두고 우리의 생각은 깊어진다.

가사창작을 험하게 생각하고 혼한 방식으로 겪어나가다가 원고상태로 남겨둔 때도 있었으며 비교적 운치가 있고 생활적인 가사이던것도 셋째단에 일률적으로 《아》 하는 감탄구나 《에헤-》 하는 조흥구를 갖다댔으로써 감정을 공식화해버린 때도 있었다.

명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가 보여준 형상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는 도식적이고 관습화된 틀에 맞추면서 가사를 만들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느낀것을 생활의 흐름을 타고 진실하게 노래 불러야 할것이다.

직선적인 표현, 일반적인 느낌, 서정의 종자와는 인연이 없는 설명과 그 어떤 로파심으로 인한 강조 등 온갖 비형상적인것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앞뒤를 보면서 논리에 맞추는 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상의 탐구, 생활그대로의 감정정서와 표현을 찾고찾으리라. 이것이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를 두고 거듭하는 다짐이다.

## 단상

# 풍만한 정서가 흘러넘치는 가사

김정호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아름다운것을 사랑하여 왔다.

따뜻한 울밑에 피어난 연약한 꽃들보다도 간소한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그러한 꽃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것은 것처럼 사나운 흑한속에서 핀 꽃이 향기 그윽하고 억세듯이 우리 인민은 간소한 시련을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고 그속에서 새것을 창조하며 싸워왔기때문이다.

젊기는 자욱자욱이 혁명의 사령부를 받드는 마음이였고 사령부를 멀리 떠난 적후공작의 나날에도 장군님의 해발이 되어 혁명의 폭풍속을 헤쳐온 항일의 녀성영웅의 충성심은 우리 인민의 가

장 귀중한 사상감정으로 되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내려온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과학탐구에 한몸 잠그고 청춘도 사랑도 아낌없이 바쳐온 숨은 영웅의 가슴속에 불타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또한 온 사회에 도도히 굽이치는 오늘의 시대적정서이며 감정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시대정서와 생활감정을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의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가 정서적으로 훌륭하게 노래한 모범을 보여주주고있다.

이 가사가 이처럼 성공하게 된것은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는 우리 당의 가르침을 원만히 구현 한데서 온것이다.

몇줄 안되는 하나의 가사가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을 담고 사람들의 심금을 그토록 절절하게 울려주는것도 바로 거기에 우리 인민들의 주도적 감정이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되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한국의 노래를 지어도 우리 인민의 사상과 생활감정에 맞게 지어야 하며 인민들이 부르기 쉽게 지어야합니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에 담겨진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생활감정은 로동당시대 우리 인민의 정서가 그대로 흘러넘치기때문에 인민의 사랑을 받는 노래로 불리워지고있는것이다.

따뜻한 것을 찾아 새들은 가도  
찬바람 부는 길을 처녀는 가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가사는 대학시절에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속삭이던 학창의 벗들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지만 10년,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한생을 다 바쳐야 할지 기약할수 없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과학탐구의 길로 걸어가는 서정적주인공 숨은 영웅의 숭고하고 깊은 내면세계, 변함없는 지향과 희망찬 미래에 대하여 강렬한 서정적외로로 훌륭히 노래하고있다.

이처럼 서정적주인공의 본질적인 사상감정을 뜻깊고 세련된 시어로 표현함으로써 시의 구절은 끝났으나 노래의 금선을 타고 우리의 가슴속에 파고 드는 풍만한 정서적과동은 계속되고있다.

가사의 2절은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을 보다 구체적이며 생동한 정서로 일층 심화시켜나가며 절절한 서정을 분출시킨다.

머나먼 산기슭에 바람 세차도  
푸른 꿈 안고 사는 처녀의 마음  
찬서리 눈속에 묻혀도 묻힌다 해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서정적주인공 숨은 영웅은 안온한 실험실에서 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자연 그대로를 탐구의 대

상으로 삼고 아픈 심리적고충, 눈보라와 흑한을 이겨 내면서 과학의 선구자, 시대의 선구자로서 온 심잡, 온 넋을 송두리채 바친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

여기에 담겨진 높은 시적형상은 그 어떤 자연현상도 정복하고야마는 자주적인간의 힘의 선언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안고 계절에 앞서 봄을 먼저 불러오고야말 우리 시대 숨은 영웅들이 간직하고있는 미래에 대한 드팀없는 신념이다.

가사의 3절에서는 청춘시절은 흘러가고 누구에게나 청춘의 사랑은 소중해도 서정적주인공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과학탐구의 길에서 보람찬 삶의 행복을 찾는다.

꿈 많은 그 시절은 흘러갔어도  
하나의 소원 안고 사는 이 미음  
청춘의 사랑은 소중해도 소중하여도  
보람찬 이 길에서 행복 찾으리

가사는 이처럼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값높은 삶에 대하여 소박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절절하게 노래함으로써 우리의 가슴을 뜨겁고 숭엄하게 한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가 이토록 성과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충성심을 직선적이 아니라 높은 형상으로 노래한데 있다.

가사의 생명력은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얼마나 세련된 시형상으로 노래하는가 하는데 있다. 만약 아무리 훌륭하고 감동적인 사상적내용이라 해도 썩은 시형상으로 노래하지 못할 때엔 그 가사는 설익은 과일처럼 향기가 없고 고목처럼 푸르싱싱함이 없고 여운도 없다.

이 가사가 뽑은 강렬한 서정-그것은 수령님과 당에 바치는 불타는 충성의 시이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과 행복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현명하게 령도해나가는 우리 당의 문예사상에 의하여 인민의 정서를 옹계 반영한 노래로 되였다.

참으로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지금 우리 가사창작가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함과 충동을 불러 일으켜주고있다.

우리는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개성이 뚜렷하고 시대적정서가 풍만하며 사상에술적향취가 흘러넘치는 명가사를 보다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워 나가야 할것이다.



## 벽계역장

김용한

깊은 벽촌의 밤.

아찔하게 치솟은 산봉우리들을 삼키며 울부짖던 눈보라도 어느새 잦아버리고 어둠속에서 고요가 끝없이 내려앉은 밤.

어찌다 들려오는 짝 잃은 노루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낯설은 방에서 나는 역장을 기다렸다. 이제부터 국의 지시대로 도시사람이던 나는 이 고장에서 살아야 하고 여기서 늙어온 역장은 도시로 갈것이다. 말하자면 세월이 우리 두 사람을 갈 길이 서로 다른 생활의 교차점우에 세워놓은 셈이었다.

인심좋은 역장로친이 참나무장작을 넉넉히 때여준 방에는 나외에 체대되어 참달피탄광으로 간다는 젊은이 두사람이 들어있다.

도합 십여세대 되나마나한 벽계마을에 손님을 위한 《려관》이란 역장네 옷방이었다.

저녁차에 내린 두 젊은이는 텔레비존앞에 장기관을 펼쳐놓고 서로 싱갱이를 하더니 이젠 기척이 없다.

려행길에 치졌지만 나는 팔을 베고 누워 천반지의 단조로운 문양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있다. 역장사업을 인계하는 주인을 위해서 그랬다.

이 밤으로 인계를 시작해야 이 집 주인은 수도에서 철도부 국장을 하는 아들네 집에 가서 설을 쉴수 있다.

어느 숲속을 헤매이는 노루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등불이 뿌옇해지고 눈시울이 극복할수 없는 힘에 눌러 점점 무거워진다. 나는 들어올줄 모르는 늙은 역장을 속으로 나무라며 지긋게 달라붙는 잠을 때내려고 애를 썼다.

만약 관리국장의 절절한 호소가 아니었던들 내가 지금 여기 와있지부터 앓았을것이다.

《김동무, 어떻게 하겠소? 우리 국에서 그렇게 권고해두 듣지 않더니만 년말을 앞두고 벽계역장이 역장사업을 인계해야겠다고 제기했구려... 집에서 섭섭이야 하겠지... 하지만 철도에서 늙어온 로인을 우리가 생각해드려야지 누가 하겠소...》

나는 서운해하는 집사람과 아이들을 뒤에 두고 그날 밤차로 떠났다.

이렇게 령감을 위해서 떠난 길에 된고생이 기다리고있을줄이야...

벽계역까지 가자면 하루밤 중간역에서 어차피

묵어야 한다.

이 중간역에서 하루밤 묵지 않으려고 잡아탄 탄광화물차는 나를 참달피어구에다 내려놓았다. 계곡사이로 좁다랗게 난 길에 들어서자부터 날씨가 변덕을 부리더니 끝내 눈보라를 몰아왔다.

고산지대의 눈보라가 무섭다 무섭다 해도 설마 그렇게 무서운줄은 몰랐다. 계곡이 메여 휘말려오던 눈보라는 막바지에 이르자 울분을 터쳐며 눈가루를 온 천지에 뽀뽀뿌렸다. 울창한 수림도, 골짜기도, 자연의 횡포속에 말려들어 울부짖고 사방이 몽롱해졌다. 숨을 돌릴만하면 다시 눈보라가 덮쳐들어 정신조차 차릴수 없었다. 그저 보이는것은 눈사태고 들리는것은 우-우-우-하는 수림의 무서운 울부짖음이었다.

내가 눈사태에 묻히지 않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꿈만 같다. 그저 시간반이면 벽계에 닿을 길을 무려 반나절이나 헤매고있을 때 쇠스래와 물황철이 뿌옇게 바라보이는 앞쪽에서 잔뜩 옷을 꺼입어 둥그렇게 보이는 키작은 령감이 나타났다.

나는 뜻밖의 구원자라도 만났듯 무등 반가왔지만 눈범벅이 된 입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령감은 무엇인가 둘러멘채 성애가 허영게 불린 개털모자를 펄쩍거리며 어렵잖게 다가왔다.

《어디서- 오-시-는 손님이-시-우?》

손오가리를 해대며 먼저 령감이 소리쳤다. 나도 그가 하던대로 해가지고 목청껏 웨쳤다. 귀덮개를 든 머리를 끄덕이더니 령감은 다시 손을 입에 가져다댄다.

《...국에서 온다구?...이런 참! 그래... 그래... 내가 바루 벽계역장 최태수오다.》

반기는 기색이 얼핏 떠오르던 령감은 여하튼 가자고 하였다.

눈에 아래도리가 묻혀 더 작아진 그는 앞에서 눈보라를 가르며 걸어나갔다. 그의 잔등에서 흩날릴매달린 산토끼가 언 다리를 뻗뻗이 드리우고 걸음을 따라 흔들거렸다. 산간생활에 습관된 그는 정신도 못차릴 이런 날씨에도 코사냥을 떠난 모양이다.

두 끌어구가 어울린 넓은 공지에 이르러 그는 멈춰서더니 웃쪽앓을 가리켰다.

《노루목에서 길을 헛들었소다... 어찌겠소?》

최태수령감은 무언가 망설이다가 나를 보았다.

《저 앓을 따라 올라가면 되겠는데 어떡한다?》

아무래두 난 달미궁까지 보구 올라가야겠소다.》

그는 미안한 생각에서 자기네 집에 가 폭 쉬라고 하였다. 만사를 꺾히고 여기로 온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는것이 좀 섭섭하기도 했지만 혼연히 헤여졌다. 그의 마지막 사냥을 방해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또 사냥물이 수도의 손자들에게 얼마나 희귀한 선물로 되랴?!...

하여 나는 혼자 올라왔고 그는 내려갔는데 밤이 깊어도 돌아올줄 모른다.

여전히 고르로운 숨소리가 옷목에서 들려올뿐 사위는 조용하다.

내가 잠들지 않으려고 잡지 한권을 뽑아드는데 사이문이 열렸다.

《주무시우? 글썽 안쉬고있을줄 내 알았소다.》

령감보다 허우대가 훨씬 큰 주인집로친의 손에 흰사발이 들려있었다. 갑자기 방안에 감미로운 꿀향기가 풍겼다.

《내 그만 이걸 잊었재이요. 산골이니 뭐 있어 야지 젊은이들건 저기 내놔소다.》

나무뿌리처럼 검스레한 손은 앞으로 다가오고, 각근히 권하는 눈길은 더없이 친근감을 준다.

《작년에 벌이 변변치 못했다오. 곡식은 잘됐지만... 그레 자식은 몇이나 되오다?》

《셋입니다.》

《하긴 나이를 보니...》

나와 문턱을 사이에 두고 앉은 로친은 빈그릇을 든채 방바닥을 물끄러미 굽어본다. 아들생각이 나는 모양이다.

《늘 이렇게 늦어 들어오십니까?》

《우리령감말이오다? 기다리지 마오. 자기 하려는 일을 끝내기전에 다른 사람 생각하는 성미가 아니오다.》

령감의 소리에 로친이 쓰거운 표정부터 짓는바람에 나는 미소를 띠었다.

《거야 좋은 성품이지요. 조금만 무엇이 있어도 하던 일을 그만두는게 야단입니다.》

《말두 마오다. 지내보지 못했으니 그러지.》

로친은 황급스레 손을 내젓는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오?》

해방된 해에 우리 맏이가 처음 공부할적인데 철들기전부터 일한 그레 손이 굳어져서 연필을 잘 쥐지 못했지오다.

그런데 글썽 우리령감이 한다는 소리가

〈이녀석아! 그 연필이 어떤젠줄 아니? 손가락으루 안되면 손바닥으루라도 쥐구 쓰란말이다. 손발이 빠진 녀석같으니... 너한테 내 본때를 보여 줄테다.〉 하구 썩- 나가버리더니만 다음날 저녁부터 글썽령감이 옆드려 글을 그리는게 아니겠수. 저녁마다 그리는게 궁상스러워 보다못해

말렸지오다.》

로친이 어처구니 없어하며 입만 다시는 양이우스워 나는 그레 어떻게 됐느냐고 하였다.

《어떻게 될게 있소. 그 고집에...》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 겨우 국문을 깨치더니만 그 애가 대학을 졸업할적엔 조역을 하면서 중학꼐 나옴데다. 글썽 그러더니만 로망을 해두 분수가 있지. 우리 아애비가 국장이 되는 해에 늙은게 대학시험치는 〈증명서〉를 낸다는게 아니겠소. 내 다 창피해서...》.

지금도 그때 일이 잊혀지지 않는지 로친은 말을 중둥무이했다.

《이젠 그레 졸업하셨는가요?》

《옛말같은 소릴, 석삼년째 들구만 다닌다우, 아들한테 나가 졸업하셨는지-》

로친은 어깨를 울리며 일어섰다.

《여복하면 동네령감들이 하늘소발통이라구 우리령감을 놀려주겠수? 그런줄 아시구 어서 쉬시오다...》

전등불이 꺼졌다. 어둠속에 누워서도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 집 늙은 내외를 두고 생각하게 되었다. 허우대 큰 로친과 체소한령감, 세찰것같은 그 성미에 《옹고집》, 어쩐지 조화가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것 같기도 하다.령감의 흉을 보면서도 로친은 말끝마다 《우리령감》이라는 소리가 어쩐지 자랑비슷하기도 하다. 그래서였던지 초면인 이 집에 허물없는 기분이 들었다.

× ×

최태수령감은 확실히 이상한 늙은이였다. 다음날 아침도 늘 하는 습관대로 신새벽에 출근하여 구내를 한바퀴 돌아본후 《뽕뽕이》 혼합렬차를 떠나보내고나서 모래담이로부터 그날 일과를 시작하였다. 게다가 평양손주들한테 가져가야 할 사냥물은 나와 제대군인들의 아침상에 올려놓게 만들었다.

내가 역으로 나갔을 때 그는 모래가마결에서 허연 맨머리바람으로 장작을 패고있었다. 가뜩이나 작은령감이 덧저고리까지 벗어 더구나 체소해보였다.

그대신 애녀석 하나가 벗어놓은 덧저고리를 들쓰고 모래가마니앞에 앉아 무엇인가 하느라 우물거렸다.

《넌 왜 여기 나와 앉았냐? 저기 내려가 썰매나 타지 않구.》

《형-》

내 말에 덧저고리 한귀통이가 반발하듯이 젖혀지더니만 철도제모아래서 벌써 검댕이 칠한 들창

코가 만만찮게 올라다본다.

《나두 역장인데요 뭐!》

하긴 녀석의 팔에 《역장》이라 쓴 종이완장이 들려져있었다. 이 마을의 사슴목장에 다니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역장이 뭐 모래닭이나 한대?》

《그러문요. 아저씨 모르면서 난 어제두 할아버지와 같이 여기 나왔거든요.》

그 애의 얼굴에 벌써 비웃음이 스쳐지나갔다.

최태수령감은 장작을 패다 말고 소년더러 추운 데 역안에 들어가라 하였다. 싫다는것을 얼려 들어가게 하는 령감의 모습엔 친할아버지와 같은 보살핌이 어려있었다.

나는 소년을 대신해 모래를 닦고 그는 여전히 장작을 팬다. 이젠 허연 장작가치들이 울바자를 넘고 닦아낸 모래도 가마니로 쌓였건만 늙은 령감은 그냥 일손을 놓지 않는다. 나는 그와 다른 말은 하면서도 인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다. 설전으로 평양에 도착하려면 인계를 서둘러야 한다는것쯤은 그도 알겠기때문이다.

고산의 해가 은빛같은 해살을 뿌리며 높이 올라서야 최태수령감은 손수건으로 땀에 젖은 머리칼을 닦았다.

《인계를 인차 험시다. 모래나 뿌려주구말이외다. 어체저녁에 작게나 욕했겠소?》

《별말씀을… 덕분에 후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현대 아드님한테 가시기전까지 뭘 이렇게 일하시느라 그러십니까?》

《허허, 내가 이젠 아들한테 간단말이지요?…》

령감은 남소리기나 한것처럼 되물다가 《마지막 인계나 잘험시다.》 하고 눈웃음을 보내며 모래가마니 끝 차비를 하였다. 말할 때마다 주름살을 모으며 웃음짓는 작은 눈이 이상하게 사람 끄는데가 있다.

석탄 쌓인 구내 저켠에서 탄광로동자 몇이 일차비를 하고있었다. 끌고간 모래를 그들과 같이 레루에 퍼고 화차를 밀어다 세웠다.

콘베아가 석탄을 싣고 돌아가자 령감은 목수건을 동인 껌두룩한 로동자에게 얼굴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산모는 깨끗한가?》

《예-》

《아바이, 그러지 않아두 그 사람이…》

탄무지에서 탄을 내리던 사람이 꺾삽을 세웠다.

《아들이름을 지으려고 아바이 오기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참이었수다.》

일판의 웃음과 함께 기다리도록자의 손이 뒤덜

미로 올라갔다.

《그럼 올것이지.》

령감은 뒤집을 진채 빙긋이 웃다가 고물통을 꺼낸다.

《내 오늘 지어보지… 현대 자네네 골빙장은 어떻게 왜가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탄무지쪽에서 또 한사람이 허리를 편다.

《그 사람이 알게 됩니까? 너편네 시중에… 역장아바이보다 몰라요.》

지금 우리 골빙장이 앉은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그건 왜?》

《모래와 자갈이 걸렸더니요. 령님에서 실어와야 하는데 년말이 코앞에 닥친판에 자동차와 로력이 어디 있습니까?》

동무들속에서 대꾸하던 로동자는 유쾌한 기분으로 손가락을 제코앞에다 대어보였다.

최태수령감은 구내에서 나오며 푸념하듯 혼자 중얼거렸다.

《어떤 때라구. 그게 남아돌아갈가?…》

래년두 그러니 귀한 탄이 또 눈비 맞는단 소리군. 자동차길만 있으면 합수터가 훨씬 가까운데… 로력두 없대지…》

그의 말에 의하면 금년초부터 소규모탄광인 참달피에서 생산능률이 부쩍 올라 탄이 골빙장을 넘쳐난다는것이다.

아까운 탄이 그렇게 되는것이 나로서도 안된 일이었으나 어쩔수 없었다. 현대 최태수령감은 그 생각을 놓지 못해 통 말이 없다.

우리가 역사를 향해 걸어나가는데 표반는 문쪽에서 철도체모를 멋부려 쓴 청년이 보짐을 든 할머니와 싱갱이질을 하고있었다.

《할머니, 안된다는데 왜 그래요?》

청년은 무슨 바쁜 일이 있는듯 표반는 문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멈춰섰다.

《규정대로 묶어가지고 오시라요. 그럼 받겠어요.》

《에그- 늙은게 규정이 뭔지 아오다. 그러지 말구 좀 받아주요.》

할머니가 그냥 불들자 그는 짜증을 내었다.

《노곤을 얻어 다시 묶으라는데두요. 난 이럴 시간이 없어요!》

청년이 끝내 밖으로 나가버리자 할머니는 더 따라갈념을 못하고 엉거주춤 서버렸다.

청년을 대신해 그리로 다가간 령감이 무언가 물으며 보짐을 이모저모로 살펴보았다. 할머니의 하소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는 안주머니에서 작

은 수첩을 꺼내보고 창고쪽으로 사라지더니 외노  
끈을 쥐고 다시 나왔다.

《정말 고맙시다. 덕분에 우리 딸이 입맛 당기  
게 됐소다.》

할머니를 배려주고 되돌아오는 최태수역장의  
량미간에 주름살이 화살처럼 엇갈렸다.

《경준이, 여기 좀 오게.》

령감은 그사이에 어디 갔다 들어오는 청년을  
선자리에서 닦아세웠다.

《어디서 그런 본때로 일하는걸 배웠어? 모르는  
할머니한테 차근차근 가르쳐줄 대신에.》

《그런걸 받으면 또 되는데로 해오니 그러지  
요.》

경준이란 청년은 얼마간 주눅이 든 눈길로 흘  
깃 하면서도 대답만은 통명스럽다.

《설사 그렇다한들 처음 오는 할머니한테 무슨  
죄가 있나?》

바뀌놓구 좀 생각해보라구. 입원한 딸이 더덕  
찌개를 먹구싶다 해서 새벽에 떠 나온 할머니가  
되돌아가서 동무마음이 좋을건 뭐가?》

최태수역장의 음성은 낮았으나 사납게 뻗친 두  
눈초리는 푸들거린다.

《전 그런줄 몰랐습니다.》

경준의 삐딱하게 쏘던 모자는 어느새 바로 앉  
고 두손은 앞에서 거북스레 맞주무르고있다.

《사정두 듣지 않고 늙은일 팔세하다니 그러면  
서두 역에 올라와 일하게 해달라구?》

당장 내려가게! 가서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왔  
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게. 동무가 오늘 한짓은 한  
늙은이에게 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철도사람  
들을 모독한거네!》

《잘못했습니다.》

체소한 령감앞에서 경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를 일별해버린  
령감은 책상에 가 앉아서 공연히 이 서랍 저 서  
랍 뿔다가 그냥 서있는 청년을 흘깃 보며

《왜 아직 거기 서있나?》

하고 통명스레 말을 던졌다.

《육을 더 먹어두 오늘 가지 못하겠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며 대답하였다.

《어째 내 말에 의견이 있어서?》

《아니요...》

《그렇다면 왜 못가? 락석감시구역이 자네 대학  
등교가느라구 그동안두 계속 비였는데...》

《집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락석감시원이 자네가 아니라 집사람인  
가?》

《누가 그렇답니까!》

반발하듯 대꾸하는 청년의 눈에서 빛이 번뜩였

다.

《역장아바이가 래일... 래일 가잖습니까!》

그 순간 령감의 시선이 떨리는듯하였다. 그는  
역을 떠나기 앞서 자신이 지금 청년에게 모진 욕  
을 하며, 청년은 그 욕을 여직껏 들인 정때문에  
달게 받을뿐아니라 래일 있게 될 작별을 아픈 가  
슴에 안고있다는것을 의식한것이였다.

나는 청년이 다시 보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청년은 령감과 그냥 헤어질수 없어 뭘 준비하느  
라고 뛰어다니다가 할머니를 그렇게 했던것이다.  
그러나 령감은 엄한 태도로 랭정히 잘라 말했다.

《자네 사업보다 이 역장이 더 중한가? 응...》

떠나기전까지 이 벽계역의 역장은 나니까 내  
말을 듣게! 진심으로 결함을 뉘우치기전엔 동무  
같은 사람의 배웅도 나는 받고싶지 않아. 알겠  
나?》

나는 어깨가 축 처져서 철길우로 멀어져가는  
청년의 모습에 동정이 갔다.

《너무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어쩌겠소... 사람이 되겠지.》

아직 성이 채 가라앉지 않은채 령감은 자기 자  
리에 앉으며 말하였다.

《내 삼수역에서 조역을 할적에 화물원으루 배  
치되여와 며칠 일해못보구 미국놈들 폭격에 잘못  
된 사람의 아들이로다. 그런데 저너석이 락석감  
시원을 못하겠다면서 역에 와 저 말썽이 아니  
우.》

육을 하면서도 락상일력을 끄당기는 령감의 손  
길이 떨리고있었다.

침묵을 지키며 그는 인제할것들을 하나하나 적  
어내려갔다. 그사이에 나는 사무실안을 둘러본다.  
창밀에 전화기 몇대, 서로 잇대인 사무책상과  
대합실쪽으로 붙인 차표함.

운전과 매표, 역장사업마저 한데 어울려 하게  
된 사무실로는 너무 깨끗하다 할만치 간소하였다.

하긴 하루에 아침 한번, 저녁 한번 《뽕뽕이》  
혼합 열차가 지나가는것이 전부이고 려객도 없다  
싶이한 이 한적한 역에 무엇이 더 필요하랴!

밤낮없이 복잡한데서 조역을 한 나한테는 벽계  
역의 정적과 한가함이 이상한 교적을 주었다.

《그럼 시작하지요?》

최태수령감은 역장문건을 밀어놓고 락상일력의  
첫 목록에다 표식을 하였다.

《여기서 통학하는 애녀석들이 일곱이 있수다.

아침차에 청계로 내려갔다가 저녁차에 올라오  
우다...》

그의 말을 적으려고 펜을 고누던 나는 끝내 고  
개를 들었다. 어제저녁부터 기다려 하게 되는 역

장 인계가 왕청같이 애들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늙은 령감은 그 애들의 문제가 역에서 더없이 중요하거나 한듯 루루히 덧붙인다.

그녀석들을 내보낼적에 숙제당부를 꼭 해야 하며 물어다니는 처녀애를 못살게 굴지 않도록 살펴야 하고, 겨울이나 비오는 여름날같은 때는 그 애들이 타게 된 첫 객차결에 서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승강대가 미끄러워 코를 꺾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두 앞뒤풀이 몹시 나온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애 이름이...》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할일》을 내리쬐던 최태수역장은 안주머니에서 꺼낸 수첩을 보고 또 말을 잇는다.

《재일이라 합니다. 특히 이 애를 잘 봐야 하오다. 무서운 장난꾸러기인데다 몹시 까불딱거리지요.

다음은 저 옷목에 있는 외나무다리오다. 꼭 잊지 말것은 장마철에 그제 뜨게 되면 참달피풀이나 능지마을에서 기차타러 오던 사람들이 되돌아가게 되지오다...》

령감은 세번째로 연필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그어가며 말하는것을 한줄도 적지 못했다. 외나무다리나 애들문제와 같이 모두 역장사업과 관계없는것들이었기때문이었다.

머리털이 다 빠진 작은 령감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인계하는 양이 놀랍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였다. 국에서 듣자니까 한때는 그도 역장으로 소문을 내서 신문에 실린 적까지 있다는데 이제는 두서없는 늙은이로 되어 버린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근무시간에 사냥을 다니고 또 외나무다리같은것을 새 역장한테 인계하라!

나는 이 산간에서 일해오다가 주책없는 로인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는 한 역장의 생을 구슬픈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역장의 사업이 아니라 온 동네 근심을 떠맡기다싶이하고 구내를 돌아보며 설비를 인계한 후에 또 참달피탄광으로 가자 하였다.

나는 그가 그러는 속심이 충분히 짐작되었지만 하자는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엇을 인계받던 실행여부는 새 역장의 의사에 달린것인데 떠나갈 늙은이를 굳이 노엽힐 필요가 없는것이였다. 나는 로반상태도 불겁 그와 같이 웃으면서 철길차에 올 라탔다.

× ×

점심무렵이 되어오자 고산지대 날씨가 유난히 좋았다. 《역장》완장을 두른 소년까지 데리고 탄광으로 가는 최태수령감의 고물통에서도 푸르스름 한 연기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짐작한대로 탄

광에 가봐서 자갈과 모래가 걸렸다면 락석감시원이 가 있는 합수터의것을 철길차로 실어다주는것이 어떠냐는 그의 제의에 내가 선선히 동의했던 것이다.

나의 동의를 기쁘게 받아들인 그는 말수더구가 많아졌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점 없고투명한 대기는 고산의 절경을 그대로 안아왔다.

각아지른듯한 산들을 따라 빼곡이 들어선 분비, 가문비, 누운잣나무들이 흰눈을 들쓰고 천년숲을 이루었고, 아찔한 계곡에서는 하얗게 단장한 상고대가 나무우듬지들에서 은빛맹기들처럼 날리였다. 간혹 바람이 스칠적이면 나무들에서 떨어지는 눈들이 흩어지며 부서져서는 눈가루가 되어 온 산 기슭과 계곡에서 반짝거리는 양이 또한 장관이였다.

《참- 풍경이 좋군요!》

철길차는 싱그러운 대기속으로 달리며 천태만상인 고산의 설경을 기본종게 펼쳐놓았다. 인적이 닿은것 같지 않은 깊은 산중으로 뻗은 철길에도 그 어떤 순결하고 청신한것이 깃든듯하다.

최태수령감은 굵이가 다가오자 조향륜을 돌리며 입귀로 담배연기를 술술 내보낸다.

《겨울철기도 좋지만 저 계곡아래서 물흐르는 소리가 들려올적엔 더 좋수다. 숲에서 가지가지 약초들이 돌아나고 큰 뿔을 인 사슴들이 물먹으러 내려온다우다.

그뿐이겠수, 골마다 하얗게 덮이는 구름나무며 매지와 들쭉은 또 어찌겠소. 그제 한창 무르익을 적엔 돌이 먹다 하나가 죽어두 모르지요다...

이녀석 그러다 떨어질라?》

령감은 손을 뻗쳐 유리창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내다보는 애녀석의 목덜미를 쥐여 옆자리에 앉혔다.

황홀하던 고산 설경은 그의 설명으로 신비로움이 덧붙여졌다.

《이젠 그녀석이 달미궁에 내려갔겠군.》

늙은이의 생각은 어느덧 숲에서 먼곳으로 가는 듯하다. 철길차를 타고 설경을 얘기하며 가려니 옥을 먹고 내려간 락석감시원의 일이 가슴에 걸리는 모양이다. 그가 달미궁이라 하는것은 합수터를 이르는 말이였다.

《건 왜 달미궁이라 하는가요?》

나는 호기심을 안고 신비한 고산의 풍경에서 눈을 뗀다. 그는 달려오는 철길에 시선을 보낸채 고볼통을 쥜다.

《여기에 전설이 많다오다. 저 효자령에두 있구 설피암에두 있지오다. 그런데 그 합수터 얘기

는...》

철길차는 가락맞게 덜거덕거리고, 그는 담배연기를 피워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고산의 설경이 흐르는 창을 등지고 전설의 진기한 세계로 들어갔다.

벽계에서 이십리 내려가면 두 골짜기 물이 합치는데 옛날에는 그 합수터에 깊은 소가 있었다 한다. 그런데 그 소에 검은룡이 내려온후부터 이 고장의 사람들은 물이 없어 해마다 고생을 하게 되었었다. 사나운 룡이 골에서 나오는 물들을 모조리 빨아먹기때문이었다.

그래서 의로운 달동이란 총각이 하루는 사랑하는 수미에게 가서 마을사람들을 위해 룡과 싸울 결심을 말했다. 수미는 그 말에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총각의 앞을 막아서지는 않았다.

달동은 그날부터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삼년석달을 기한으로 무술을 닦고 수미는 일년을 하루같이 정성들여 지은 음식과 새벽이슬로 모은 물을 정히 담아가지고 그한테로 갔다.

어느덧 날이 지나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기약된 날이 오게 되자 달동이는 밤새워 수미가 지은 배운을 입고 칼을 차고 소로 갔다. 그런데 아가리로 불을 토하는 검은 룡은 싸움에서 달동이의 칼에 맞고는 소에 들어갔다가 씻은듯이 나아가지고 다시 올라왔다.

그래 달동이는 피를 내어 쫓기는척하면서 산으로 올라갔으나 흉물스러운 룡은 얼마간 따라오다가 소가 멀어지면 도로 내려가 벼랑가에서 숨을 돌리며 그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싸움을 시작한지 삼일째 되는 날, 다시 벼랑가에 나선 달동은 칼에 맞고 소로 내려가는 룡을 따라 들어가며 그놈의 검은 잔등에다 칼을 박았다.

룡과 달동이가 함께 들어간 소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고 연기가 터져오르더니 그것이 가셔지자 푸른 물결우에 룡의 피가 퍼졌다.

이날도 산정에서 가슴을 조이며 싸움을 지켜보던 수미는 달려내려와 눈물을 머금고 달동이를 애타게 부르며 사랑하는 총각을 따라 소에 뛰어 들었다...

《...그후부터 골짜기마다 다시 물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다오다. 사람들은 그해 가을에 풍년든 낱알로 소에다 상을 차려놓고 큰 제사를 지냈지요. 그런후에...》

최태수령감은 전설을 맺기전에 고물통을 깊숙이 빨아들었다.

《그런후에 그 소에다 두 처녀총각의 이름 한자씩 따고 그뒤에 《궁》자를 달아 《달미궁》이라 불렀지요. 그러니 《궁》이란건 아마 산간백성

들을 위해 꽃나이를 바친 달동이와 수미가 소에 들어가서도 룡궁에서처럼 잘살라는 의미일거유다.

허허... 그저 한갓 전설이지요. 허지만 여기서 살게 되면 누구나 알게 되지요. 이젠 다 왔수다. 저기 보이는 저 골짜기가 참달피골이오다.》

철길차는 멎고 우리는 묵묵히 내렸다. 아직 철없는 소년만 들판이 나지자 좋아라 달려갔다.

그가 말한대로 이야기는 한갓 전설임에 틀림없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입과 입으로 전해진 그 전설에는 인정이 후더운 산간사람들의 마음과 지향이 들어있는것이였다. 바로 마을사람들을 위해 생명도 바치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 산간사람들에게 있기에 달미궁과 같은 전설이 생겨났고 또 이날까지 전해지는것이 아닌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데.》

최태수령감은 벌써 쇠스래나무가 있는데까지 앞서간녀석을 살펴보며 뒤말을 잇는다.

《왜놈들이 들어와 수림을 다 찍어낸후부터 거기서 돌이 자꾸 굴러내리지우다...》

골빙장자갈을 나르게 되면 철길차를 타구 한번 가보시오. 내 어제 가보니 지금은 별일 없습네다.》

령감의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눈보라속에서 만났것이 어젠데 그럼 그때 락석감시구역으로 가는길이었단말인가? 그러고보니 끌어구에서 헤어질적에 분명 달미궁으로 간다고 한것 같았다. 하지만 락석감시원도 아닌 늙은 역장이 눈보라속으로 그렇게 갔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잔등에서 흔들거리던 산토끼가 지금도 선하였다.

그는 나의 의혹을 대수롭지 않게 풀어주었다.

《물론 역장이야 역이나 잘 보문 되지오다. 허지만 우리 구간에서 제일 위험한데가 거긴데 그걸 안보구 역을 어떻게 인제하우?》

그는 그렇게 하고도 올라오던길에 혼자서 눈에 묻힌 철길들을 쳐내느라고 더 늦었다 하였다. 산토끼는 코에라도 걸렸겠는지 철길가에 와 얼어죽은것을 주운 모양이였다. 그런걸 나는 밤길도록 기다리며 탓하였고 또 분별없는 령감이라고 생각했던것이였다.

《왜 그러면 그렇다는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잖았습니까?》

마치 나는 모든 잘못이 그의 탓이거나 한것처럼 치원하였다. 그랬더니 령감은 게면쩍어하며 이렇게 대꾸하는것이였다.

《제 준비를 채 하지 못해서 가는길이니 그랬지요. 오다.》

자기편에서 도리어 미안스러워하는 그 표정은

지청구한 나로 하여금 더 가책을 받게 하였다.

묵묵히 걷던 령감은 또 자기 생각을 혼자소리  
로 한다.

《그 녀석이 나한테 옥두 많이 먹었지… 하긴  
생각해보면 젊은게 산과 철길뿐인 외진데서 하루  
도 아닌 일년열두달을 혼자 있는다는게 쉬운 일  
이우? 아까두 내 못되서 된옥은 했소다만 그 사  
람이 괜찮은데두 있수다. 제 애비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철길대 중대장도 바꿔줄 사람이 나지  
면 역에 올려보내겠다 했으니 내가 간 다음에두  
그녀석을 잘 도와주우. 앞으론 꽤 일할 녀석이지  
다.》

령감은 나한테 경준을 부탁하고도 그의 일이  
안심되지 않는듯 이윽도록 말이 없었다. 다른 사  
람 같으면 며칠 같이 일한 사람의 아들때문에 그  
처럼 속을 쓰지 않으려면만 령감은 그렇게 되지  
않는 모양이다.

사람이 되라고 옥해놓고도 또 가슴이 아파 못  
있어하는 이 소박한 령감을 내 어떻게 대하였던  
가?

나는 죄스러움에 머리를 숙이고 걸었다. 고즈  
낙한 정적을 안은 수림과 고산에 깃든 전설, 뿔  
을 쳐들고 계곡으로 내려오는 사슴들과 눈보라속  
을 헤치며 달미궁으로 내려간 늙은 역장, 그 모  
든것들이 어딘가 서로 잇닿아져서 나한테 산간의  
소박하고 깊은 그 무엇을 드러내는듯하였다.

× ×

오후에 이사준비를 하려는지 최태수령감이 시  
간을 좀 주어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달미  
궁으로 한번 내려가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늙은  
령감이 주요 구간이라고 것처럼 갔다왔는데 젊  
은 내가 하는일없이 시간을 보내며 가보지 않는  
것이 도리어 미안스러웠다.

특히 령감을 대신해 옥을 먹고 헤어지는 경준  
의 마음을 풀어주는것이 내일처럼 여겨졌다. 그  
러면 작별인사도 못하고 갈라질 두사람의 마음이  
다 편해질것이다.

점사점사해서 나는 점심식사후 시간도 있기에  
달미궁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곳에 채 도착하지  
못해 나의 예상은 또 뒤집히고말았다.

철다리가 멀리 보이는 산밑에 와 멈춰서서 한  
숨 돌리려는데 거뭇거뭇하게 돌벼랑들이 드러난  
건너편 산에서 녀자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  
다.

심심산골의 무인지경에서 정적을 깨치며 들리  
는 그 웃음소리처럼 유쾌하고 명랑한 웃음을 나  
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다.

녀자가 웃는 건너편 산기슭에서 철도모자가 눈

가루를 튀기며 대굴대굴 굴러내려왔다.

《보라요. 보라요. 제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산중턱을 더 지나 있는 높은 벼랑우에서 날선  
한 몸에 바지를 가뜰히 입고 푸른 머리수건을 동  
인 녀자가 못견디겠다는듯이 손벽을 치다가 허리  
를 굽히고 내려다보며 소리친다. 그리고보니 사  
람 하나가 돌벼랑중턱에서 우물거리고있었다.

맨머리바람인 그는 잡관목이 돋은 벼랑중턱에  
서 놀려주는 녀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위협하듯  
흔들었다.

드디어 벼랑에서 돌이 굴러내려온다. 점점 높  
이 뛰어오르며 기슭으로 내리굴던 돌이 철길을  
날아 넘어 눈속에 박히게 되니 녀자가 먼저 환성  
을 올렸다.

《금방 안된다더니 제가 먼저 좋아해?》

벼랑우에서 소나무에 감은 안전바를 쥐고 떠드  
는 녀자를 향해 남자가 씨까스르는 소리였다.

그들이 바로 내가 령감 대신 속을 풀어주려고  
내려온 경준이네 부부였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보며 리해가 잘되지 않았다. 서로 쥘고받고하며  
유쾌히 작업하는 양이 역장의 로친에게서 들은  
말과 내가 오전에 직접 본 경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것 이었다.

나는 목적하고 내려온 말은 꺼내지도 못한채  
경준이와 같이 락석감시구역을 돌다가 이렇게 물  
었다.

《경준동문 처음부터 오늘같은 기분으로 일했  
소?》

《나말입니까?》

마치 경준은 남의소리이거나 한듯이 뻘뻘 쳐다  
보다가 씩- 웃으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깨에  
맨 안전바가 눈범벅이 된채 흔들거린다.

《그렇게 뭉니까? 대판싸움부터 했는데요… 저  
산들을 좀 보십시오.》

그는 멈춰서며 주위를 가리켰다.

눈덮인 산들이 어디나 박혀있어 마치도 미궁속  
에 들어온듯하다. 산과 눈, 수림뿐인데 천년 묵은  
정적까지 무인지경에 깃들었다.

《이런 적막한데서 어떻게 산단말입니까? 인간  
이 그림구 답답해서 우선 죽을 지경이란말입니다.  
그래 책상을 치면서 령감하구 싸웠지요.》

《그건 왜?》

《철길대 중대장한테 제기하는 자리에서 날 도  
와 주어야 할 령감이 도리어 꾸짖는단말입니다.》

경준은 그때 일이 떠오르는듯 쓴 표정을 지었  
다.

《그래서?》

《말두 마십시오. 그런후에 내가 생땀을 뻘습니  
다.》

경준은 멋부려 쓴 모자채양을 들어올리며 앞을 바라보았다. 멀리에 철다리가 다시 나타났다. 벽계에서 내려온 골이 다른 골과 어울려 그곳은 여기보다 한결 흰히 트이였다.

그는 늙은 역장한테서 땀을 빼던 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대들이판으로 싸우고 내려온 이튿날, 경준이가 우정 나누워있는데 늙은 역장이 역원과 같이 내려와 말 한마디 없이 불이 내는 부엌아궁과 굴뚝을 고쳐놓고 올라가더라는것이다. 그러더니 다음날에는 혼자서 도끼를 차고 내려와 울타리를 고치기 시작했었다.

그러겠으면 그러고 말겠으면 말라는 식으로 경준이가 본체만체하는데 그 고집스러운 령감은 계속 오르내리며 집안팎을 다 손질해놓더니 이번에는 락석감시구역으로 나가는것이였다. 그렇게 되니 아무리 나가넘어지려던 경준이로서도 따라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날이 감에 따라 역을 보면서 돌아 40리 길을 오르내리는 령감의 모양이 점점 불품없게 되였었다. 얼마간 더 지나면 가뜩이나 작은 령감이 정말 주먹만하게 될것 같아 하루저녁은 경준이가 《이젠 내려오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정 빌었더니 령감은 대답도 안했었다.

그런 식으로 령감이 두달을 넘게 오르내렸다. 아무리 빌어도 대답조차 안하면서...

그러니 경준이로서는 급하다 못해 령감을 보기만 해도 땀이 막 나더라는것이였다. 그러던 하루는 기차가 올라올 시간에 소작같은 바위가 철길에 가로누운것을 발견하게 되였었다.

돌이 필사적으로 돌을 굴러내고 무사히 렬차를 통과시킨후, 돌에 긁혀 손에 피가 나는 경준에게 손수건을 주며 령감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경준이. 예로부터 우리 조선사람들은 남을 위해 피를 흘리면 흘렸지 제가 잘살겠다고 다른 나라를 한번 침략한적이 없어! 그렇게 우리 민족은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야!

자네 아버지두 전쟁관에 나라를 위해 역을 지키다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조선사람들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수령님 같은분을 모시게 되자 그 아름다움이 드디어 빛을 내여 달미궁전설보다 더 훌륭한 사실들이 도처에서 생겨나는거야.

한데 자네는 어느 나라 사람이이고 어떤 세상에서 산다는것, 누구의 아들이라는걸 잘 모르는것 같아. 제혼자 좋게 살 생각을 하니...

하지만 오늘은 경준이두 남을 위해 피를 흘려봤으니 나는 가겠네-》

하고 령감은 떠나갔다는것이였다.

철다리에 들어서면서 이야기를 끊으며 경준은 말머리를 나한테로 돌렸다.

《역장아바이가 말하던곳이 바로 여집니다. ...저 아래가 달미궁이구요.》

나는 대답 없이 가리키는곳을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온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던 등성이가 끊기며 병풍처럼 생긴 벼랑아래에 두툼의 물이 합치여 생긴 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얼어붙은데다가 눈까지 덮여 허연 공지처럼 보였다. 높은 벼랑 위에서 소의 풍치를 돌구며 철따라 물드는 단풍을 말해주듯 마른 잎이 달린 잡관목들이 설렁거렸다.

경준은 고산의 전설을 안은채 묵묵한 달미궁을 이윽도록 내려다보다가 담배를 붙여문다. 나 역시 란간에 기대서서 깊어지는 생각에 잠겨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갑시다.》

경준은 란간에 담배불을 비벼끄며 허리를 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 기분이 전혀 달라진 그의 결에서 나는 걷는다.

《그런후에도 역장아바이는 눈보라가 사납거나 비가 몹시 올 때면 우리 량주가 근심스러워 내려오곤하였습니다. 역에 영화같은게 와도 데리러 오고... 한번은 우리 집 사람과 나를 위해 학생애들의 기동선동대가 다 찾아온 일두 있구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여기가 좋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락석감시원두 잘하려고 하니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례하면 풍수해에 의한 암석의 붕괴속도같은것말입니다. 그래 지난 9월부터 대학통신을 다니지요. 결국 아바이 덕에 제가 대학공부까지 하게 된셈입니다.

하지만 지금두 저는 역장아바이가 말한 뜻을 다는 모릅니다. 그저 여직까지 일해보면서 내가 느끼게 된것은 아무리 멀고 궁벽한 벽지에 와있다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잇닿아있으며 또 거기에 할일이 많다는것입니다...》

경준은 철길을 지나 산굽이를 돌아서서 남향반이에 아담하게 앉은 집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바로 그런 아바이여서 헤어지기전에 한번 오시게 하려구 오늘 뛰어다니다가 마지막 욕을 또 먹었습니다.

다른건 다 잘 알아주면서도 지난 일을 술 한잔에 담아 빌고싶은 이 심정은 왜 그리도 몰라주는지, 내가 애를 먹일 때는 여기로 그렇게 자주 내려오시더니만...》

령감에 대한 정에 경준은 목이 잠겨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와 헤어져 혼자 걸어가는 나의 심정은 무어



라 이름할수가 없었다.

어찌하여 이 고산지대의 사람들은 이처럼 아름답고 훌륭할수 있는가!

흰눈의 반짝임과 신선한 대기, 해빛의 감각도 나한테는 다 류다른것만 같았다.

풀길 없는 의문이 무겁게 실린 머리를 숙이고 철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음을 옮기는데 바람결에 재깻거리는 애들의 말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

다.  
먼곳에서 두 아이가 철길의 자갈을 세며 무언가 하고있었다. 하나는 꼬마 《역장》이 분명한데 다른애는 알수 없다.

그들곁에 이사집을 싸는줄 안 역장령감이 곡뎡이를 짊고 서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있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알수 없었다. 또 왜 그런지 그리로 다가갈수도 없었다.

자갈을 들고 무어라 하는 소년들과 그들에게 철길을 받드는 자갈을 두고 가르치는 늙은 역장의 모습이 한가슴 가득찰뿐이었다.

소년들과 늙은 역장이 있는곳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해빛이 부서졌다. 아니다! 아니다! 내 심장은 이렇게 뻘뻘했다. 결코 고산지대의 숨얼한 자연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것이 아니라

고.  
늙은 역장앞에 자갈을 들고 선 두 소년이 나에게는 먼 후일의 이 고산속에서 철길을 지킬 새 역장과 새 락석감시원으로 보였다.

× ×

밤새도록 사람들로 늙은 역장네 집은 조용하지 않았다. 희웁스름히 갈라지는 하늘에서 잔별들이 꿈벅일무렵, 새벽대기속으로 나 혼자 걷는다.

산간사람들의 청을 다 받아야 하던 간밤은 최태수령감에게서 더없이 행복한 밤이면서도 그만큼 외로운 밤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런 밤이 아무에게나 차례지랴?

정으로 이야기가 넘치고 밤이 깊도록 조언을 받지 못해 안달아하는 얼굴들, 먼 끝짜기에서 찾아오고 제집으로 가자고 잡아끄는 그 손길들이 외진 벽지에서 역장으로 한생을 일해온 그에게 주는 상이고 표창인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문 얼마간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그를 대신해 역으로 간다.

역에 가서는 그가 하던대로 구내를 돌아보고 《뻑뻑이》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탄광으로 가던 때부터 나는 생각이 깊어졌고 모든 인식이 이제는 뒤집혀졌다. 찬바람이 옷자락을 흔드는 역구내에 나선 지금도 지난밤에 찾아온 사람들과 아들의 이름을 지어달라던 청년,

할머니와 젊은 역원이며 지어 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령감과 관계된 수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필기장에 한줄도 적지 못한 외나무다리과 같은 인계목록들이 새 의미를 가지고 기억된다. 결코 그 모든것들을 웃음을 가지고 대할수 없었다.

구내의 징적을 깨치며 역원들이 나오고 뒤이어 귀설은 북관말투와 함께 무엇을 이고 든 녀인들이 나타났다.

《에-그 날씨가 차서 다 식겠습메-》

《그러기다 내 단단히 덮여가지구 나오라 했재이요.》

《정말 이 바람이 폐롭재이요. 금돌이 엄마- 보내기 남은게 없소?》

《아아- 정말 그건 저쪽에 가라는데 어째 그러오?》

발짝과 더운물을 마련해가지고 나온 역원네 아주머니들은 혼합렬차가 구내에 들어서자 더욱 끓었다. 거기다가 차칸에서 나온 려객들의 높은 청마저 합쳐져서 벽계역이 발칵 뒤집히는듯하였다.

부르고 찾고, 이리 뛰고 저리 달는 북관사람들은 혼자서 능히 열사람 뛴은 떠드는것 같았다. 전에는 그러한 양이 나에게서는 싸움싸우는것 같았으나 지금은 그 높은 청과 세찬 활동속에 산간에서 사는 그들의 강렬한 열정과 뜨거운 인정이 있음을 느꼈다.

나는 객차의 승강대곁에 서서 승벽내기로 달려오는 조무래기들을 거들어주었다.

《우리 역장할아버지가 정말 가나요?》

토끼털모자를 썼는데도 뒤머리가 삐어진것이 알리는 녀석이 승강대에 올라서다 말고 물어본다.

《응?- 안간다.》

그들을 주고싶지 않아하는 내 대답에 녀석은 사기가 나서 승강대를 단번에 두칸이나 올려뛰었다.

산촌을 울리는 기적소리와 함께 혼합렬차는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벽계역에서 첫 《뻑뻑이》차를 나는 이렇게 맞고 떠나보냈다.

렬차가 멀어지자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최태수령감이였다.

《이젠 벽계역장이 다됐수다.》

멀리서 시종하는 나를 지켜보았는지 소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젠 마음놓고 떠나게 됐수다.》하는 으미로 들렸다. 그러나 나는 자신있게 대답할수 없었다.

역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우리 두사람은 마주 앉았다. 집에서 길떠날 차비를 하고 나온 그의

정북령장에 이미 별들이 없었다. 흰 머리칼이 얼마간 나오게 제모만 단정히 썼을뿐이다.

최태수령감은 허리를 굽혀 빈 역장책상에서 문건들을 꺼내여 내앞에 놓았다. 하고는 손을 깎지깎지 말없이 나를 지켜보는것이였다. 나는 무언속에서 오래도록 바라보는 그 눈길에 담긴 수많은부락을 보았다. 그와 헤어지기 싫었다. 그를 늦게 안것이 후회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던것이 아쉬하였다.

《머칠 더 쉬고 가십시오.》

《제 살곳에 가 설을 쇠야지. 자네두 오잖나?》

최태수역장은 시무룩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은 왜 그냥 역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들며 진심으로 물었다. 나자신보다 그가 역장으로 있으면 이 벽계역이 더 나을것 같아서였다.

그 말에 내 심정을 들여다보듯 눈을 찡뜨리던령감은 단호히 손을 내리그었다.

《아니오다!》

결연히 잘라 말한 그는 주머니에서 고물통을 꺼냈다. 그러나 불을 붙이지 않은채 그냥 쥐고서 말했다.

《물론 내가 온지 20년동안 벽계역에서 사고란건 없었수다. 나두 그냥 있구실소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있을수 있시오다. 내 기억력이 점점 없어진단말이우다. 새 역장두 수첩을 꺼내보는걸 봤겠지비?...

그런데 이 철도가 글썄 어떤 철도우다?》

령감은 강경한 태도로 눈섭을 모았다. 그 모습은 결코 잔근심을 가득 안고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늙은이가 아니였다. 그는 잃어지는 기억력을 보충하려고 수첩에 적어가며 자신이 할수 있는것 역을 지켜오다가 또 역을 위해 그만두는 역장인것이다.

그의 모습이 한없이 높이 보였다. 령감은 말년의 편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역을 위해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가는것이였다.

문이 벌럭 열리더니 경준이가 뛰어들어왔다.

《안떠나셨군요? ... 그런걸 난 또...》

락석감시원은 너무나 반가와 벌글거리며 움켜쥔 모자로 연방 뺨을 흠쳤다. 최태수령감이 일어나고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역장아바이, 그럼 래일 떠나시겠습니까?》

경준은 역장이라는 말에 우정 힘을 주는듯하였다. 직무가 변해도 자기한테는 언제나 그가 역장이라는듯이... 령감도 그 심정을 감촉했던지 빙긋이 웃으며 경준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이제 가지...》

령감은 정다웁게 경준을 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지난기간 내 욕두 많이 했지 친아버지라면 그렇게만 하지 않았을거야... 철길대와두 토론했으니 이젠 올라오라우 대학공부두 하는 사람이.》

《그럼 거긴 누가 내려간답니까?》

령감의 태도에서 경준은 무언가 특감으로 느꼈던지 그를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다.

《내려갈 사람이 있겠지... 왜 나는 안될것 같은가?》

《그렇지만...》

《그렇지마는 또 뭔가? 후임이 올 때까지만 하겠네... 경준인 역에 올라와 더 큰 일을 해야 돼, 아버지 뒤를 이어말이야.》

령감은 자기 걱정을 하지 말라는듯이 눈웃음을 지으며 경준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달미궁으로영 내려가면서도 그가 경준을 위해 우정 그렇게 말하는것으로 하여 경준을 더구나 눈물이 글썽하게 하였다.

나는 너무나 뜻밖인 일에 말을 못하고 그들 두 사람만 지켜보게 되였다.

령감은 그를 부탁한다는 뜻으로 나를 바라보고는 품속에서 모서리가 다 닳은 수첩은 꺼내었다. 그러는데 새 옷차림한 로친이 분주스레 들어오며 떠들었다.

《아니 령감- 프락포르가 아까부터 통탕거리는데 아직 여기 있으면 어쩔넹가? 경준이두 빨리 같이 가자구. 그래야 올라오는 차에 이사짐을 실지.》

경준은 그의 말에 대꾸도 안하고 령감앞으로 다가섰다. 령감은 못본체하며 그냥 수첩갈피를 들추다가 두사람앞에 내밀었다.

《오늘새벽에야 지었어. 어떤가?》

누르스름하게 바랜 수첩장우에 또박또박 쓴 글씨로 《오 한길》이란 이름 석자가 씌여있었다. 역에 필요한것이면 무엇이냐 잊지 않으려고 적어넣군하던 수첩에 이 고산에서 얼마전에 태어난 한생명의 이름이 적한것이다. 세상에 나자마자 그 생명에게 마련되여있는 행복의 길을 가져오시였으며 또 밝혀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당을 따라오직 충성의 한길로만 가라는 의미에서 령감은 자기의 수첩에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어서 쓴것이였다. 령감은 흐뭇한 기분으로 그것을 쥐고 작은 체구를 흔들며 밖으로 나갔다.

화차에 탄을 올리는 로동자들을 향해 서둘러가는 그의 모습이 나를 창가에서 물러서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 내가 무슨 사람입니까? 그건 절대로

안돼요.》

《그만하라구. 우리 령감이 거기 가는게 어디 경준이 탓이요? 철도를 위해 뭐나 더 하겠다고 그러는건데...암만 그래두 우리 령감 고집은 못꺼여.》

로친한테 사정하던 경준은 아무래도 안되겠는지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그를 불러 세울수도 없고 그의 편을 들어줄수도 없었다. 오직 철길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수많은 사람들을 키워놓고 또 그 길을 가는 그를 막을 힘도 없었거니와 그러는것이 결코 령감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것이다.

내가 나갔을적에 구내에 역원들과 온 마을사람들이 다 나와있었다. 이사짐을 실은 트럭포르에 로친만 타고 가고 령감은 내려가는길에 철길을 보겠다 했었다.

배웅나온 사람들과 일일이 손을 쥐고난 최태수 역장은 철길가에 서있는 소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준후 역안에서 보던 그런 눈길로 나를 마주보았다. 마지막으로 역을 부탁하는 그앞에서 나는 눈을 들었다.

드디어 그는 돌아서더니 역구내를 지나 철길을 따라갔다.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는 내결에 경준이와 꼬마 《역장》인 소년이 서있다.

나에게는 벽촌에서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오고 또 모자라 누구도 오지 않는 외진곳으로 또 일을

찾아가는 그의 모습이 한없이 커보였다. 그리고 구내가 여느때없이 사람들로 차있건만 그가 가는것으로 텅 빈것만 같았다.

모두다 멀어져가는 늙은 역장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어찌 그러지 않으랴? 그는 떠나는 순간에조차 자기의 성실성으로 사람들의 심장속에 더없이 귀중한것을 심어준것이며 또 그것으로 영원한 기억속에 남는것이였다.

철길우에서 락석감시원이 되여 달미궁을 향해 멀어져가는 역장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의 조약돌이 되여 철길을 받들려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심장속에서 점점 커졌다.

설사 한 인간의 생이 짧을수도 있고 평범할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길다 하며 요란하다 해서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는것이 아니다. 그가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얼마나 바쳤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그를 생각하는것이다.

평범한 산간의 역장이든, 무인지경의 락석감시원이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를 못잊어한다면 그런 생은 빛나고 아름다운 생이며 영원한 생인것이다. 값진 생은 사람들의 추억속에 있다.

내결에는 여전히 종이 《완장》을 두르고 마치 어른들처럼 심각해 선 소년이 있다.

언제인가 나도 그 애에게 이 역을 인계할 날이 있을것이다. 그날에 나는 달미궁의 전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것 같다...

## 소박한 진실은...

김홍권

말 못하는 땅에  
말 못하는 씨앗을 묻고  
약속 없는 약속을 기다리며  
그 몇 가을이었던가  
추녀를 봐도 비 그을 생각 않고  
그늘을 만나도 쉼 생각은 더욱 않고  
구석진 땅에서  
남모르게 땀방울을 흘려온 그

어버이수령님 기쁨이 될  
새 씨앗을 위해  
고스란히 바쳐온 한해 또 한해  
세월은 흘러 몇해 또 몇해...

농장의 한구석  
차레진 땅만을 가지고  
그 귀중한 씨앗을 가꿔온 소박함이  
그리고 자신을 바쳐온 숭고함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이름

숨은 영웅

어버이수령님께서 먼저 찾으시여  
한알의 씨앗에서  
수천만톤의 무게를 헤아리시며  
나라의 넓은 땅을 내어주실 때  
아 한없는 그 믿음앞에  
어깨를 들먹이던 그  
아직은 다하지 못한 일만 같아  
송구하게만 자신을 생각했을뿐

한없는 영광을 안고  
당중앙의 문을 나서  
불빛 흐르는 유보도를 지나  
그가 다시 찾아간곳도  
다름아닌 그 땅

어버이수령님 만면에  
환히 비끼신

기쁨을 우러르며  
한생의 보람을 찾은 그

그 마음속에서  
땅도 하늘도  
세월도 만들지 못하던  
새로운 과학의 문을 열었거니

씨앗은 작아도  
온 나라 온 강산에 뿌리내리며  
그 한가슴속에서 익은  
충성의 열매-  
열렬하고 소박한 그 진실은  
수천만의 가슴을 적시었더라

## 나는 강선사람

박원식

꽃피는 봄날  
내 잠시 집을 떠나  
강선을 떠나  
먼 려행길에 오른 때에도

바다바람 싱그러운 백사장  
즐거운 휴양의 날에도  
못내 안겨오더라  
하늘가득 피어나는  
용해장의 노을빛

그러면  
설레이는 백양나무아지우에  
꼭게 피는  
정든 강철지구의 밤하늘 타고  
뜨겁게 올려오는 수령님 말씀  
-여기가 천리마의 고향입니다!

아, 천리마의 고향  
수령님 품속에서 태어난  
력사의 땅에서  
내 살며 일하는 기쁨  
언제 어디서나 끝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강선에서 왔다고  
가는곳마다에서  
천리마의 고향 사람이라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반겨주는  
정다운 손길이어

강선아  
고향땅아

저도 몰래 불러보면  
가슴속 차오르는 진정은  
뜨겁게도 끓어솟는 쇠물인가

끝없이 속살대며 소리치며  
달려오는 동해의 푸르른 물결도  
이내 마음속엔  
쇠물의 거센 파도인듯

아득한 풍년벌 점점이  
가을걷이 신난 트랙터를 바라봐도  
그 무쇠바퀴에 스며배인  
용해공 내 로동의 기쁨을  
가슴뿌듯이 느껴안노라

그때문에 그때문에  
어제날의 천리마에  
속도전의 박차를 가하며  
더 세찬 쇠물을 끓인다  
더 힘차게 압연기를 돌려가며  
뜨겁게 고동치는 강선의 숨결을 듣는다

아, 시련의 날에도 영광의 나날에도  
수령님 받드는 티없는 한마음  
쇠물을 떠난 삶도 희망도  
따로 모른 강선사람

나에겐  
강철이면 천리마여라  
그것은 오로지 수령님께 바쳐가는  
강선의 자각이며 신념  
내 언제나 그 어디서나  
천리마의 고향 사람으로 영원토록 살리라

## 대를 잇자 외 1 편

강립석

좋아서 그런것이 아니었다  
열두살 어린 나의 손에  
너의 할아버지가 도끼를 쥐어준것은

원해서 그런것이 아니었다  
삼길듯 몰아치는 눈보라를 비껴서며  
내가 아버지의 뒤를 따른것은

그것은 어제날 모진 세월의 이야기  
그러나 아들이 오늘은 이 좋은 세월에  
로동의 첫걸음 들여놓는 나의 아들이

너는 지금 기쁨을 안고  
산판에 들어서고  
나는 지금 행복을 안고  
너의 배낭끈을 죄여준다

어서 오르자  
림철의 통근차가 기적을 올린다

탁아소 뜰안에서 노래처럼 들으며  
걸음마를 배우던 그 기적소리가  
산으로, 산으로  
너의 청춘을 부른다

찾아오신 수령님 모시고 가며  
끝없는 기쁨을 주던 그 기적소리가

산으로, 산으로  
너의 한생을 부른다

그렇다 우리의 저 산판은  
흘리는 한방울 한방울의 구슬땀이  
그대로 너의 행복이 되고  
밝고밝은 너의 미래가 되는곳

배여내는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들이  
그대로 번영하는 조국의 기둥이 되고  
전진하는 시대의 동발이 되는곳

예보다 좋은곳 더는 몰라서  
나는 너를 이 길에 세우고  
예보다 좋은곳 더는 몰라서  
너는 스스로 기계톱을 끌렀거니

언제인가 거기서는 너를 위해  
나무를 베는 당원들이 손을 들어주리라  
언제인가 거기서는 너에게  
어머니조국이 감사를 주리라

눈물로 대를 잇던 우리의 산판을  
행복으로 대를 잇게 해주신 그이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을 안고  
아들아, 대를 이어 뿌리를 내리자  
무성하는 저 숲처럼!

## 여보게들 좋은 자리 둘만 내주세요

여보게들 좋은 자리 둘만 내주세요  
제대군인 별목공 신부를 데려오네  
림철차 좋은 자리 둘만 내주세요  
나란히 앉아가며 첫인상 좋게스리

이 아니 경사인가  
이 아니 자랑인가  
병사배당 메고서 혼자 왔던 젊음이  
일생을 함께 갈 길동무 데려오네

사람도 초면에 더구나 첫날  
수집어서 얼굴만 붉히는 신부  
듣자하니 별방태생, 거기도 좋다는데  
어이하여 령을 넘어 이 산판 골랐는지

묻기는 차간에서 무얼 묻겠나  
안해들이 산판에 떨쳐나서  
남편들과 함께 일손을 잡을 때면 알지 않으리  
산을 찾아오는 생각, 찾아오는 마음

우리 함께 이 산판에 뿌리 내리고  
다정한 이웃 되어 허물없을 때  
그때에사 물어보세, 림철차의 첫인상  
남모르게 언약한 둘이의 푸른 꿈!

...여보게들 오늘은  
차창가의 좋은 자리 돌을 내주고  
래일은 깊은 산판 우리의 별목장에  
나란히 충성할 두자리 내주세요!

## 나의 로동의 기쁨

김시권

동트는 하늘가  
장미빛 노을 창문에 물들 때  
당여, 나는 붓을 쥐고  
마음 서두르며  
일을 시작하는 기쁨에 설레이노라

별들이 강물우에 미소짓는  
서늘한 저녁이면  
하루일 끝낸 행복한 마음  
수양버들 늘어진 유보도기슭으로  
래일을 노래부르며 거닐기 즐거워라

종다리 우짖는 봄날이면  
먼 들판으로 내 마음의 나래  
향기로운 바람 타고 달리고  
먼 개밭지로 떠나는 젊은이들과 함께  
렬차에 마음 싣고 달리노라

오, 내 청춘시절  
원썩를 물리친 전호에서  
푸른 달빛아래 시첩을 펼치며  
오늘의 조국을 그리던 이 땅우에  
나를 세워준 당여!

그대는 그날의 격전장에 바친  
나의 청춘, 나의 랑만,  
그 모든 삶의 희열이  
이 가슴에 다시 숨결높이 나래치라고  
나에게 붓을 안겨주었어라

그대 그 붓을 안겨주어

들끓는 조국과 함께 고동치는  
내 청춘  
불타는 심장을  
열정의 넋을 주었어라

그때문에 그때문에  
나에겐 그 붓이  
철탑을 일떠세우는 용접봉  
끓어번지는 용광로의 쇠물  
그것은 나에게 착암기며 기중기

내 그 붓을 진 행복에 설레이며  
배고동 높은 바다길을 헤쳐가고  
끓어번지는 건설장, 불뛸는 용해장으로  
함께 어깨 들이밀며  
웃고 떠들며 달리노라

당여, 그대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로  
이 강산에 피어나는 꽃송이의 미소까지  
그 붓과 함께 내 가슴에 안겨주었고  
창조로 밝아오는 아침의 해돋이를  
땃땃이 바라볼수 있는 행복을 주었거니

동트는 하늘가  
장미빛 노을 창문에 물들 때면  
당여, 나는  
그대 안겨준 붓을 쥐고  
마음 서두르며  
날마다 일하는 기쁨에 설레이노라

## 작가결의

# 창조의 상상봉을 날으고저

장수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당이 키워낸 주체형의 인테리들은 지금 40대, 50대의 씩씩한 일군들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습니다.》**

해방후에 자라난 주체형의 지식인.

자신을 이 영예로운 대렬속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자부심은 나로 하여금 한량없는 긍지로 가슴 부풀게 한다.

게다가 40대.

인생의 한창나이 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우리 글을 익혀 작가

로 자라나기까지의 기나긴 나날이 오로지 완숙의 이 계절을 위해 바쳐진것만 같은 생각도 없지 않다.

받아온 사랑과 배려에 비하여 너무나도 보답한 것이 적다는 자책도 크다.

이제 더 늦기전에 쇠소리나게 일하여 봉창을 해야겠다는 조바심이 나를 채찍질한다.

시간의 준마는 10년세월을 주름잡아 거침없이 달린다.

올해는 결괏가 센 준마의 등이 휘도록 고삐를 단단히 틀어잡고 형상의 높은 봉우리에 날아올라 창조의 새지표, 충성의 한해를 기록할 결심이다.

# 투쟁의 노래를 더 많이!

리정술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년대기우에 또 하나의 새 리정표가 찬란히 솟았다.

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책임무로 규정한 위대한 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의 길을 밝혀준 휘황한 등대이며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해답을 준 불후의 백과전서이다.

력사적인 보고의 글발을 가슴에 새겨갈수록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에 태어나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가는 크나큰 긍지로 가슴부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책임무입니다.》**

나는 오늘의 격동된 이 흥분을 가슴에 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할 더 좋은 시

와 노래들을 창작할 불타는 결의를 다진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교대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높은 형상으로 창작할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중앙에 기쁨만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말없이 바쳐가는 우리 시대 혁명전사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에 대하여 노래하겠다.

나는 현실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탐구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

산이 있는곳이면 산울림이 있듯이 인민이 사는 곳이면 그 어디에나 아름답고 격동적인 노래가 있는것이다. 나는 이들의 다정한 벗이 되고 투쟁의 길동무가 될 혁명의 노래, 생활의 노래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

# 어머니

리순우

국가미술전람회의 문이 열리자부터 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았다.

요새는 미술전람회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판세상》사람처럼 취급당했다.

나도 그 《판세상》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술전람회에 가지 않을수 없었다.

넓은 방에 전시된 그 많은 그림들중에서도 그리 크지 않은 한쪽의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잡아당겼다.

…아침노을이 피어나는 동녘하늘 멀리 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흰연기가 피어오른다. 삭도바가지들이 산정을 오르내리는 탄전, 경모를 쓴 한 소박한 녀인이 탄무지에서 골라낸 버럭돌 한덩이를 손에 들고 멀리 화력발전소의 굴뚝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서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인 녀인은 탄부들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무게와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녀인의 미소는 온갖 사랑으로 가득찬 어머니의 얼굴이기도 해서 순식간 마음이 따뜻해지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툴동적인 선과 격동적인 색조, 정열적이고도 독특한 화법으로 형상 되었다.

찬사를 아끼고싶지 않은 좋은 그림이다.

직업적인 타성이랄가. 나는 이 그림의 화가에게 좋은 글감이 될만한 이야기가 있을것이라고 타산했다.

내가 만난 화가는 20대에 갓 들어선 새파란 젊은이였다.

우리 두사람은 조용하고 빛밝은 화실의 접이의자에 마주앉았다.

《…저한테야 무슨 글이 될만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젊은 화가의 가름하고 곱살한 얼굴에 떠오른 난처한 표정을 보느라면 공연히 찾아왔구나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실 전람회에 출품한 그림은 우리 어머니가 그렸습니다.》

젊은 화가의 너무도 뜻밖의 대답에 나는 놀랐다.

《그럼, 어머니가 화가란말입니까?》

《… … …》

젊은 화가는 창너머 그 어딘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정원의 숲속에서 이름모를 새가 꺾도 정답게 노래부른다. 한여름의 진하디진한 꽃향기도 방안으로 스며든다.

《우리 어머니 탄광양수기운전공입니다.》

젊은 화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창문그림자를 안은 가을해빛은 책상위로 기여올랐다.

이때쯤이면 수없이 걸려오던 전화도 잠잠해진 다.

옥녀는 사업일지우에 부지런히 펜을 놀리고있다. 출판물보급과 선전…

옥녀는 구역출판물보급소에서 10여년간을 보급원으로 일하고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급원이 고상한 직업이라고도 말하고 한가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고상하다는데는 별다른 의견이 없겠지만 한가하다는데는 결코 찬성할수 없는 옥녀다. 사실 하 자꾸나하면 좀처럼 바닥이 나지 않는 일이다…

옥녀는 문득 펜을 멈추었다. 오늘아침 출근길에서 상업관리소 소장을 만났었던 일이 생각키웠던것이다.

소장은 옥녀의 손을 살뜰하게 잡으며 몹시 반가워했다.

《그저 이웃에서 살때뿐이지 이젠 헤어져사니가 얼굴조차 보기 힘들군요…》

상업류통사업에서는 손꼽힐만치 능란한 수완을 가진 이 녀소장은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탐사대에 배치된 아들이 몸이 약해 산을 타기 힘들어해서 빨리 집으로 데려오든지 해야겠다고 했다.

옥녀는 소장의 아들이 감기 한번 앓은적 없는 학교축구선수였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참, 요새 정수 외삼촌은 자주 집에 오는가요…》

소장은 구역행정위원회 로동과장인 옥녀 동생의 안부를 은근히 물었다.

《…원래 입이 묵중해서 어찌나 대하기 어려운지…》

《… … …》

옥녀는 대뜸 소장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속이 언짢아졌다. 다만 옥녀가 소장을 이해해줄수 있다면 언제나 마음속에 자식을 소중히 없어두고 사는 다심한 어머니라는것뿐이었다.

《정수한테선 무슨 소식이 없나요?》



소장은 얼굴을 흐리는 옥녀의 기분을 제격 돌려 놓았다. 옥녀의 아들도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자청하여 탄광으로 떠난지 일년이 넘는다.

《나도 그 애를 집에 데려올 생각을 가끔 해보지요. 그러나 아들이 제 엄마를 비웃을것만 같아 인차 겁이 나요…》

어머니의 눈먼 사랑이 자식의 마음을 흐려놓는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옥녀였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자면 어머니가 훌륭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옥녀가 늘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나 입속으로 외우곤하는 너무나도 명백한 이 리치를 걸음으로 옮겨놓기란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때 전화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소스라치듯 생각에서 깨난 옥녀는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출판물보급소요?》

수화기속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매우 틀지고 엄엄하였다.

《예.》

《요즘 좋은 책이 나온게 없소?》

옥녀는 바늘끝에 찔린듯 흠칠 놀랐다.

《아니, 너 정수가 아니냐?!》

옥녀는 능청스런 목소리속에 숨은 아들을 대뜸 알아냈다.

전화기에서는 갑자기 장난기어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옥녀는 숨이 콕- 막히는것 같았다. 언제나 마음속에서 잠시도 떼놓아본적이 없는 아들이었다.

《어디서 전화하니?... 역대합실이라구... 몇 시에 올라왔니?...》

연방 날아가는 옥녀의 따뜻한 목소리는 아들을 정신없이 어루만지는듯싶다.

《휴가를 받아 왔니?》

《... ...》

대답이 없다.

대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집에 빨리 들어올순 없어요?》

어머니가 몹시 그리웠던 모양이다.

옥녀의 입가에 떠돌던 따뜻한 미소는 온 얼굴로 확 퍼져나갔다. 당장 뛰어가고싶다.

《어머니가 달아날가봐 그러니... 리발이랑, 목욕이랑 하구서 집에 가 꼭 쉬려무나.》

러행길에 휘줄근해진 아들이 눈앞에 보이는것이었다.

《...랭장고에랑 찬장안에랑 먹을것두 있으니 먼저 요기를 해라.》

옥녀는 아쉬운듯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여전히 떠돌았다. 이제는 목소리조차 가려듣기 어려우리만치 아들은 어른스러

웠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탄광으로 내려갈때 새말간 애송이가 아니었던가.

집을 떠나보낼 때만 해도 사실 옥녀는 아들의 장래문제를 두고 은근히 속을 썩였다. 앞으로 미술가가 되겠다는 아들... 대학으로 보낼것인가? 아니면 로동속에서 단련부터 시킬것인가?

그러나 아들의 결심은 명백했다.

《어머니, 우리 동무들은 대학두 가구, 공장에두 가지만 난 탄광으로 갈걸 결심했어요. 조금두 막을 생각 말아요.》

《... ...》

《앞으 유명한 화가가 되려면 훌륭한 생활체험이 있어야 하거던요.》

그날 옥녀는 아들이 그린 그림 몇장을 들고 이름있는 한 화가를 찾아갔다. 그는 아들의 장래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싶어 왔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한동안 아들의 그림을 이모저모로 뜯어보던 화가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림에서 어린 화가의 재능은 느껴집니다만 뜨겁진 못하군요... 손끝 재간이 미술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건 생활을 감득할줄 아는 심장이 준비돼야 합니다... 때문에 생활은 미술가의 재산이지요.》

그래서 옥녀는 아들의 결심을 찬동해나섰다. 다만 옥녀에게 서운한것이 있었다면 《엄마》로 팍찔던 아들의 생활에서 어머니의 존재란 이제부터 단 한부분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인정적인것이였다.

옥녀는 아들과 헤어졌다. 《전선》으로 아들을 보내는 승엄한 어머니가 되여...

그때로부터 벌써 일년세월이 흘러갔다.

단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떼놓아본적이 없는 아들이었다. 옥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

《...네가 없으니까 집안에 이빠진 사발 하나 생가지 않는구나. 그저 조용한것뿐이구... 휴가는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그리웠던 아들이였다...

옥녀는 다시 일손을 잡았으나 마음은 구름에 실려 둥둥 떠가는것만 같았다.

벌써 두번째나 옥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늘따라 시간이 몹시 더디게 흘러가는것만 같았다.

거리를 멀리 벗어난 강기슭에 단층마을이 오뚱하게 들어앉아있었다. 《별장지구》라고 부르는 그 곳에 집이 있었다.

자잘한 돌을 간 좁은 길우에 옥녀의 발걸음은 가볍게 움직이였다. 싱싱한 과일이 빼여져나온

큼직한 보집은 그의 손에 들려 흔들흔들 춤을 춘다. 아들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어서빨리 맛아주고싶다...

그러나 집은 텅 비어있었다.

옥너는 한동안 포도넝쿨이 뒤덮인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있었다.

집은 여전히 고요뿐이다. 다만 처마밑의 빈 비둘기장과 마당 한구석에 박힌채 거망이 들기 시작한 도립대만이 아들의 소란스럽던 시절을 말해주고있을따름이었다.

옥너의 초조해진 눈길은 올라리너머 멀리 뻗어간 길쪽에서 헤맸다. 그래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일순간 옥너의 가슴은 빈 뜰과 같이 허전해졌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성급히 열어젖히는 대문소리, 뒤미처 《어머니》하는 숨찬 부르짖음소리...

옥너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당안에는 화판과 배낭을 한쪽어깨에 걸친 청년이 서있다. 철덩이로 빛은것 같은 듩직한 체구, 검승한 얼굴... 해맑고 연약해보이던 어제날의 아들과는 전혀 비슷지도 않다.

《에그, 어딜 갔다 이제야 오니?》

옥너는 첫마디에 목이 메었다.

《동무한테 들렀다 오느라 늦었어요.》

아들은 사과라도 하듯 시뭇이 웃었다.

《...탄광에서 같이 일하는 동문데 지금 미술소조원강습에 올라와있거든요.》

옥너는 굳세고 균형이 잡힌 아들을 눈으로, 가슴으로 들이키듯 바라보았다. 보고 또 보아도 싫지 않은 아들이었다.

그때 아들은 퇴마루기둥에 박힌 꼬부라진 못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 저 못-》

장판방을 못쓰게 한다고 옥너가 서툰 망치질로 스케트걸개를 만들다 꼬부라뜨린 못이다. 아들은 손으로 대뜸 못을 흔들어 뽑아쥐고는 재미있게 웃어댔다.

《어머니, 올핸 배가 많이 열렸구만요.》

아들은 감회깊은 눈으로 마당가에 높이 서있는 배나무를 바라보았다. 마당을 뒤덮은 배나무의 휘늘어진 가지에 한창 익어가는 배알들이 탐스럽게도 주렁졌다.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오는 배나무였다.

벌써 18년전,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에 남편이 심어놓은것이였다. 어린것이 억세게 자라라고 그리고 배꽃처럼 정갈하며 열매처럼 향기로우라고 젊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자기의 념원을 배나무에 담아놓았다.

벌써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영예군인이였던 남편은 전쟁때 입은 상처가 악화되어 종시 운명하고야말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애무찬 목소리 없이 자랐다.

그러나 배나무는 향기로운 꽃과 달디단 열매로써, 설레임소리로써 아버지의 념원을 언제나 속삭여주고있다...

《에그, 이 정신 좀 봐라...》

옥너는 갑자기 생각키운듯 황황히 부엌안으로 들어갔다.

향긋한 파냄새, 기름튀기는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돌았다. 가락맞게 울리는 칼도마소리도 경쾌하였다.

아들은 사이문턱에 걸터앉아 부엌일에 여념이 없는 어머니를 즐거이 내려다보았다.

어머니와 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래 탄광일이 힘들지 않던?》

《사내들이야 해볼만한 일이지요뭐-》

아들은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미술공부두 계속했겠지?》

《... .....》

아들은 시무룩이 웃을뿐이였다.

《그런데 어머니, 저...》

아들의 얼굴에 떠돌던 웃음은 바람에 씻긴듯 갑자기 사라졌다. 무슨 요긴한 부탁이 있을 때 아들은 저렇게 심중해진다는것을 옥너는 잘 알고있다.

《이젠 나두 본격적으로 미술을 해야겠어요. 어때요, 어머니!》

옥너는 사발을 든채 멍해졌다.

《...아무래두 탄광에서 우물거리다간 미술에 성공하기 힘들것 같아요.》

옥너는 가슴이 써늘했다. 일년전, 생활은 미술가의 《학교》라고 외우던 아들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퇴색되어 울려왔기때문이었다.

《그럼 이젠 탄광을 프랫단말이나?》

《글쎄, 어떨는지...》 아들은 말꼬리를 흐리며 별경계 물들어가는 얼굴을 떨구었다.

《... ... 》

옥너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들의 소청이라면 거절하거나 주저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인정깊은 어머니였다.

쌀랑한 초가을밤은 깊어만 갔다.

방안에 무겁게 드리운 고요를 규칙적으로 흔드는 벽시계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린다.

옥너는 아들의 화첩을 꺼내들었다. 연필로 휘갈긴 속사들, 수채화... 채 그리지 못해서 눈과 코만이 있는 어떤 처녀가 옥너를 유심히 올려다

보고 있다.

그림장을 한장한장 번져갈수록 옥녀의 얼굴은 어슬렁처럼 점점 어두워졌다.

(이번에야...)

다음장은 풍경화였다. 달빛이 스며드는 숲속에 사냥총을 멘 사냥꾼이 늙은 참나무에 기대서서 명상에 잠겨있는 그림이었다.

옥녀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다.

(하긴 습작으로 이런 그림 두 그릴수는 있을거야.)

그림장을 넘길 때마다 옥녀의 눈가에는 그 어떤 믿음과도 같은 희망이 살며시 비끼곤했다. 그러나 그 옅은 희망은 바람맞은 초불처럼 인차 꺼져버렸다.

다시 또 한장...

옥녀는 종시 화첩을 덮어버리고말았다.

(어쩌면 눈에 드는 그림을 한장도 못그렸을가.)

옥녀는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잃어버린 때처럼 가슴속은 허전하였다. 그는 한동안 초점잃은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었다.

옥녀의 눈길은 무심중 한팔을 침대맡으로 늘어뜨린채 깊이 잠든 아들에게 가닿았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아들의 팔을 이불안으로 살며시 밀어넣고는 깃을 퐁퐁 여미여주었다.

아들의 입가에는 고요하고 행복스런 미소가 떠돌고있었다. 어머니의 손길이 따뜻해서인지 아니면 미술가가 되어 명성을 떨칠 꿈을 꾸고있을지도 몰랐다.

옥녀는 아들의 얼굴을 넋없이 바라보았다. 애지중지 키웠온 아들이었다. 이마에 열이 조금있어도 눈이 둥그래지던 어머니였다. 아들을 두고 어머니의 희망은 또한 얼마나 컸던가.

어느덧 옥녀에게는 흘러간 나날들이 눈앞에 밝혀왔다. 아들이 여섯살때였다.

...아침에 유치원에 보냈던 아들이 로끼가방을 달랑거리며 옥녀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저기 목재공장정문에 유격대아저씨 있어.》

옥녀는 어린애같지 않게 흥분한 아들을 보았다. 그러나 너무도 황당한 소리였다. 영화나 그림책에서 보았다면 몰라도...

《넌 유치원에 가기 싫어 거짓말 하지.》

《아니야, 정말이야... 가보라-》

아들은 떼를 쓸 때처럼 발까지 동동 굴러대며 고집스럽게 소리쳤다.

《유격대아저씨가 나보고 웃었어-》

《그래, 그런걸 엄마 몰랐구나.》

옥녀는 아들을 얼려야 했다.

한동안 투정질을 하고서야 아들은 유치원으로

갔다.

옥녀는 이 일을 무심히 스쳐버릴수 없었다. 성장하는 아들에게 주위현상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가지도록 눈을 띄워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날 옥녀는 퇴근하자바람으로 목재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정문앞에서 옥녀는 흠칫 멈춰섰다. 그는 아들이 보위색옷을 입은 경비원을 유격대원으로 잘못보았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아니 며칠전만 하여도 아들은 공장경비원쯤은 식별해볼줄 알았었다.

그 순간 옥녀는 눈앞이 확 트이였다. 어린 아들은 단순하고 직선적으로만 경비원을 관찰한것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싹트는 지향의 눈을 빌어 지난 시대의 영웅들을 상상해본것이였다.

옥녀는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상점으로 달려가 그림종이와 크레용을 샀다. 아들은 종이에만 아니라 담벽에까지 피상한 그림을 그려댔다. 그러나 얼마 못가 다른 장난에 정신을 팔기 시작했었다.

옥녀는 저녁이면 아들의 주머니에서 못이나 쇠조각을 한숨속에 꺼내곤했다...

어느 일요일이였다. 아들이 그림 한장을 어머니 앞에 내놓았다. 어느 중학생이 그린듯싶은 수채화였는데 색조의 배합으로 보나 구도로 보나 재간이 느껴지는 그림이였다.

《엄마, 이거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림에는 어린 유격대원이 백포를 쓰고 숲속으로 가고있는 모습이 그려있었다.

《백포는 원수놈들이 보지 못하게 눈우에서 쓰는 거니까 겨울이 아니냐.》

《겨울?... 근데 나무엔 왜 눈이 없냐?...》

정말 그러고보니 어린 유격대원은 흰눈내리는 숲속을 걸고있는데 나무우에는 흰눈이 없었다. 어린 화가는 나무가지에 내려앉은 눈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를 놓쳤기때문에 겨울의 정서를 애매하게 주고있었다. 아들은 그림의 결함을 놀라우리만치 영민하게 포착했다.

옥녀는 아들에게서 감각할줄 아는 재능을 발견했다. 그는 환희로 가슴이 터질듯싶었다.

그때 옥녀는 포연자욱한 전선길에서 처녀간호원 시절에 본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생각키웠다. 한쪽 귀때기가 떨어져 바람에 너풀대며 무너진 집담벽에 붙어있던 그림이였다.

...검은 연기에 휘감긴 하늘, 땅은 흙기둥을 토하며 몸부림친다. 김을 매던 녀인이 호미를 친채 발고랑에 쓰러져있고, 철부지 어린것은 엄마의 젖을 빨며 울어대고있다. 그림우에는 《동포들이여! 형제자매들이여! ...피는 피로써 갚자!》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그림은 활화산처럼 전사들의 가슴을 불태운다. 그 한장의 그림에서 튀겨나온 불꽃은 어제도 오늘도 옥녀의 가슴속에서 타오른다. 사랑과 중오를 가르쳐주며 앞으로 떠밀어주고있다.

옥녀는 아들을 미술가로 키우는데 온 마음을 쏟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술을 알아야 했다. 옥녀는 도서관에 드나들면서 미술에 관한 책이라면 모두 탐독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정열이었다.

옥녀는 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원이 된 아들의 《자재구입원》이 되어 미술상점에 즐겨 뛰어다니곤 했다. 어느 일요일엔 아들과 함께 미술박물관에서 날을 보냈고 또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미술작품을 보러 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자연에 대한 정서를 배양하기 위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강으로, 숲으로 아들을 이끌고 다니기도 했다.

석고모형을 놓고 정신없이 그림을 그리는 아들의 흥분을 흐트릴까봐 문밖에서 서성거리던 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림이 잘되지 않아 아들이 모대길 때면 그 번민이 옥녀의 마음속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안고 잠못든 밤은 또 얼마였던가. 그는 오직 하나, 무너진 집담벽에 붙어있던 그림 처럼 그 어떤 충격에도 떠밀어주며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잡아당기는 그런 그림을 아들이 그려주기만을 바랐다. 그이상 더 옥녀가 아들에게서 바랄게 무엇이 있으랴.

이틀날아침.

옥녀는 이상야릇한 기분에 싸여 정거장으로 향했다. 어떤 일인지 마음도, 걸음도 무겁기만 하였다.

그러나 옥녀는 아들이 바라는것이라면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벼랑 한끝에라도 서슴없이 올라설 어머니였다.

옥녀가 탄광에 당도한것은 한낮이 퍼그나 지난 때였다. 그의 눈앞에는 아들이 그림을 그려서 편지속에 넣어보냈던 탄광모습이 살아움직이고있었다. 쇠바줄을 타고 공중에 나는 삭도바가지들, 산허리를 휘감은 오불고불한 길을 따라 부지런히 오르내리는 대형자동차들, 산의 꺾질을 벗겨낸 듯싶은 로천탄광에서 들려오는 여무진 굴착기소리... 그 모든것에서 힘이 맥박쳤다.

옥녀는 지배인을 만나보리라 걱정했다.

강을 끼고앉은 탄광사무실은 아담한 2층집이었다. 지배인은 현장에 나가고 방에 없었다.

하는수없이 옥녀는 로동과를 찾았다. 여기야말로 의사를 소통해볼만한곳이었다.

책상에 마주앉아 무엇인가 부지런히 쓰고있던 칼칼하게 생긴 젊은이가 머리를 들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옥녀는 조심스럽게 자기 신분을 밝혔다.

《지도원동무지요 저 알고있겠는지... 제가 청년갱에서 일하는 정수의 어머니입니다.》

《예에-》

젊은 로동지도원은 알만하다는듯 말꼬리를 길게 늘이며 웃었다. 마치도 방안의 온기를 빨아들이는듯싶은 뽀뽀한 웃음이었다.

《앉으십시오. 수속때문에 오셨지요?》

《아니, 그저...》

《정수 소원대로 풀어주자고 지금 토론되고있으니 걱정할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들었으면 했던 옥녀였지만 그 억양에는 모멸비슷한것이 더 강하게 풍겼다. 대번에 그는 불쾌해졌다.

그러나 옥녀는 즐거운듯이 웃었다.

《지도원동문, 내가 정수 수속때문에 왔다는걸 어떻게 첫눈에 알아맞혔나요?》

옥녀는 너그럽게 지도원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원체 례절이 없어서...》

지도원은 누그러지며 미안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는 뽀뽀한것만큼 예민했고 더 솔직한 사람이였다.

《사실 정수같은 애야 우리 탄광이 〈정류소〉에 불과하지요.》

옥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갑자기 무릎위에 놓인 손이 커진듯싶어 어디다 건사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마음갈아선 당장 뛰쳐나가고싶었다. 마치 창피라도 당한것처럼...

마침 책상우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옥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쁘겠는데 그만 가보겠어요.》

《우리 파장동무당 회의갔다 오겠는데 ...》

옥녀는 시간이 없어 그런다는 구실을 대고 황황히 방을 나왔다. 막혔던 숨이 이제야 열리는것 같았다.

《...부모들이 그런 립장이니까 그 당사자야 말해 뭘하겠소...》전화기예다 대고 소리치는 로동과 지도원의 목소리가 복도 한끝까지 날아왔다.

옥녀는 어디로 가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채 걸음을 옮겼다. 여전히 얼굴은 화끈거렸다. 제자식 밉다는 말처럼 아픈것이 또 어디 있으랴.

옥녀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제자식 미운데 없다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렇게까지 배짱균일수 없었다. 집을 떠나보낼 때만도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던가.

옥녀는 아들이 일하고있는 청년갱 갱장을 만나 속시원히 모든것을 알고싶었다.

청년갱은 산허리에 뿔려져있다. 제일 높은곳에 있다하여 《다락굴》이라 불렀다.

청년갱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다만 휴게실에서 청소를 하고있는 나이지숙한 녀인이 있을뿐이었다.

《저- 갱장동무를 만나러 왔어요.》

옥너는 녀인에게 조심하 말을 건넸다.

《갱에 들어갔다우, 저녁때나 만날수 있을거우다.》

녀인이 비자루질을 하며 무뚝뚝이 대답했다.

《원, 제 방 하나 거들줄도 모른다니까.》

녀인은 혀를 차며 누구인가를 탓했다.

이윽고 청소를 끝낸 녀인은 방구석에 서있는 옥너에게로 돌아섰다.

《갱장을 정 만나려면 날 따라오시우.》

녀인은 목걸이에서 갱모를 벗겨들었다.

《갱에 들어가야 하니 이 갱모를 쓰우.》

옥너는 녀인의 호의가 고마왔다.

갱입구 영예게시판앞에서 녀인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꽃둘레를 목에 걸고 찍은 탄부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듯 바라보는 녀인의 눈은 따뜻하였다.

《저 첫줄 세번째 사진은 우리 첫째구, 이 가운데건 둘째라우...》

녀인은 옥너의 팔소매를 가볍게 끌어당기며 게시판을 가리켰다.

《이 탄광에서 아들 넷이 일한다우. 속보에두, 방송에두 그 애들 칭찬이유.》

《어쩌면 모두 일잘하는 아들들만 두셨나요?》

대답대신 녀인의 입가에는 알듯말듯한 미소가 피어났다.

옥너는 어쩐지 녀인의 얼굴이 펍 쭈어진것 같이 느껴졌다. 저 얼굴은 일잘하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가져다주는 쭈음이런듯-, 옥너는 그것이 부러워졌다.

《자식들 낳기두 힘들지만 가르치긴 더 힘들다우.》

녀인이 하는 말이다.

사실 그랬다. 진정 자식을 사랑할줄 안다는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어루만지고 끌어내주는 그런 본능적인 사랑이야 누군들 못하랴...

옥너는 전등불이 환한 굴길을 걸었다.

둥그런 천정의 전기줄에 시퍼런 불줄기를 그으며 탄차들이 요란스레 달려올 때마다 옥너는 등골이 싸늘했다. 그리고 안전모를 쓴 단발머리운 전공 처녀를 놀랍게 바라보았다.

둔중한 발파소리, 압축기소리로 꽉 들어찬 갱속의 모든것이 옥너에게는 엄엄하게 느껴졌다.

옥너는 맑은 하늘과 공원의 숲속과 화려한 극장이 그림자던 아들의 편지가 생각났다.

《애, 셋째야-》

옥너는 녀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녀인

은 7번이라는 표쪽이 붙은 결굴에서 동발목을 메고 나온 청년을 멈춰세운것이였다.

《오늘 너희네가 캔 석탄에 버럭이 섞였더라... 이걸 보려무나.》

녀인은 손에 들었던 보꾸레미를 청년의 눈앞에 흔들어보였다.

《그저 어머니 흠만 잡는다니까.》

청년은 갱모를 이마우로 추켜올리며 빙그레 웃었다.

《몸적서 일할바에야 깨끗이 해야지...》

《알았어요. 어머니-》

청년은 옥너를 힐끗 쳐다보더니 부끄러워진듯 동발목을 메고 썩- 달아났다.

《애-밥은 제때제때 먹두록 해라.》

녀인은 몇걸음 따라가며 소리치고나서야 옥너 쪽으로 되돌아섰다.

《어미된 마음이야 어디 한시두 편할 날이 있수, 저것들이 제구실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저 걱정뿐 이우다. 그래두 갱에 나오면 한결 마음이 놓이는 구려.》

어머니란 자식들의 생활에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어머니의 온 마음은 자식으로 가득차있는것이다.

옥너는 어머니란 참뜻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듯도 하였다. 문득 아들들때문에 일한다던 녀인의 말이 생각키웠다. 아름다운 꽃은 저절로 피여날수 없지 않는가.

《에그, 두번째 발파소리 왜 안나누...》

녀인은 불안스레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 방이 갱 휴게실인데 들어가 기다리우. 갱장두 찾아올테니...》

녀인은 굴벽에 나있는 문을 가리키고는 어디론가 총총히 사라졌다. 아마 저 녀인은 첫째나 둘째를 만나서 발파소리가 왜 안나는가고 따질것이다. 필요하다면 책망도 하겠지. 그 어떤 든든하고 건전한 기둥에 의지하고있는 녀인의 생활은 얼마나 활기에 넘쳐있는가.

웬일인지 옥너는 자신이 부끄러워지는것이였다.

탄광을 떠난 옥너는 저녁늦게야 집에 들어섰다.

아들은 반갑게 옥너를 맞아주었다.

《어머니, 저녁밥은 내가 다 해냈어요. 좀 타긴 했어도 맛은 괜찮아요.》

아들은 방바닥에 퍼놓았던 화첩이며 베개를 제자리에 갖다놓으며 분주스레 돌아섰다. 아들은 무엇인가 켜기는 일이 있으면 저렇게 어머니의 기분을 돌구려고 애를 쓰곤했었다.

그런 아들을 보느라니 옥너의 가슴속에는 동정 비슷한것이 솟아올랐다.

옥너는 문득 갱 휴계실구석에 박아둔 먼지덮인 아들의 풍경화를 본것이 생각났다.

별판에 잎 떨어진 붓나무 한그루가 서있는 마가을풍경이었다.

옥너는 애잔한 정서만이 풍기는 그림에서 생활과 멀리 떨어져가는 아들을 보는것만 같았다.

옥너는 아들의 미술을 위해서도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었다.

풍경화에 낀 먼지처럼 아들의 마음속에도 분명 먼지가 앉았다.

그렇다면 그 먼지를 씻어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애써야 할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는것도 옥너는 알고있다.

지금 옥너의 마음속에서는 두 어머니가 움직이고있었다.

하나는 《채찍》을 들고 아들이 똑바로 걸어가도록 가르치는 엄격한 어머니였다.

그러나 옥너는 《채찍》을 들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때리느니보다 자기가 맞는게 낫다고...

또 다른 어머니는 눈먼 사랑에 빠져있는 연약한 어머니였다. 어찌하랴. 굵든 밍든 제자식인걸...

지금 옥너는 이 두 어머니사이에 끼여 좀처럼 마음을 종잡을수 없었다.

옥너는 은근히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다시 정신이 들었다.

《어머니, 탄광에 가보니 어때요?》

그때 옥너는 초조와 기대가 뒤엉킨 아들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무엇인가 안타까이 묻고있다.

옥너는 의식적으로 공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하였다.

《난 탄광에 가서 많은걸 배웠다. 막장탄발이 얼마나 아름답단지... 탄부들이 그러는데 정들면 탄발이 검게 보이지 않구 비단으로 보인다더구나...》

새 탄층을 찾아놓고 《비단층》이 나왔다고 흥분하여 웨치던 탄부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옥너의 귀가에 쟁쟁히 들려왔다.

《...탄캐는 사람들의 이마에 돋친 땀방울을 볼때 어쩐지 네 얼굴이 떠오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구나.》

아들의 얼굴은 금시 어두워지면서 속이 뒤틀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어머닌 내가 일이나 하기 싫어서 집에 온줄 알아요.》

《... ... ...》

《이젠 난 발전하구싶단말이야요.》

《뭇라구, 발전?!...》

옥너는 역이 막혔다.

《어머니가 아들이 발전하는게 싫다면 도루 내려 가는수밖에 없지요.》

아들은 불만에 차서 별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옷방으로 썰- 올라가버렸다.

옥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어떤 믿음이 한시에 배반당한듯한 설음이 복받쳤다. 어머니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아들이 원망스러웠다.

《저 애를 조금도 설복시킬수 없구나!》

옥너는 자기의 무력에 대한 애라는 생각에 몹이여 벽에 머리를 기대고 오래동안 앉아있었다. 이튿날이었다.

옥너는 모처럼 찾아온 이 일요일을 울적한 기분속에 보내고있었다. 책도 쥐여보고 집안 일감도 건드려보았지만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저녁무렵이 거의 되어서 뜻밖에 손님이 찾아왔다. 미술소조원강습에 올라왔던 아들의 탄광동무다. 류달리 눈썹이 꺼먼 청년의 묵중한 얼굴은 옥너가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였다.

옥너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돌아갔다. 그는 랭장고에서 꺼낸 맥주병을 사랑, 파자가 놓인쟁반 위에 함께 놓으려다 말고 잠시 망설였다. 이런 《물건》과 접촉시켜도 되겠는지...

이때 방안에서 항변하는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내가 시시하게 누굴 믿구서 올라온줄 알아...》

옥너는 한자리에 굳어졌다.

《...난 몇몇한 사람이야. 학교를 졸업하구 다른 동무들은 일이 험한데루 갔지만 난 우정 자원해서 탄광에 갔어. 그리구 귀중한 석탄을 캐느라 어지간히 땀도 흘렸어. 그래 이것만 가지구두 난 미술가로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옥너는 속이 떨렸다. 아들은 조그마한 탄광경력을 지평이처럼 휘두르고있지 않는가. 그보다는 아들이 로동을 그 어떤 명예나 출세를 위한 경력이나 발판처럼 써먹으려는 그것이 가슴을 더 서늘케 하였다.

《정신차려. 우리 탄광이 무슨 허영심이나 만들어내는 《제작소》인줄 알아. 량심을 키우는 학교야 학교...》

용수철에 튕긴듯한 팽팽한 목소리였다.

그 다음은 서로 엉키여 씨근거리는 숨소리...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

다시 아들의 동무가 침착하게 말한다.

《사실 정수 너에겐 미술가로 될 재능의 싹이 있어. 그건 생활에 대한 예민한 정서적감각이야. 이건 내가 앞으로 미술에선 나보다 몇배나 발전할 재능이야. 사실 말하면 난 질투심이 났어. 그러나 그 재능이 더 아까웠어. 이렇게 찾아와서 싫은 말을 하는것두 네 재간이 아까와서야. 그렇

다구 탄광으로 내려가자는건 아니야. 거야 네 생각대루지…»

《… … …》

《하지만 어디에 가든 너는 자신을 똑똑히 알아야 해… 지금 넌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미술가가 되려고 애를 쓰고있어… 내가 언젠가 읽은 책엔 자기를 위한 생활이란 일마나 값없구 꿈광내가 나가는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어…》

옥너는 그만 부뚜막에 주저앉고말았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으며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칼끝으로 가슴을 찌서내는것 같은 아픔만을 느끼고있을따름이었다. 그 아픔의 도간도간에는 매맞고 들어온 아들을 본 때처럼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끼여들기도 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방문 열리는 소리에 옥너는 정신이 들었다. 그제야 그는 맥주병을 놓은 다과쟁반이 부뚜막에 아직 그대로 있는것을 보았다.

옥너는 황황히 밖으로 나왔다. 방을 나온 아들과 동무를 본 순간 옥너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러나 두 청년은 말주먹질을 한 기색이란 조금도 없었다. 다만 아들의 얼굴이 알릴듯말듯하게 흐려있을뿐.

《아니, 이렇게 왔다 그냥 가려나-》

옥너는 청년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좀더 놀다갔으면 좋겠는데 기차시간을 놓칠것 같아서 그러니다.》

청년은 시무룩이 웃었다.

《기차라니 … 전공부문에 간다던건?…》

《난 좀더 키가 커야 돼요.》

어쭙게 들려오는 청년의 말은 이상하리만치 옥너의 마음을 혼드는것이였다.

청년은 옥너에게 굽석 인사를 하더니 총총히 대문밖으로 사라졌다.

아들의 목소리가 침울하게 들려왔다.

《…깡에서 만났다면 어머니가 바루 저, 친구의 어머니야요.》

《… … …》

옥너는 대번에 정신이 들었다. 낮익어보이던 청년의 얼굴은 탄광의 그 소박한 녀인의 모색이였다. 글썄 어쩐지… 그러자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란 말이 의미깊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저절로 머리가 떨어졌다.

《그럼엔 실력이 있는데… 성미도 이상하지요. 전공부문에서 오라는데 탄광에 그냥 내려가는군요.》

아들은 올라리너머 멀리 뻗은 길쪽을 바라보며 아쉬운듯 웅얼거렸다.

《사실, 여기 있는 매부가 저 동무를 이젠 전공부문으루 돌리겠다는 편지를 집에 보냈었대요.

편지를 받자마자 어머니가 올라왔는데 매부보구 생똥같은 아이를 바람들게 했대구 막 야단하더라고요.》

《… … …》

한동안 말없이 덤덤히 서있던 아들은 무엇인가 결심한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 저 친구 어머니인 매부네 집에서 래일 떠난다니까 좀 가서 전공부문에 떨어질수 있게 설복해줘요.》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 … …》

옥너는 대답을 못했다. 아들의 말대로 하고싶었다. 그러나 옥너가 설복하기에는 너무나도 지체가 높은 어머니였다.

갑자기 아들은 무슨 생각에선지 방으로 뛰어 들어가 화구통을 들고나왔다.

《어머니, 이 화구통을 그 동무가 부러워하던 건데 역에 나가 주구 오겠어요.》

옥너는 다급히 손을 내밀었다.

《아니, 가만 좀 있거라.》

아들은 의아해서 옥너를 바라보았다.

《… … …》

옥너는 어째서 자기가 아들을 멈춰세웠는지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다.

《가만… 네가… 아니 그렇지. 그걸 이리 다구, 정거장엔 내가 가겠다.》

옥너는 걸어가면서도 무엇때문에 화구통을 들고 정거장으로 나가야 하는지 자기로서도 알수 없었다. 다만 그 화구통이 아들의 손으로나 자기의 손으로나 탄광으로 떠나가는 청년의 손에 닿으면 안된다는것만 의식할뿐이였다. 그것은 아들이 탄광과 영원히 리별하는것을 의미했기때문이었다.

옥너는 자신을 똑똑히 의식하지 못한채 정거장으로 걸기만 하였다.

떠나는 사람, 바래우는 사람… 정거장은 범석 끓었다.

한동안 사람들속에서 헤매던 옥너는 흙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길다란 줄에서 몸집이 실한 아들의 동무를 찾아냈다.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가던 옥너는 눈에 띄우지 않는 외진 구석에 서있는 한 녀인을 발견했다.

첫눈에 녀인을 알아본 옥너는 흠칫 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바로 탄광에서 만났던 그 녀인이였다. 무등 반가운 생각에 녀인에게 달려가려던 옥너는 다시 한자리에 굳어졌다. 어째서 저렇게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서있을가? 그러자 옥너는 자식 낳기두 힘들지만 가르치긴 더 힘들다던 녀인의 말이 생각키웠다.

그렇다면 나무랄데없이 똑똑한 아들에게도 저

렇게 속을 써야 하는가?

녀인의 아들은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 멀어져가고있었다.

떠나고 바래우는 작별의 물기어린 목소리들이 대합실안에 가득찼다.

《가서 일이 잘 안되면 곧 돌아오라.》

《아버지, 너무 걱정 말아요...》

《에그, 저 철없는게...》

그렇지만 녀인은 오고가는 그 모든 작별의 토막 토막들에는 무관심한듯 까딱 움직이지 않고 서있다. 오직 눈으로만 자기 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 보고있었다. 아들은 그냥 멀어져만 갔다.

옥너는 생각하였다.

과연 저 녀인처럼 태연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인정에 무딘 심장일까. 아니 그것은 믿음과도 같은것일지도 모른다.

흙으로 나가는 문이 닫기는 순간 녀인은 몸을 흠칫하는듯하며 흘러내린 머리칼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옥너는 녀인의 그 모습에서 첫걸음마를 무사히 뒀던 아들을 지켜보던 때의 자기를 보는것만 같았다.

분명 저 녀인은 딸네 집에서 아들을 보내놓고 남몰래 정거장으로 뒤따라 나왔을것이다. 아들이 아직은 모든것이 미숙한 자기를 모르고 전공부문에 못가는걸 안타까와하지 않는가. 그래서 탄광으로 가는 걸음이 무겁지 않는가. 이것이 녀인에게 넘려스러웠을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용감하게 앞으로 걸어갔다.

저 녀인은 아들의 키가 자라는것을 보고있은것이다.

키가 자라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는 결코 기쁘지 만은 않다. 그런 때면 여위여가는데듯한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걱정애 가까운 피로움도 있는 법이다.

웬일이었던지 옥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 피여올랐다.

어둠은 거리를 찾아들었다.

옥너는 길우에 깔린 파랗한 가로등불빛을 밟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뜻밖에도 상업관리소 소장이 옥너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렘치없이 집에까지 왔을 때야 옥너동무의 힘을 빌리자는거지요...》

소장은 옥너의 손을 살뜰히 잡았다. 그는 첫마디부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우리 애 문젠 로동과장인 동생한테 좀 이야기해주세요... 제자식처럼 생각해주세요.》

옥너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하였다. 창피스럽기

도 하고 모욕을 당한것 같기도 하였다.

옥너는 무엇인가 가슴속에서 부글거렸다. 그것을 불처럼 토하고싶었다.

그때 머리를 숙이고 방구석에 앉아있는 아들이 옥너의 눈에 띄었다. 그는 순식간에 온몸이 나른해지는것이였다.

(일하기 싫어하는 내 아들이나 소장의 아들은 무엇이 다르며 제자식을 옹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저 어머니나 내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단말인가.)

옥너는 이미 소장을 깨우쳐줄만한 힘을 잃어버렸다는것을 서글프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소장동무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옥너의 목소리는 풀기없이 울렸다.

소장은 한숨만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안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 침묵이 흐른다.

옥너의 머리속에서는 이 며칠간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이 분석되고 총화되면서 인정속에서만 헤매고있는 자신을 더 용납할수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자각이였다.

이윽하여 옥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도 이제 그 어머니를 보았지.》

아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도 바로 그 어머니처럼 제구실 못하는 어머니였다...》

아들은 더 깊숙이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닌 너에게 가장 귀중한걸 주지 못했구나.》

옥너의 목소리는 회오에 흐느끼듯 가늘게 떨렸다.

《난 너를 미술가로 키우기전에 성실한 사람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무게와 가치를 가르쳐주어야 했다. 그러구보면 난 어머니구실을 제대로 못했구나...》

옥너는 약해지는 마음을 억지로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방으로 올라가 잠시 벽에 머리를 기대었다. 울렁거리는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배나무를 설렁설렁 흔드는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철썩-》

배알이 땅우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아마 벌레먹은 배알이겠지-)

무심히 생각되면서도 어쩐지 그 하찮은것 같은 소리가 옥너의 가슴을 짹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문득 자기 아들도 제때에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렇게 병들고 쓸모없이 되리라는 생각에 번쩍 정신이 들었다. 이제라도 어머니구실을 잘하라는



마음의 호소가 그를 떠밀었다.

이윽고 옥너는 침대밑에 구겨박힌 배낭을 꺼냈다

옥너는 엄격한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방구석에 숨겨있는 화구통만은 차마 절념을 못했다.

아래방으로 내려간 옥너는 잠시 그대로 서있다가 조심히 입을 열었다.

《정수야.》

아들의 정기 잃은 두눈이 휘둥그래지며 옥너를 올려다보았다.

옥너는 가슴이 알알해왔다.

《어머닌 무원칙한 인정으로 량심을 흐리고싶진 않다... 넌 오늘밤차투 탄광에 내려가거라. 자, 네 배낭이다...》

잠시 머리를 떨구고 생각에 잠겼던 아들은 숫구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옥너는 아들의 두눈에서 눈물이 가랑가랑 피어오르는것을 보았다. 자책의 눈물이었던지 아니면 어머니가 너무도 《무정》하다고 탓하는 눈물이었던지...

다만 옥너는 태연해지려고 애쓰는 자신을 겨우 의식하고있을따름이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옥너는 방에 굳어진듯 앉아있다.

(지금 그 애가 어디쯤 갔을가...)

옥너의 마음은 아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가고있었다. 그는 아들로 하여 늘 불안할것이며 마음은 언제나 아프게 되리라는것을 느끼고있다.

방구석에 놓인 아들의 화구통이 옥너의 눈에 띄었다. 그 화구통은 아들이 오늘은 다시 떠나갔지만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래일에 또다시 집으로 돌아오리라고 말하는것만 같았다.

옥너의 속은 타들어갔다. 오늘따라 남편생각이 더욱 잔절했다.

만약 이 자리에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은 대번에 아들을 꾸짖을것이다. 그러면 옥너는 남편에게 아들의 좋은 점만을 끝없이 설명하면서 아들의 역성을 들어줄것이다.

그러나 지금 옥너는 어머니가 되어야 했으며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갑자기 옥너에게는 아들의 학교시절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추억은 아들이 등산야영에 갔었을 때의 일에서 멈춰섰다.

...옥너는 야영지 천막속에서 쓴 아들의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 우린 매일 행군해요. 발에 콩알같은 물집이 생겨 제대로 걸을수 없고 가을비에 감기까지 걸렸어요...》

옥너는 찬비를 맞고 감기를 만난듯한 진통을 그대로 맛보곤했다.

아들은 종시 예정기일을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야말았다.

물론 옥너는 아들을 되돌려보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아-)

그 순간 옥너는 소스라치며 놀랐다. 그는 비로소 자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조국을 위해서라면 온몸을 깡그리 바칠줄 아는 크고 뜨거운 심장이 아니라 자기 하나를 위해서만 숨쉴줄밖에 모르는 그런 작고 싸늘한 심장을 준 어머니를 보았다.

옥너는 갑자기 고개를 푹 떨구고말았다. 웬일인지 옥너의 눈앞에는 기쁨과 희망으로 엮여진 지나간 나날들이 삼삼하게 떠올랐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얼마나 크나큰 은정과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주시였는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그 모든 행복 그리고 기쁨에 찬 오늘과 희망찬 래일까지도 아낌없이 주시였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에게 무슨 생활이 있었으며 무엇으로 숨쉬며 살수 있었으랴.

그러나 옥너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제자식 하나 똑똑히 가르치지 못하지 않았는가. 부끄러웠다.

사람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리도 지키지 못한 량심없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는 소리없이 울었다. 자책으로 온몸이 몸부림쳐지는 커다란 흐느낌처럼...

옥너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과연 내가 조국을 위해서라면 온몸, 온 심장을 아낌없이 바칠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있었는가.)

바로 이런 심장이 없었기때문에 한갓 인정속에서 해매는 세속적인 어머니, 가정이라는 울타리속에서 자기 한몸의 안녕만을 생각하는 리기적인 어머니로밖에 될수 없지 않았는가.

옥너는 아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송두리채 지고 싶은 어머니의 솔직하고 어엿한 희생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나도 탄광으로 내려가면 어떨가?)

옥너는 저도모르게 흠칫 놀랐다.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선뜻 결심을 내릴수 없었다. 남부럽지 않은 생활, 정든 집 그리고 래일까지도 훌륭히 약속된 정들은 그 모든것과 대담하게 헤여진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아니야! ... 옥너는 머리를 흔들었다. 바로 무슨 일이든 자기부터 생각하는 그것, 그것때문에 결국 아들을 병들게 하지 않았던가.

(탄광으로 내려가 일하며, 배우며 아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땀흘리는 사람들앞에서 성실하며 자기 임무를 스스로 맡아할줄 아는 량심을 아들에게 심어주자. 하여 자기 인민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이것은 저 상업관리소 소장과 같은 어머니들에게 주는 옥녀의 대답이었다.

옥녀의 가슴은 후련해졌다. 그는 지금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듯한 홀가분한 기분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문득 옥녀에게는 한장의 그림이 눈앞에 삼삼해졌다. 한쪽 귀가 떨어져 너풀거리며 무너진 집담벽에 붙어있던 그림, 사랑과 증오를 웨치며 그 어떤 충격으로 사람들을 떠밀어주던 그림...

아들에게서 줄곧 바라마지않던 옥녀의 소원이

이루어질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것이다. 그러면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할것이다.

《어머니, 이제 떠나갑시다.》

아들의 성공으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은 결코 끝난것이 아니다. 때문에 옥녀는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아니, 나는 떠날수 없구나. 이 탄광에서 너의 녀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말이다.》

아들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도 어머니는 영원히 어머니일것이다.

동녘하늘은 흰히 밝아왔다.

파르스름한 새벽빛을 안고 배나무는 마당가에 서있다...

## 이 땅 그 어디에 가있을지라도

김재윤

눈에 묻히여  
사령부의 마지막한  
귀를집  
이영은 땅에 닿았건만

프락만은  
사령부의 프락만은 정갈하여  
금시라도 장군님께서  
환한 웃음 담으시고  
마주 나오실듯

높뛰는 가슴 누르며  
내 바라보며 다가선다  
통나무책상우에 펼쳐진  
수첩과 만년필...

아  
머나먼 적후와 국내에서 보내온  
혁명전사들의 소식들과  
하나하나 적어가신 그 이름들...

무쇠난로우의 물주전자  
아직도 끓고있는듯  
눈보라 몰아치는 창밖에 귀기울이시며  
장군님께서 지새이신 밤은 그 얼마였으랴  
사랑하는 전사들을 기다리시며

그 사랑, 그 믿음, 그 뜨거움이  
언제나 전사들의 가슴에 차고넘쳐났기에  
기어이 여기 돌아와  
승리의 보고 올렸고

못돌아와도  
충성의 보고만은  
언제나 전해왔던 이곳

사랑과 믿음과  
충성으로만 다져진  
성스러운 이 프락으로  
내 발길 떼기조차 황송하구나  
그날의 눈길 겹쳐보지 못한  
나의 이 걸음

너무도 평탄한 길을 걸어  
내 여기에 와닿았구나  
세월은 가도  
수령님의 품에 안겨사는  
참된 혁명전사들의 길은  
그날의 투사들이  
장군님품에 돌아와 안긴  
백두의 그 길

아, 내 이제 여기를 떠나  
이 땅 그 어디에 가있을지라도  
그 언제나 그날의 투사들이 헤친  
그 발자국 따라, 그 길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당중앙을 우러러  
언제나 걸음걸음 충성을 새기며 옮기리라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아버이수령님의 품에서  
영생의 전사로 살리라!

## 그가 간직한것

장동일

김책제철소 사로청위원회는련속식소결직장선전실에서현장강연을조직하였다.여기에여러단위의직장사로청원들이참가하게되어있었다.

용수직장해수작업반운전공인리영실이도교대를마치고동무들과함께그강연회에참가하였다.

강연이한창진행되고있을때영실은무심결에뒤를돌아다보았다.순간그는눈을크게뜬채굳어졌다.영실이가눈길을주고있는뒤줄구석에심정옥이가앉아있었다.그를벌써여러날째만나보지못한생각이들자영실은달려가고싶었다.

강연회가끝난다음선전실문을나선영실은제철소에배치되어련속식소결직장의배합장운전공을하고있는심정옥에게달려갔다.

《정옥아,정말오래간만이구나.너를만나보기가여간힘들지않구나!》

그러자심정옥이도반가와마주달려오며대꾸했다.

《정말오래간만이구나!》

《요즘바쁜모양이구나.》

심정옥은영실의손을꼭쥐고말했다.

《영실아,너는잘모를거다.우리직장은네가일하는용수직장하구는달라.언제잠이있는줄아니?우리련속식소결직장에만부하가걸렸어...》

그러면서정옥은차차기회를봐가면서여기를뜨겠다는것이였다.

《뭘직장을옮긴단말이냐?》

《아무래도...》

그날밤영실은밤이깊도록잠들지못했다.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는다음과같이교시하시였다.

**《금속공업, 특히 강철공업의 발전은 나라의 공업화수준과 경제적위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영실은어버이수령님의교시를되새기면서생각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련속식소결로가잘돌아가야대형용광로가계속은을낼수있다고하시였는데,

그러지않아도로력이모자란다면일터를뜨다니...)

영실의눈앞에는련속식소결직장동무들의얼굴이떠오르면서정옥이의목소리가자꾸만되살아

났다.

(...정옥이의말처럼내가...사실내가하는일은련속식소결직장동무들의일에비하면아무것도아니야,그러구두내가제철소로동계급이라구?)

그이튿날영실은직장장실출입문앞에서있었다.련속식소결직장으로보내달라는제기를하기위해서였다.그런데정작들어가지니왜그런지선뜻문고리에손이올라가지않았다.

(나는그동안용수직장에서해수뽑프운전에능숙한기능공이되지않았는가?만약내가진심으로련속식소결로를도우려는생각이있다면자기의혁명과업을원만히하고나머지시간을바쳐서지원하면더욱좋지않겠는가?...그것이바로로동계급의량심이아닌가.)

영실은자기교대의한교대를더하기로결심하고돌아섰다.

그는교대작업이끝나자련속식소결직장사령실을찾아가서자기를오늘부터제일힘든곳에서일할수있도록해달라고제기했다.

그러지않아도로력사정이긴장하던때라키가격두룩한소결직장교대사령원은고개를의미있게몇번끄덕여보이고나서두말없이그자리에서영실이를배합2작업반1교대에배치하여주었다.알고보니그교대는영실의동창생인심정옥이가일하는곳이였다.

《아니영실아,너우리직장에옮겨왔니?》

정옥은두눈이울롱해져서달려오며물었다.

《아니그저...지원왔어.》

《응-지위-언?...》

심정옥은알만하다는듯이머리를끄덕였다.그는영실이가기껏해야열흘쯤지원해주다가가리라고생각했다.또사실대다수의동무들이그렇게머칠씩와서일하다가버리기가일쑤였다.그것을탓하는사람은없었다.

그러나영실은가버리지않았다.

영실은매일과같이일이끝나면작업총화에참가하고남들과똑같이사로청학습과기술학습에참가하였으며생산문화사업에도남보다더모범적으로참가한다음어김없이《자기의일터》로가는것이였다.

그러나영실은자기의결심을실천에옮긴다는것이얼마나어려운가하는것을두교대를해나가는조런치않은과정을통하여느끼기시작했다.

기본교대작업을 마치고나면 하루쯤 건네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사실 하루쯤 건네다고 해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는것이다. 오히려 소결직장에서는 영실이가 벌써 한달이 넘게 사회적으로 한 교대를 더 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곧 용수직장에 통보하여주고 이제는 그만 해도 다른 사람들의 세배가 넘으니 오지 말라고 몇번이나 말했다.

그러나 영실은 련속식소결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날밤에 누가 보든말든 오직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키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고 맹세 하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곤난을 이겨나갔다. 목요일마다 돌아오는 설비점검에서도 모범기대를 쟁취하여 자기 작업반과 직장에서 본보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다른 직장에 가서 지원하는 그 모든 성과도 아무 보람이 없다고 영실은 생각했다.

영실이가 련속식소결직장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도 벌써 두달이 지나갔다. 북방의 날씨는 때이르게 추워졌다. 바다물을 정제하여 용광로들에 생명수로 보내는 해수뽑프의 운전도 혹독해지는 추위때문에 물이 얼어 두배 세배의 로력이 들었다. 련속식소결직장에 가면 이번에는 기본일터하고는 정 반대의 난관이 영실이를 기다리고있었다. 거기서는 70 도나 되는 높은 열을 받으면서 원료를 배합하여야 하며 벨트콘베아에서 흘러내린 무거운 정광을 처리하여야만 했다. 여기서 일을 시작할 때 물집이 졌던 손바닥은 이제는 굳어져 군데군데 썩살이 배졌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자기 교대에서 밤근무를 하던 영실은 그만 깜빡 졸았다. 인격이에 놀라 깨였을 때에는 앞에 반장이 서있었다.

그날 아침에 작업총화를 할 때 영실은 성미 급한 작업반장한테서 호된 비판을 받았다.

《다른 직장을 지원하는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의 기본혁명과업이 더 중요하오. 용광로에 물을 대주는 일이 동무 생각엔 시시해보이오?》

영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밤이 깊도록 휴계실에 혼자 앉아 그는 소리없이 울었다.

이때 세포비서 오장승아버이가 휴계실문을 열고 들어섰다.

《영실이는 늘 보아야 혼자서 울거던...》

그는 이렇게 말하며 영실의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언제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만나고싶던 세포비서아버이를 보게 되자 영실은 더욱 설움이 북받쳐올랐다.

《그러지 말구 이 신문을 좀 읽어보라구.》

세포비서아버이는 한장의 신문을 영실이앞에 펼쳐놓았다.

거기에는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연구사 백설희

동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었다.

영실은 눈물을 거두고 그것을 읽어내려갔다. 다 읽고났을 때 휴계실에는 이미 세포비서아버이가 없었다. 그러나 영실은 마치도 비서아버이가 옆에 있는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져서 백설희동무에 대한 실화를 또다시 읽어내려갔다.

영실은 그 신문을 가슴속에 깊이 간수해넣었다. 또다시 련속식소결직장으로 갈 시간이 된것이였다.

영실은 휴계실을 나서려다가 출입문옆에 걸어놓은 거울앞에서 저도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거울안에서는 가름하고 감실감실한 얼굴에 그윽한 눈동자를 가진, 이제 스물두살쯤 나보이는 한 처녀가 마주 보고있었는데 눈동자에는 피발이 져있었고 얼굴도 몹시 수척해보였다.

《이제 보니까 영실아, 너는 참 나약한 처녀였구나. 고만한 난관도 이겨내지 못해 혼자서 눈물을 흘리니?... 백설희동무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를 연구과제를 위해 자기의 청춘을 모두다 바쳤는데 너는 이제 겨우 석달을 하고 그 모양이 냐?...》

영실은 거울속에 비쳐진 자기의 모습을 마주 쏘아보며 이렇게 꾸짖었다. 그리고 출입문을 박차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영실은 그날 세급절이나 많은 일을 했다. 그 이튿날은 소결직장 배합장기대들의 표준조작법을 새로 써가지고 갔다.

오장승세포비서아버이는 영실이가 작업반에 들어서자 언제 그런 재간이 있었느냐고 하면서 놀라와했다.

그러자 영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싶어했다고 솔직히 말했다.

《하- 그걸 내가 왜 아직두 모르구있었을까?》

세포비서 오장승아버이는 것처럼 기특한 마음을 간직하고있는 나 어린 사로청원의 재능을 미처 모르고있었다는 자신을 나무랐다.

놀라와하는 비서아버이의 모양을 여겨보던 영실은 방글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비서아버이, 제가 그래두 예술전문학교시험을 다 쳤답니다.》

《네가??》

《그럼요. 도예술전문학교 미술과에 가려구 한번 견주어보았지요 뭐.》

《그래 무얼 준비해가지구 갔겠니?》

《그림을 그려가지구 갔지요.》

《무슨 그림을?》

《저... 《꽃파는 처녀》 하구 올해 일흔두살에 나는 우리 할머니의 쪼글쪼글한 얼굴을 그려가지구 갔지요 뭐.》

《아하! 그래서?》

《괜찮대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나요...》

영실의 웃는 얼굴엔 아쉬워하는 빛이 어려있었

다. 영실을 새삼스러운듯 찬찬히 마주 쳐다보던 오장승세포비서는 얼굴에 심중한 빛을 띠우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참 영실이가 그림에 취미가 있다 했더니...》

그저 일밖에 모르는 이악하고 천진한 처녀로만 생각했고 얼굴에 웃음 한번 제대로 담을줄 모른다고 여겨왔던 영실이가 그렇듯 황홀한 꿈을 지니고 있었으며 지금처럼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수 있다는 사실앞에서 비서아바이는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었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가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당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부른 가슴에 받아안은 사람들은 새로운 결의에 충만되었다. 일터마다 감격, 기쁨, 흥분으로 설레었다.

영실은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리러 새로운 맹세를 다지고 직장으로 달려나왔다.

그는 자기 담당지대인 해수뽑조장에서 근무를 사고없이 수행하고 그길로 련속식소결로배합작업반으로 《출근》했다.

그 이튿날 대휴를 놓고 나온 심정옥은 영실의 손목을 잡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실아, 난 절대 다른곳으로 가지 않겠어... 우린 얼마든지 네가 없어두 용광로에 원료를 지장없이 대줄수 있어...》

사실 정옥은 영실이가 한 보름 남짓하게 지원해 오다가 그만둘줄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일년이 넘을 때까지 소결직장의 일을 진심으로 도와나서는데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정옥은 말해놓고보니 정작 영실이를 래일부터라도 보지 않으면 허전해서 일을 해낼것 같지 못했다.

아닌게아니라 그 이튿날 영실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날 심정옥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일이 끝난 다음에도 함께 일하는 리만숙언니와 마주앉아서 그 어떤 귀중한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시름어린 얼굴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영실이는 그전날처럼 어김없이 제시간에 《출근》했다.

《영실아, 네가 왔구나! 우리는 네가 영 안오는 줄 알구 얼마나 섭섭해했는지 모른다... 이제부터는 영실이가 와서 일을 하지 않아두 돼, 네가 그저 우리결에 있기만 해두 우린 마음이 든든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리만숙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있었다.

《언니, 내가 언니를 버리구 어디루 가겠어요? 나두 정옥이하구 언니를 하루라도 못보면 무엇을 잃어버린것만 같아요. 난 련속식소결로가 대형용광로에 원료를 원만하게 대주도록 힘껏 노력하겠어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 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전에는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않겠어요.》

영실은 만숙언니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그런걸 우린 네가 아주 가버린줄만 알았구나!》

심정옥은 여느때처럼 생글생글 웃었다.

알고보니 영실은 어제 절기에 맞는 옷도 갈아입을겸 어차피 집에 내려갔다고게 되었던것이 다...

X X

리영실은 지금도 련속식소결직장을 지원하고있다. 누가 보든말든 성심껏...

물론 영실이를 비롯한 김책제철소의 로동계급들은 대형용광로에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는데서 앞장에 섰다.

영실은 오늘도 교대를 마치고 돌아오자 속보를 쓰고있었다. 해수작업반 사로청초급단체 위원장이며 선동원인 그에게는 지금까지 해온 그렇듯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로청원들과 작업반동무들을 당대회결정관철으로 불러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정치사업이 맡겨진것이다. 물론 그는 이 일도 자신이 생각해내어 하는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조글조글 한 할머니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도 예술전문학교에 가서 시험을 칠 때 영실이가 간직했던 그 리상이 오늘 작업반의 벽신문과 속보판우에 꽃피고있는것이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왔다.

직장과 작업반에서 제기된 일들을 다 해놓고 손목시계를 보던 영실은 다시 《출근》준비를 서두르 는것이였다. 오늘도 역시 련속식소결직장에 있는 정든 자기의 《작업반》으로 갈 시간이 된것이다.

그는 소결직장배합장의 기대에 갈아넣을 부속을 감아 종이에 쓴 다음 그것을 안고 작업장으로 향했다. 시원한 바다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혔다.

영실은 가볍게 걸어가며 혼자 속살거렸다.

《숨은 영웅들이 간직한 그 고귀한 신념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한테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대구...》

그가 종종걸음을 하는데 때마침 대형용광로에서 쇠물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쇠물빛은 이른 아침의 하늘을 곱게 물들이고있었다.

## 젊은 시절의 위훈

민병준

무릇 젊은 시절엔 위훈에 대한 갈망으로 가슴이 불타기 마련이다.

숨김없이 말한다면 그 위훈이 굉장한 올림을 가진 발파소리와 같이 온세상이 한꺼번에 귀 기울이는 그런것으로 되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한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원도 조사측량대 제 1 탐사중대동무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숨은 위훈으로 젊은 나날을 빛내인 동무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 다.》

조국의 산발은 20대 청춘이었던 그들의 가슴을 희망과 광만으로 설레게 하였다.

2월에 피는 얼음석이꽃을 보면서 집을 떠나면 산정에 내리는 첫눈송이를 어깨에 받으며 돌아오는것이 그들이 20여년동안 어김없이 반복해온 한해의 로정이였다.

조국땅을 메주뒹구는 탐사대원의 발자국이 찍혀지지 않는 산발이 없었다.

아득한 옛날의 이름난 포수도, 전설속의 신선처럼 수염이 긴 약초캐는 로인도 발걸음 해보지 못한 높은 산의 정적을 깨치고 새들마저 길을 잃는 깊은 수림과 해묵은 풀덤불을 헤치며 언제나 초행길만 걷는 그들이였다.

내려조이는 해별도 제일 가까운곳에서 받고 눈비의 세례도 제일 많이 받으며 신비한 자연속에서 남모르는 투쟁을 벌리고있는 그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호합진 열매보다 풍만한 자양을 빨아올리는 깊은 뿌리가 되고싶었다.

그들의 첫 탐사는 폐광하는 광산지대에서 시작되였다.

이 지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상당한 매장량을 가지고있었지만 이미 바닥이 드러나 이제는 굴아구리들만 행뎡그레하니 열려있었다.

그들이 탐사지에 도착한 날이였다. 이미 더는 인내성을 발휘할수 없게 된 광산일꾼들은 모든것을 단념하고 갱안의 마지막 압축기를 자동차에 올려 싣고있었다.

젊은 탐사대원들은 광산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먼길을 찾아왔는데 이곳에서는 다른데로 아주 떠나버리는것이였다. 한마디로 이 시대에는 광석이 없다는것이였다.

참으로 극적인 상봉과 리별이였으며 찬물을 끼얹는 상봉과 리별이였다.

자연의 팽대도 못지않게 쌀쌀하였다.

고집스러운 자연은 수세기의 정적이 깃든 숨막히는 침묵으로 그들을 맞아주었으며 풀수 없는 수수께끼로 그들을 동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구에서 풍부한 광맥을 찾아 낼 의무만을 알고있었기에 광석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는 위치에 자신을 세우지 않았다.

본래 광산이 있던곳과는 좀 떨어진 외진 산벼랑에는 자연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굴이 이 지대의 광맥줄기를 연구하는데 좋은 열쇠로 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즉 이 자연굴을 잘 탐사하면 비록 광산의 위치는 달라지지만 이 지대의 광물생산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는것이다.

이 오랜 자연굴에는 60미터나 되는 수직굴이 있었는데 여기에 뛰어들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석수가 비발치듯하는 수직굴 60미터를 바줄을 타고 어떻게 내려갔는지 그들자신도 알수 없으며 기억해둔 사람도 없다.

위낙 남 못보는 깊은 굴속인데다가 남들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였으니 눈여겨보는 사람도, 눈여겨두려는 사람도 없었던것이다.

피어린 탐구의 나날이 흘렀다.

그들은 말그대로 심장에 불을 켜달고 굳게 입을 다문 돌들과 끊임없이 절절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점한점의 시료를 따내었다.

20대 젊은 나이로서 자연의 수억년을 순간마다 드나들어야 하며 수억살이나 먹은 광석과의 《대결》을 통하여 그의 진속을 드러내야 하는 그들의 탐구는 조련치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당이 밝혀준 새세대의 눈으로 끝내 자연굴의 어둠을 밀어던지고 감추어져있던 비밀을 밝혀내고야말았다.

그 누구의 눈길도 미치지 않는 지심속에서 마침내 크나큰 재부가 가득찬 자연의 창고를 마련하여 어머니조국에 바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치한치를 두드려가며 애써 찾아낸 광산을 두고 오래 기뻐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첫발자욱이 찍혔던곳에 탐사대의 천

막대신에 새집들이 서기 시작하고 주소조차 없던 곳에 조국의 새 행정 구역이 생길 때면 벌써 그들의 얼굴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다.

발파소리가 울려 퍼지고 부러움에 넘친 사람들의 눈길이 모여오는 자리에는 결코 서려고 하지 않는 그들이었다.

또다시 새 탐사지구를 걷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우거진 수림과 계곡에 깊이 파묻혀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수억만년 쌓이고 쌓인 세월의 이끼와 지각의 변동과 동식물의 퇴적이 돌바위로 굳어진 그악한 산발이 기다린듯 솟아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입을 벌리고 올라다보아서는 안되며 땅속이 아무리 깊어도 눈길이 미치지 못해서는 안된다. 산은 오르고 땅은 내려다보며 생각은 아름다운 미래에로 내려쳐야 하는것이다.

탐사대원들은 언제나 지심보다 더 깊은 지식과 산봉우리보다 더 높은 정신세계를 지니고있어야 깊은 땅속도 들여다볼수 있고 높은 산도 마음껏 정복할수 있는것이다.

그렇다! 산은 탐사대원들의것이다!

아늑한 생활과 따뜻한 아래목을 스스로 멀리하고 새 광맥을 틀어친 기쁨으로 가슴 울렁이며 소쩍새우는 산정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들, 아아한 산봉우리와 창창한 수림속의 무심한 나무와 흙과 돌맹이앞에 홀로 서서도 조국과 인민과 후대앞에 선 자각을 느끼며 조국의 만년대계를 마련해 나가는 티없이 깨끗한 혁명전사의 량심을 지닌 그들!

비로봉, 매봉산, 두류산, 청작산... 수없이 많은 산봉우리마다 미더운 그들의 얼굴이 솟아올랐고 땀젖은 그 얼굴들이 환히 웃던 산발마다에서는 보화의 절령임소리가 울려나왔다. 마치 그 고귀한 땀방울들이 보통 암석이었던 이 산들의 돌들에 금빛을 깃들이고 은빛을 더해준듯이...

먼 탐사의 길에서 돌아올 때면 그들은 자신들이 찾아내었던 후보지들에 일떠선 새 광산거리를 줄거 거닐기도 하였다.

얼마전에는 첫 탐사지였던 그 자연굴지대 광산 마을을 찾았었다.

수십메터의 수직굴을 내리기도 하고 벼랑의 낭비돌기와 동무하여 산발을 톱아오르기도 하던곳!

그들의 첫발자국이 찍혀졌던곳에 새 광산도시의 큰길이 뻗어가고 그우에 새겨진 무수한 발자국들을 다져넣으며 대형자동차의 바퀴들이 려이여 굴러온다.

간데라볼마져 꺼졌던 그 굴속에 굴박이 무색할 정도로 밝은 태양등이 빛을 뿌리고 탐사전망도를 펼쳐놓았던 자리에 현대적인 선광장들이 일떠섰다.

이 광산도시에서 생을 받은 어린 세대들은 타아소창문을 통하여 이 낮선 방문객들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낸다.

이고장의 길우에서 이미 찾을길 없는 그들의 발자국처럼 그들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아이들은 낮설어한다.

새 광산이 일떠서기 시작하였을 때는 그 자리를 떠나갔고 다시 찾아왔을 때는 낮설어진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버림받던 산발에 빛나는 오늘을 꽃피운 긍지를 안고 거리를 거닌다.

마침 갯구쪽에서 북소리, 나팔소리가 울려나오고 환영의 꽃다발이 물결친다. 아이들의 환호성도 터져오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위한것이 아니다. 하루일을 마치고 갯에서 나오는 영웅광부들을 축하하기 위한것이다.

오랜 탐사의 나날, 고심어린 탐구와 희생적인 노력으로 그들이 찾아낸 그 많은 광산과 탄광들에서 금벌의 영웅광부와 공훈탄부들도 수없이 태여났다.

그러나 이 길을 제일 먼저 걸은 그들은 아직 이름난 영웅도 아니고 소문난 혁신자도 아닌 보통사람, 숨은 노력가들이다.

가슴에 훈장은 번쩍이지 않지만 이른봄에 메고 나서면 온 한해 등에서 내릴줄 모르는 돌배낭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들, 20여년을 하루같이 청춘의 어깨가 넓어지도록 메고다닌 수수한 돌배낭을 수천만톤의 지하자원과 조국의 부강을 담보하는 크나큰 배낭으로 생각하는 그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가슴이 아니라 조국의 산발이 더욱 금빛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것이다.

참말로 그 어떤 공명과 명예도 바라지 않는 이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어버이사랑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만사람의 찬탄과 번쩍이는 위훈에 더 마음이 동하는 젊은 시절에 이처럼 속깊은 충성심을 발휘한 그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탐사대원들은 전쟁시기도 아닌 때에 자연과 싸우는 무명전사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무명전사!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말씀인가. 집을 떠나 멀리 산중에서 지새인 그 많은 밤도, 남모르는 산발에 일터를 정하고 묵묵히 당과 조국을 받드는 그 충성도 이 말씀속에 담겨 천만 가슴을 울려주지 않는가!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들에게 안겨주신 이 고귀한 칭호속에는 영원히 빛나는 청춘시절의 위훈이 있고 혁명전사의 값높은 삶이 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것처럼 사랑하시는 무명전사들은 오늘도 끝없는 산발을 넘고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평범하고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다.

알려지지 않은 전사들은 40대에 이르렀건만 마음은 언제나 일을 처음 시작하던 20대에 산다.

자기 임무에 대한, 조국의 미래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그들을 항상 젊게 한다.

그들의 한생은 조국의 부강을 위한 산과 함께 있으며 자신도 가정도 후대도 산을 향하여 마주세우고있다.

## 끝없는 동쪽길

오영재

### 첫눈 내린 이른새벽에

눈을 뜨니

(어마나

창문이 왜 이리도 환할까

벌써 날이 밝았나보지)

나는 급히 일차비를 서둘렀네

아침전에 두어시간

벌판에 두엄무지 함께 쌓자고

남몰래 약속한 그 청년

어쩌나

기다리다 먼저 갔으면...

시계를 보니

날 밝기는 아직도 이른데

문을 열고 보니

아니 글썽 첫눈이 나를 놀리었네

마당에 길우에 온 들판에

깨끗한 눈이 곱게 깔렸네

상쾌한 마음에

나래가 돋쳐

눈길로 나는 날았네

아무렴 시간이야

내가 어길까

큰길에서 벌판으로 꺾어든 길

우리 함께 만나자 정해둔곳

그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발자욱만 길게 동쪽우에 남겼네

서운한 가슴에 야속한 생각

속히운 약속에 마음 언짢았어도

나는 따라 걸었네

그 청년이 이 동쪽길을 걸어갔기에

앞서간 발자욱을 따라 걸으며

나는 물었네

-왜 좀더 기다리지 못했나요?

그리고는 스스로 대답했네

-일욕심이야 좋지만

우리의 약속이야 지켜야 하잖나요

발자욱 발자욱을 내려다보며

나는 또 물었네

-우리 둘이 가는걸

그 누가 볼까요?

그리고는 스스로 얼굴 붉혔네

-저 새벽별이나 보겠는지요

날이 새면 스러지고 마는건데요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서고말았네

발자욱이 여기서 끊어지고말았으니...

왼쪽에는 아직도 잠에 든 별

바른쪽엔 얼음밑에 흐르는 시내

나는 뒤를 돌아보았네

그러자 그만 가슴이 울렁거렸네

어디에 숨었다가 불쑥 나타났는지

회분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안고

청년은 웃으며 등뒤에 서있었네

-아이 놀랐네

어쩌문 그래요

그러나 마음은 청년을 나무라고싶지 않았네

이 모든것

행복한 이해에 나를 시샘한

첫눈의 귀여운 장난감에서



##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었네

자리에 누웠으나  
밤새워 씨레를 치는  
그 청년의 프락포르소리에  
잠 못 드네

어제밤도... 그제밤도...  
모내기철이면 잠을 모르는 청년  
옆에서 말동무나 해달라느냐면  
모내기기계 타느라 피곤할텐데  
어서 가서 쉬라네

그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네  
깨끗한 옷차림으로  
그 청년이 어디론가 프락포르 물고가는 꿈

모를 나르던 동쪽에 우두커니 서서  
순녀아주머니는 말하네  
일 잘하는 저 짧은이가  
먼 학림리의 부반장으로 간다고

모내기기계우에 모를 심던 손을  
더는 움직일수 없었네  
(어쩌면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나는 막 울고싶었네

해빛이 눈부신 흰 길우로  
빨간 프락포르는 멀어져가는데  
웬일인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발동소리는 더 크게 울려왔네

그러더니 마침내  
안간힘을 쓰는 새된 소리로 귀청을 찌르며  
나의 꿈을 깨웠네

... 밤은 펍 깊은듯싶은데  
물씨레치던 청년의 프락포르  
수렁에 빠진듯  
피로하게 몸부림치더니  
그만 발동마저 꺼져버렸네

나는 일어나 달려갔네  
들판에 한점 불빛을 찾아  
초여름밤 눈물은 차거웠지만  
헤쳐갔네 그 청년의 프락포르결으로

그 청년은 있었네  
우리 마을, 우리 논에...  
나는 조용히 물었네  
-사람들을 불러올가요?

때아닌 목소리에  
그 청년이 몸을 돌렸을 때  
나는 언뜻 보았네, 전조등의 불빛속에  
반가움과 기쁨으로 빛나는  
정다운 그 눈길을

청년이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서서  
우리는 통나무를 날라왔네  
한대... 또 한대...  
그것을 바퀴밑에 나란히 깔고  
발동을 걸었네

차는 또다시 힘을 쓰며  
통나무를 힘겨이 톱고  
그것이 안타까와 나도 밀었네  
나 하나 작은 힘이 무슨 보탬되련만...  
그래선지 마지막 통나무를 힘있게 차며  
프락포르는 마침내 빠져나왔네

온몸을 흙탕으로 뒤집어쓴  
서로의 모습을 불빛아래 바라보며  
웃음을 못참고...  
그 청년은 말했네  
-명희동무 작업복을 내가 빨아줄가  
그리고 또 웃었네  
그리고 행복했네

방금 꿈 꾸 이야기  
하마트면 그 청년에게 말할번했네  
하나 나는 참아버렸네  
새벽이 가까운 한밤중  
우리 마을, 우리 논판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기에

## 정이 든 황토길

나서자란 내 마을에  
정들지 않은것 있으랴  
마을도 골목길도  
들판도 실개울도

그러나 저 황토길언덕엔  
류달리 정이 더 붙었네  
굽이굽이 큰 고개 막아나서도  
읍으로 가는 길이기에  
평양으로 향한 길이기에

그 청년이  
평양의 농업대회에서 돌아올무렵  
언밭에 소석회를 치면서도  
암거식랭상모판의 배수로를 파면서도  
하루에도 그 몇번 저 길을 바라보았네  
마음속에 그 청년과 트랙틀 몰아가며...

평양으로 떠나가던 날  
그 청년이 하던 말이 생각나네  
-돌아올 땐 무엇을 가져다줄가

나는 대답했네  
-우리 작업반원들을 대신해서  
많은것을 배워만 오세요

세상에 가장 귀중한 선물로  
좋은 경험 받아안고 돌아올 청년  
기다리며 기다리며 바라보던 고개길  
어느날 나타났네, 해빛을 안고  
걸음도 씩씩하게

올해도 농사를 잘 지어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그 열쇠를 안고  
그는 나타났네  
저 황토길고개마루에

그래서 아 그래서  
더더욱 정이든 황토길  
한생토록 충성을 꽃피갈  
대대로 길이 빛내갈  
한없이 귀중한 행복의 길이라네

## 끝없는 동쪽길

우리는 걸었네  
《기계화가정운동》 토론회가 끝난 밤  
내 고향 청계천  
끝없는 동쪽길로

겨우내 우리가 낸 두엄  
훈훈한 봄바람이 그 내음을 싣고  
살진 들판을 어루만지는 밤  
달빛어린 맑은 시내물은  
풍년의 꿈을 안고 잠든 별판에  
고요히 자장가를 불러주네

기계화가정  
기계화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서로가 잘 알고있었기에  
오래동안 말이 없었네

서로의 가슴은 높이 뛰고있었네  
이렇게 만나기 한두번만 아니건만  
언제나 먼저 말머리를 떼던  
그 청년도 이 밤엔 생각이 깊은듯

서로의 마음은 말하고있었지만  
그것이 너무도 귀중하고  
그것이 너무도 아름다운것이어서  
우리는 두려웠네

살아온 나날보다  
살아갈 나날이 몇갑절 긴  
미래의 행복이 이룩되는

너무도 엄숙한 시각이어서  
이 세상에 가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설레는 이런 밤이 다 있었으리  
깨끗한 사랑의 언약을  
그들은 무슨 말로 맺었는지  
나는 들어본적 없고  
그 청년도 또한 알길 없으리

언제나 쾌활하고 담대한 사나이  
떨리는 목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네  
-명희동무도...

뜨락뜨락을 배우지 않을래?  
대답이 선뜻 나가지 않았네  
웬일인지 눈물이 자꾸만 샘솟아

아, 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이  
이마에 스쳐가는 부드러운 바람결이  
나더러 대답을 하라네  
이 손으로 풀어주고 포기마다 어루만져준  
우리의 정다운 들판이  
일 끝난 저녁마다 내 얼굴 곱게 씻어준  
맑은 시내물이  
기다리네, 나의 대답을...

이렇게 우리는 온 밤을 걸었네  
《기계화가정운동》 토론회가 끝난 밤  
온갖 꽃 들에 웃는  
봄날같은 우리의 래일을  
행복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며  
내 고향 청계천의 끝없는 동쪽길을-

# 황금파도여!

량덕모

땅에 닿는 이삭들 무게를 못이겨  
별이 그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가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백리면  
좌- 일어서는 황금파도도 백리

한번 일면 저기 문화주택마을  
해밝은 창가에 부서지고  
또 한번 굶시르면  
내달는 전기기관차 앞머리에 철썩이누나

별이란 별마다 솟구치여  
떠가는 구름도 금빛에 물들고  
홍치는 서슬에 넘쳐난 금나락인듯  
싹누런 벼파도를 비껴담고  
강물은 끝없이 흘러가누나!

아, 하늘도 놀라 건듯 머리는 대풍년  
이런 풍년 불러오시려  
수령님께서 맞으신 한겨울 눈송이들  
알알이 날알로 영글었느냐

손수 가꾸시는 정원의 포전에서 시작된  
하얗은 조국땅의 그 술한 이랑들  
억만포기포기 다 헤아리시는 수령님

이 벌에 오실적마다 안고오신  
사랑의 미소가 하늘땅에 가득쌌구나

모질은 찬바람 불바람  
홍작의 불먼지를 들썩워도  
영원한 사랑의 그 해빛  
무진장한 자양분으로 썸썸아  
이 땅에 설레는 황금이삭의 바다

한껏 파도쳐 하늘가로 치달으라  
한번 홍치면  
사회주의조국이 나래쳐오른다  
또 한번 일어서면  
이 벌의 금빛으로 온 누리가 물든다!

오, 황금파도여  
그 어떤 폭풍에도 드놀지 않고  
복받은 이 땅우에서  
해를 따라 더더욱 설레이는  
조선의 황금파도여!

우러르는 온 세계 마음들을 향해  
만풍년의 큰웃음 웃는  
주체조국의 밝은 얼굴이여!

## 작가결의

# 뜨거운 마음으로

정창윤

1970년대는 흘러갔다.  
주체의 대기념비가 세워진 10년이였다.  
력사는 또다시 전진한다. 1980년대가 새로운  
위훈으로 우리를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  
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까.》**

나는 장편소설 《먼길》을 쓰기 위하여 이제 곧  
종이를 펴려고 한다.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심의 불길로 하여 이 장편소설은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뜨거울것이다.

내 심장 역시 그들처럼 뜨거울것이다. 이것은  
집필에 립하는 나의 결의이며 지향이다. 그리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첫발을 떼는 나의 기본자세이다.

## 행복이 넘치는 새집에서

리수덕

우리 생활속에는 얼핏 스쳐버릴수도 있는 레사로운 일이 때로는 일신상의 어제와 오늘뿐만 아니라 조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를 결부시켜 깊이 생각해 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

얼마전 내가 한 친구네 집을 찾아갔다가 느낀 류다른 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후포천 원원지건설장에서 즐거운 금요로동의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불현듯 조선소에 다니는 고동무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마을에 다달았던 나는 뜻밖의 광경에 부딪쳐 눈이 둥그래졌다. 산기슭에 자리잡았던 단층 문화주택들이 간곳없이 사라지고 거기엔 새 건설지휘부가 자리잡고있었다.

《여기 있던 집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건설로동자인듯싶은 한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청년은 나의 아래우를 훑어보더니 의아해하는 나의 심정이 이해되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기꺼운 어조로 대답했다.

《와우도거리로 이사했답니다.》

《와우도요?!》

나는 놀라왔다. 이사할것 같으면 나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갈 처지도 아닌데 불시에 이사한다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었다.

내가 친구네 집을 찾아 와우도어구에 도착한것은 서해에 한창 락조가 비껴무렵이었다. 물가에 자태를 비춰보며 나란히 선 탑식아파트들과 등성이 우에 울쭉불쭉 키다투어 일어난 고층건물들이 노을빛을 조명처럼 받으며 빛나고있었다.

내가 친구의 집문을 두드렸을 때 안해와 함께 가구를 챙겨놓고있던 고동무가 펄쩍 놀라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불청객이 들어가도 일없겠나?》

내가 일부러 비틀어하는 말에 워낙 마음이 어린 고동무는 그제 룡담인줄 변연히 알면서도 얼굴이 붉어지며 나의 손목을 잡아 방으로 이끌었다.

《너무 고깝게 생각말라구. 뜻밖에 이사하다보니 자네한테두 알리지 못했네.》

사실 그는 애당초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한다.

가끔 배우이작업장의 아슬한 선체우에서 용접 불꽃을 날리다가 바라보노라면 새집들을 기다리는 와우도지구의 아파트들이 부러워지는 때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 쓰고사는 집도 별로 나무랄데 없는데 그이상 더 좋은것을 바라는건 주제넘은 욕심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제 저녁이었다 한다.

하루일을 마치고 여느날처럼 퇴근길에 오르던 고동무는 뜻밖에도 주택입사증을 받아안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서둘러 집들이를 하다보니 며칠간 나들이를 갔던 저 사람은 글썽, 어제 밤차로 내려〈옛집〉엘 들렀댔다네. 그래서 여기 제집을 찾는 것두 길을 물어가며 왔다지 않나.》

눈짓으로 안해를 가리키며 고동무가 하는 말에 우리 셋은 유쾌히 웃었다.

(길을 물어가며 제집을 찾아왔다?!)

생각을 깊게 하는 사연이었다.

아버이수령님과 고마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날이 꽃피어나는 우리 생활의 행복상의 일단을 보여주는 이 사실앞에서 나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이윽고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결불 안이라더니 바깥 못지않게 집안도 여간만 알뜰한게 아니었다.

눈부시게 하얀 벽지를 바른 세칸방에 그뿐하게 차려놓은 가구들 아직도 라크냄새 향긋한 옷장, 이불장, 침대며 그리고 옷방에 네다리를 벌딘고 실내안테나를 큰 나비의 촉수처럼 쭉 뻗친 텔레비존수상기와 신선어가 꼬리치는 원탁우의 어항...어느것 하나 탐탁치 않은게 없었다. 나는 친구가 이끄는대로 옷방으로 올라가 텔레비존을 마주하고 앉았다.

마침 텔레비존에서는 우리의 기쁜 마음을 돌구 어주기라도 하듯 귀여운 어린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맑은 선율이 흘러나오고있었다.

... ..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진정 아버지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있고 한없이 따사로운 당의 품이 있어 오늘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것이 아닌가!

늘썹 듣는 노래요, 자주 부르는 노래였지만 그것은 여느때없이 나의 가슴속에 다감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라고. 그런데 단란한 가정의 행복은 집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파연 우리가 사는 집, 그것은 보람찬 삶의 보금자리요 행복의 요람이다. 이 행복의 요람을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올바른 정책과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되새겨보는 나의 눈앞엔 문득 지난날의 잊을수 없는 추억이 되살아올랐다.

…아마도 나의 동년배들치고 자서전에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 어렵던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이 반영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고동무와 나도 소년시절에 그 시련의 나날을 함께 겪었다.

평화적전설시기에도 처마를 잇댄 집에서 살다가 미제날강도놈들의 폭격에 한날한시 집을 잃게 된 우리들은 대동강지류의 하나인 채령강축동에 의지해 지은 토굴집으로 피난가서도 이웃하고 살았다.

말이 집이었지 후미진 강쪽을 감자움처럼 파고 네귀에 기둥을 세운 다음 땅과 거의 수평이 되게 지붕을 얹은 문자 그대로 토굴이었다.

사방이 흙벽으로 막히다보니 해빛은 고사하고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했다.

게다가 장마철이면 벽과 천정으로 비물이 습해서 갈노전엔 곰팡이가 끼고 부엌엔 물매미가 떠돌고 청개구리가 해염쳤다. 어린 마음에도 해빛과 알뜰한 집이 몹시도 그리웠다.

오죽이나 그리운 마음이었으면 고동무가 어느 도화시간에 지붕도 벽도 온통 유리로 된 집을 그려놓아 애들의 웃음을 자아낸 일까지 있었겠는가.

조국해방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되어 우리가 먼저 새집들이를 하게 되었다. 새집이래야 수수대를 엮어 흙벽을 바르고 폭격에 타다남은 서까래로 지붕을 얹은 다음 산자를 올린 한칸짜리 초가집이었다. 그렇지만 당시엔 우리의 새집들이를 놓고 동네가 떠들썩했다.

이날 고동무는 우리 집엘 찾아와 언제면 자기네도 토굴집신세를 면하겠는가 하고 하면서 나를 몹시 부러워했었다.

이때의 새집들이 기쁨이 동심에도 강하게 비껴여 내가 작문시간에 지은 동시 《이사 가는날》이 중앙방송에 투고되었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얼마후 나의 작품이 어린이문예시간에 곧 방송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우리는 한편 기뻛고 한편 난처했다. 전쟁통에 가장집물을 다 잃다보니 라디오를 가진 집은 동네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수없이 십리만큼 떨어진 읍의 복구건설장으로 간 우리는 마가을 추위를 무릅쓰고 고성기가 달린 목조기증기밑에서 방송시간을 기다려 그

동시를 기쁨속에 들었었다

그날 우리는 돌아오면서 이제 어른이 될 때면 모두가 기와집에 라디오를 갖춰놓고 잘살게 될것이니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었다.

이것은 폐허의 재더미를 갖 헤치고 새생활을 창조해가던 나날, 복구건설장에 선 두 동심에 비친 소박한 미래이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로서는 상상할수도 없었던 현대적인 고층아파트에서 텔레비존을 마주하고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새라새로운 소식들을 보고 듣고 즐기고있다.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었다.

어느덧 창밖엔 어둠이 짙어갔다.

나는 인차 떠날 차비였으나 한사코 저녁식사를 권하는바람에 밤이 이속해서야 현관을 나섰다.

상쾌한 가을밤이었다. 은하수 비껴간 하늘엔 못별이 총총했다. 땅우에도 야광주를 뿌린듯 행복의 창문들이 빛나 하늘땅은 그대로 신비한 별세계를 이루었다.

별많은 밤, 생각도 많은 이 밤을 나는 하염없이 걷고만싶었다.

실로 와우도가 《서해명승》으로 이름떨치고 여기에 현대적인 새 거리가 일떠서게 된것은 놀라운 전변이 아닐수 없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감람길을 헤치시며拉克의 설제도를 펼쳐주신 그 사랑의 자욱우에 오늘은 20층, 30층 살림집들과 영화관, 해상경기장, 체육인 숙소, 식당 등이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며 일떠선다.

와우도의 새 거리를 걷는 나의 눈앞에는 날로 번영해가는 조국의 모습들-웅장화려한 평양의 거리거리와 도시부럽지 않은 오국리, 룡림리의 현대식다층농촌주택들, 안주의 탄부도시등이 영화화면처럼 흘러갔다. 동시에 땅속 깊숙이 기둥을 박고 섰던 토굴집들과 어디서나 볼수 있던 초가집들, 단층 벽돌집들이 엇갈려 떠올랐다.

순간 나에겐 이것이 단순한 기하학적공간과 체적의 량적차이만이 아닌 그 어떤 큰것을 시사해주는것만 같았다.

토굴집과 초가집, 단층벽돌집과 보통아파트, 그리고 오늘의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

나에겐 그것이 조국의 년대와 년대를 거쳐 행복의 언덕으로 곧추 뻗어오른 보람찬 생활의 길우에 놓인 행복의 층계처럼 생각되었다.

은정우에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기쁨우에 기쁨을 덧덧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에 이끌려 고동무나 나만이 아닌 조국의 모든 가정이 이 사랑의 층계를 끝없이 오르는것이 아닌가!

밤도 깊어가고 생각도 깊어가는 이 길을 걷고 또 걷는 나의 가슴은 주체시대, 로동당시대에 살며 일하는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 철길우에서

석창갑

끝간데없이 뻗어간 두줄기철길!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우를 끝없이 달려보고싶은 랑만과 즐거움을 지레 맛보게 된다. 그래서 《희망의 철길》, 《청춘의 철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하건만 나라 없던 그전날 이 땅우의 철길에는 우리 인민의 수난의 력사가 얼마나 깊은 자국으로 새겨진것이라.

봄비는 하등차칸의 차장가에서 제사공장으로 팔려가던 이 나라의 나 어린 누이들이 흘리던 눈물과 일제놈들에게 살길을 빼앗기고 이국땅으로 쫓겨가던 류랑민들의 한숨에 젖어들던 철길이 이 철길이였다. 눈섭에서 떨어지는 불행을 안은채 평생에 한번 해보는 기차여행에서도 망국노의 굴욕과 수치에 울지 않으면 안되였던 분노의 철길이 이 철길이였다.

그러던 이 철길에서 오늘 얼마나 놀라운 전변이 이룩되었는가를 당신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지난번에 나는 운봉쪽으로 취재하러 나갔던 일이 있다.

만포에서 압록강기슭을 거슬러 올라가노라면 운봉에 못미쳐 십리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한쪽 귀퉁이로 철길을 옆에 낀 압록강이 빠르게 내다보일 뿐 그 어디를 둘러봐도 험한 산들로 옥같이 갇힌 고장이라서 그전에는 《옥동》으로 불리워 온곳이다. 언젠가 왜놈들에게 쫓겨 정든 고향땅을 등지고 북쪽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부대기를 일구고 처음으로 놀러앉았다는 고장이다. 실로 현대문명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궁벽한 고장이었다.

그러던 여기에 10리물길을 켜고 논까지 풀게 되어 마을이름을 십리동이라고 고쳐부르게 되었다는것만으로도 이고장의 전변에 대하여 알수 있을것이다.

왜놈때 편지가 와도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개너머로 찾아다녔다는 이고장에서 아침저녁 즐겁게 학교로 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들에게는 실로 더 바랄것이 없었고 근심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해 가을, 이 마을에 큰 경사가 또 났다. 마을의 얼마 안되는 아이들이 아침저녁 고개를 넘어 학교에 다닌다는것을 아시게 된 아버지수령님께서 그 애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통학

렬차를 보내주셨던것이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와 마을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하여 이 외진 압록강기슭의 철길우에 오늘 훌륭한 통학렬차가 달리고있는것이다.

운봉에서 나오는 렬차안에서 십리동에 사는 한 농장원으로부터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그 사연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나는 십리동에 와서 차에서 내렸다. 이튿날 아침 나는 만나자바람으로 친숙해진 이 마을 아이들과 함께 아담하게 꾸려진 십리동역마당에서 통학렬차를 기다렸다.

이윽고 북쪽 산너머에서 은은한 경적소리가 압록강대안에 메아리치더니 산굽이에서 기관차가 산뜻한 이마를 내밀었다. 통학렬차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는 기관차며 창문으로 내다보며 웃음짓는 기관사 그리고 초록색으로 곱게 색칠이 된 윤기나는 차칸들은 얼마나 정답고 싱싱한 인상을 주는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였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조건에서 행복하게 자라고있으며 마음껏 배우고있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을 받으며 이 늦은 봄날 아침에 금시 피팔새라도 날아들것 같은 싱그럽고 정갈한 차칸에 앉아 즐거운 배움터로 달려 가고있는 아이들!

그들의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눈동자를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뜨거웠다.

렬차뒤의 란간에 나와 선 나의 발아래에는 푸른 하늘과 연록색산그림자속을 달리는 렬차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비낀 압록강 맑은 물이 굽어보인다.

압록강!

생각하면 고달픈 류랑의 발자국 찍히던 이 기슭에 오늘은 벽찬 희망과 기쁨을 실은 사랑의 렬차가 흘러가고있다. 정녕 이 철길이 생겨 언제 오늘과 같은 크나큰 기쁨을 우리 인민에게 안겨준적이 있었는가.

철길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생겨난 문명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지난날 눈물과 원한만을 실어왔다. 지난날 일제놈들에게 살길을 빼앗긴 우리의 겨레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멀리로 쫓겨갔다.그러니 원한에 몸부림치며 쫓겨가고 끌려간 그들이

이 철길에 뿌린 피눈물인들 그 얼마이라.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러던 이 철길에 오늘은 행복과 기쁨이 강물처럼 출렁이게 하여주셨다. 하여 이 아침 십리동의 아이들만이 희망과 기쁨에 넘쳐 이 철길을 달려가고있는것이 아니다. 열아홉 학생들을 위해 통학열차를 보내주시고 세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정거장을 만들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련하마을의 축복받은 아이들도 이 아침 활짝 열린 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을 향해 이 철길을 달려가고있다. 평생에 기차구경 한것을 큰 자랑으로 삼던 함북락산사람들이 오늘은 조국의 복단에 이른 전기철도로 련행하고있으며 서해의 물결소리만이 들리던 장산꽃마루와 험준한 마식령의 골짜기에도 기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학현에서 해주로 곧추 빠지던 좁은 철길을 이 지방 인민들의 소원대로 장방이며 대화 마을을 안고도는 넓은 철길로 고쳐놓게 하여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속에 영향벌과 연백벌의 농민들도 이 철길의 혜택을 듬뿍 받고있다.

그뿐이겠는가. 어제날 이 철길에 피눈물을 뿌리며 제사공장으로 팔려가던 소녀가 오늘은 로력영웅이 되고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이 되어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수도 평양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바다처럼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이 철길을 달려가고있으며 평생에 한번 해보는 기차여행에서도 망국노의 굴욕에 울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인민들이 오늘은 차창에 비끼는 주체의 내 조국의 위용에 가슴 울렁이며 이 철길로 련행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피땀 어린 재부가 빼앗겨가던 이 철길로 오늘은 조국의 억만재부가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장들로 실려가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 따라 이제 온 나라 철도가 전기화되고 조국의 동서를 이어놓을 또하나의 철길이 북부내륙으로 뻗어갈 그날 이 철길은 또 얼마나 큰 혜택을 우리 인민에게 안겨줄것인가.

그렇다. 우리 인민의 모진 수난의 력사가 새겨졌던 이 철길에서 이룩된 놀라운 전변! 그것은 오직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해빛속에 마련된것이다. 하늘의 태양에도 비길수 없는 그 은혜로운 빛발속에 오늘 이 땅위의 철길에서는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력사, 철길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나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다 알기에는 아직은 어린, 행복한 아이들과 함께 사랑의 해빛 넘치는 철길우를 눈시울을 뜨겁히며 달려갔다.

## 우리 마음 따라세우는 그 모습은...

조성관

머리위에 살퐁이 없은  
무늬고은 꽃수건이 눈을 끌어서인가  
자랑을 안고 오히려 수집어  
다소곳이 머리속인 그 마음이 이뻐서인가  
가는 걸음 다시 멈춰세우는것은

육중한 자동프레스의 동음에 놀려  
네 말소리 들리지 않아도 좋다  
보조개 예쁜 네 얼굴 보이지 않아도 좋다  
알른알른 거울같은 조절관우에  
그 모습 비껴담은 성형공처녀야

보조공은 다른 기대에 돌리고  
혼자서 다루고 번저간  
하루에도 그 몇톤  
한장 한장 찍어낸 벽돌을 디딤돌로  
네가 올라선 그 높이가 어디메냐

어제도 오늘도 하냥 같은  
그 자리 그 기대앞에 서있어서인가  
남보다 5년세월을 앞선 걸음 아는듯 모르는듯  
아슬히 치달아오른 새 7개년의 령마루  
제가 선 높이를 아는듯 모르는듯

오직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영광의 당대회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그 작은 가슴에 불타오른  
가룩한 그 마음이  
피여 활짝 그리도 아름다운가

성형장 내화벽돌산우에 한떨기 꽃만 갈아  
새 7개년의 령마루에 남편저 피여난  
충성의 꽃만 갈아...  
가는 걸음 다시 멈춰세우며  
그 충성의 높이로  
우리 마음 따라세우는 네 모습은...



## 시에서 정서와 운률의 호상관계에 대한 당의 독창적문예리론

김희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부문에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율, 새로운 리듬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줄 알아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9페이지)

시의 높은 사상성과 함께 그 형식을 완성해나가는 데서 운률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공산주의 시문학건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특히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주체적시문학은 심오하고도 풍부한 시의 사상적내용에 형식을 따라세우며 그 형식을 더욱 완벽하게 완성해나가는 문제를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 시문학의 형식을 완성해 나가는 그 기본고리로 운률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시의 운률과 정서와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론은 운률의 본질과 그 기능을 해명함에 있어서 기본초석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 독창적인 리론의 진수를 심오히 연구체득하는 것은 시문학의 운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 \* \*

주체적문예리론은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있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이 명제는 운률과 서정과 의 불가분적호상관계를 천명한 것으로서 운률문제를 시의 본성인 요구로 제기한 탁월한 사상리론이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이 리론은 서정이 없는 시가 시로 될 수 없듯이 운률이 없는 시도 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친바와 같이 시의 고유한 특성으로 되는 서정성이 운률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할 때 실로 운률문제는 시의 본성적요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놓고보면 결국 시의 운률조성은 시를 시로 되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운명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된다.

그런만큼 시의 운률은 시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이 리론은 또한 서정을 시의 내용이라고 할 때 운률은 이 내용을 표현하는 중요한 형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운률은 시의 정서를 강화하는데 직접 참가하며 능동적인 작용을 한다. 시인이 아무리 좋은 종자를 골라잡고 풍부한 정서적내용을 체험하였다고 하더라도 운률의 적극적인 참가와 효과적인 작용이 없이 좋은 시를 바랄 수 있겠는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좋은 시란 결국 시의 정서적내용에 적응한 아름답고 류창하고 기백이 넘치는 운률이 겸비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운률은 시를 살리는 필수적인 위력한 수단이며 운률이 없는 시는 시가 아닌 것이다.

우리 나라 시가의 유구한 역사는 동시에 운률의 변천과 발전과정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이 역사는 운률조직의 특성을 각이하게 구분하면서 구전인민가요, 정형시, 현대시의 작시법을 창조하였다.

또한 이 역사는 우리 말의 어음론적특성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시가의 운률조성은 음절 장단식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밖에 각종 반복법, 전도법, 함축법, 수사학적질문 등 다종다양한 보조적 방법들과 수단들을 가지게 하였다.

이 역사적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그것은 운률문제가 시의 본성적인 요구로, 중요한 형식으로 되어왔다는 것을 실증하여주는 것이다.

개성적이며 다양한 운률의 창조과정은 어떤 시인을 운률이 풍부한 시인으로, 또 어떤 시인을 운률을 못가진 시인으로 갈라놓고있으며, 어떤 시인을 7.5조의 독창적인 운률을 가진 시인으로, 또 어떤 시인을 아름답고 순탄한 운률을 가진 시인으로 그 얼굴을 구별해주고있다.

그렇다! 운률문제가 과연 시의 본성적인 요구로 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매개 시인들의 개성적인 얼굴을 그려줄 수 있었겠는가...

우리들이 세월의 망각속에서도 그 시인을 잊지 않으며 그 시인을 찾게 되며 그 시인의 얼굴을 그려보게 될 때 시의 운률이 얼마나 중요한 형식인가 하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좋은 시가 태어난 경험은 그 훌륭한 내용의 성과와 함께 운률조성이 가지는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성과도 함께 총화되어왔다는것을 문학사는 가르치고있다.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은 그 사상예술적높이에서 특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며 어느 누구나 이 서사시의 한 토막을 외우고있지 않는사람이 없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인들이 운률을 연구할 때 이 서사시를 펴치고 일련의 운률적특성을 찾아보며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이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두고두고 읊고 외우는 이 작품의 비결이 그 내용과 함께 운률이 노는 거대한 기능과 련관되어있는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김상오의 시 《나의 조국》은 철학적깊이가 있는 풍만한 정서적내용과 함께 운률조성에서도 송가적이며 정론적인 시대적성격에 맞는 창조성을 발휘하였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니/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 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이와 같이 시작부터 사색깊은 물조를 구성하면서 독자들을 숭엄한 세계에 잠기게 하는 이 시는 《조국이여!》, 《조국은》라는 호사를 시의 기본음조로 하고 15회나 반복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뜨겁고 절절한 생각을 시종 불러내고있다.

시에서 하나의 기본음조를 설정하고 시 전반의 물조의 흐름을 유도해나가는 이 수법은 시의 정서적내용을 강조할뿐만아니라 물조의 흐름을 하나의 강줄기처럼 관통시켜나가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수법은 이미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시도해온 좋은 경험이며 방법이다.

또한 시인은 이 시에서

조국이여 1  
너는 무엇이기예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터져 젖어드는것이나

와 같은 수사학적질문을 8련과 10련 등 세차례나 반복하여 굴절을 주면서 무려 21련이나 되는 이 시의 긴 정서적흐름을 고조시켜나가고있다.

수사학적질문은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단중에서도 매우 위력있는 수단이다.

수사학적질문은 시의 정서적운동을 비상히 앙양시킬뿐만아니라 독자들의 시선을 시의 내용에 집중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근년에 시인들이 시의 정론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이 활용하고있다. 이 시에는 또한 동일량의 시행들을 련속 또는 교차반복하여 시의 정서적내용을 강조한 련들도 많다.

특히 이 시의 운률조성에서 특징적인것은 시행들의 음절군의 결합이 매우 변형적이라는것이다.

실례로 우에 인용한 이 시의 첫련과 2련을 보아도 알수 있다. 1련은 5·4, 2·3·5, 3·3·2·5, 2·3·7 과 같은 다양한 음조들로 시행을 배열했는가 하면 2련은 3·5·5, 3·2, 3·3·5와 같은 다채로운 음조들로 시행을 분행하고있다.

시인의 이와 같은 시도는 시의 정서적운동에 불규칙적인 변화를 자주 주면서 파동과 힘과 기백이 있는 물조를 조성하려는데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성이 있고 장중하면서도 숭엄하고 격동적인 물조를 창조한 시인의 이러한 경험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것인가?

시의 운률이 시의 정서를 잘 돋구어주며, 시의 내용을 더 완비보강해주며, 음향적인 복소리를 더 높이 울려쫓으로써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려주는데 큰 작용을 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와 같이 운률은 시의 정서와 통일성을 보장할 때만이 사상예술적으로 손색이 없는 시가 창작될수 있다. 그러므로 운률문제는 시의 본성적인 요구로 제기되며 시의 중요형식으로서 시의 정서적 내용에 큰 작용을 하는 강위력한 수단이 라는것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다.

현대인들의 새로운 사상감정과 미학정서적요구에 의하여 20세기초에 발생한 현대시는 과거의 정형률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 정서적내용에 적응한 풍부하고도 다양한 새로운 운률을 창조하면서 흘러온지 70여년이 되었다. 그러나 음절수와 음절군의 불규칙적인 결합을 특성으로 하고 시행의 배열과 련수의 제정에도 제한이 없이 자유로이 운률을 조성하는 현대시는 긍정적인 좋은 경험도 축적하는 반면에 운률의 조잡성과 산문화의 경향 등 일련의 편향들도 발로시키고있다.

이것은 자유률자체의 본성에서 오는 제한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요인에 불과한것이고 보다 직접적이며 주관적인 요인은 시인자신들에게 있는바 따라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시인자신들에게 묻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주체적 문예리론은 운률조성에서 나타날수 있는 모든 편향들을 정확히 바로잡아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인 사상이며 지침으로 된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고 하여

시인이 시의 운율만 잘 살리면 저절로 시의 정서, 시의 내용까지 다 해결되는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시인이 운율의 중요성 일면만 강조하면서 거기에 몰두하여 룰조만 번지르르하게 갖추다면 시의 정서적내용을 분식하거나 또는 허황하게 만들수 있다. 시인이 아무리 다양한 운율조성의 보조적 방법들과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룰조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조들이 풍만한 서정을 바탕으로 하고 서정의 기복과 파동속에서 울려나오지 못할 때는 하등의 정서적공명을 주지 못할것이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운율을 위한 운율》을 갖출것이 아니라 내용에 충실한 형식, 정서의 파동에 적합한 운율을 조성할 때만이 진정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될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운율과 정서와의 호상관계에 관한 이 이론의 본질을 다시한번 심오히 통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에 운율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이 명제는 시에 정서가 없는 경우에 운율도 없게 된다는 호상성의 원리를 동시에 강조한 미학사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시의 정서는 운율의 바탕으로 되며 따라서 운율은 시의 정서를 떠나서는 생각할수조차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의 운율은 시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에 바탕을 두고있는것만큼 시의 정서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서정의 운동형식인것이다.

때문에 운율이 시의 중요한 형식이라고 해서 형식에만 치우칠것이 아니라 시의 내용적측면을 다 결합시킨 호상성의 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 필요하다.

이와 반면에 시의 운율이 서정에 바탕을 두고 있고 시의 서정은 본성적으로 그 자체내에 룰조를 포함한 운율적인 서정이라고 하면서 시의 서정이 깊고 풍만하기만 하면 저절로 시의 운율이 조성되는것처럼 생각하는 편향도 있을수 있다.

물론 고도로 양양되고 집중화된 시의 서정은 운율상 견지에서 볼 때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말할수 있다. 시인에게 있어서는 보통사람들과는 달리 돌아가는 기계동음이며 흐르는 강물이며 지어는 묵묵히 서있는 산도 정서의 파동속에 움직이는 룰 조이며 음악적인 선율인것이다. 왜냐하면 시란 룰조의 생리체이며 따라서 시를 낳는 시인은 룰조를 항상 생각하는 인간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진정으로 시인이라고 할 때 그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세계는 정서로 파도치며 탄주되는 운율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시인이 감수한 서정은 곧 완전무결하게 운율화된 서정은 아닌것이다.

이 서정은 내재적인 파동과 기복은 가지고있으나 아직은 완전히 운율로 가공되지 않은 운율자료에 불과한것이다. 그런것만큼 시인이 그 서정을 운율로 가공하고 탁마하여야만 운율로 숨쉬고 운율로 높뛰는 시라는 생명체가 태어나는것이다.

그러므로 가공되지 않은 서정 일면만을 주장하면서 마치도 시에 서정만 있으면 시의 운율까지도 해결되는것처럼 생각하는 견해는 운율문제를 부차적인것으로 간주하는 사상과 다를것이 없다.

운율은 시가 가지는 중요한 속성이다.

따라서 운율이 없는 시를 시라고 말할수 없듯이 운율을 홀시하는 시인도 역시 시인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시에 운율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이 사상은 시의 본성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운율을 홀시 하는 시인들의 태도와 립장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도 된다.

시의 운율에 대하여 홀시하거나 무관심하는 태도는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될수 있다.

그러한 표현으로 우선 있을수 있는것은 《그리고》, 《그러나》, 《하여》, 《하기에》, 《하지만》과 같은 접속사들을 운율적인 고려가 없이 되는대로 란발하면서 시행을 련결하거나 《이고》, 《이며》, 《하고》, 《하며》, 《라고》, 《라며》, 《는데》, 《이거니》와 같은 이음토를 제멋대로 망탕 란용하면서 지를 엮어 내려가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가 산문화될수 있다.

그러므로 시에 접속어와 이음토를 쓰는 경우에는 시의 룰조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숙고 하여 써야 한다. 원래 시에서 《접속어》와 《이음토》를 많이 쓰는것은 서정시의 본도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시가 설명조, 산문조에 치우 치게 마련이기때문이다.

또한 시에 어렵고 까다로운 어휘, 한자어, 외래어, 기술용어들을 되는대로 끌어들이는것도 시의 운율을 홀시하는 사상이 아닐수 없다. 어렵고 까다로운 시어는 부드럽고 순탄한 시의 룰조를 쉽게 파괴할수 있다.

시어는 시에서 하나의 운율단위이다. 그러므로 시어는 운율적인 시어가 되여야 하는만큼 시인은 피라는 노력으로 아름답고 힘이 넘치는 룰조를 이룰수 있는 시어를 고르고 또 골라야 할것이다.

시인이 시의, 운율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모범적인 실례를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의 4장 4절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소대장 순선이 주먹을 들며-  
《너는 왜놈들을 도와준다!》  
석준이 번쩍 머리 들며-

《왜놈들을 도와준다고?》  
 《그렇다!》  
 《내가?》  
 《그렇다. 네가!》  
 《아니 내가  
 왜놈들을 도와준다고?》  
 《그렇다 네가! 네가!》  
 《그렇다면...》

이것은 소대장 순선이가 농민의 소를 끌어온  
 석준이를 비판하는 한 대화장면이다.

소대장/ 순선이/ 주먹을/ 들며-/  
 《너는/ 왜놈들을/ 도와준다! /》

의 첫 두 시행은

석준이/ 번쩍/ 머리/ 들며-/  
 《왜놈들을/ 도와준다고?/ 》

의 두 시행과 같은 량 같은 뜻의 두행반복으로  
 틀조를 구성하고있으며 그 다음 행부터는 동  
 일음조 《그렇다》, 《내가》, 《네가》의 련속  
 및 교차반복으로 능숙하고 재치있게 운률을 잘  
 살려나갔다.

보는바와 같이 두 인물의 대화까지도 운률화하  
 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시인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것인  
 가. 시인이 시의 운률을 시의 사상에술성을 좌우  
 하는 운문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시  
 인이 자기 작품에 대한 도의적인 높은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놀랍고도 비범한  
 탐구적인 열정이 생겨날수 있었겠는가. 창작에  
 대한 시인의 이러한 높은 정신세계는 웅당 본받  
 을만한것이다.

시의 사상과 내용을 강조한다는 미명하에 시에  
 과다한 내용을 담는데 급급하면서 운률조성을  
 뒤에 미루는 현상도 역시 시의 운률을 홀시하는  
 표현이 아닐수 없다.

시에서의 《내용과다증》 이것은 설명조와 해설  
 조를 낳는 좋은 온상이며 틀조의 흐름을 부자연  
 스럽 게 만들거나 파탄시킬수 있는 전제가 될수  
 있다.

시의 내용이란 선택된 전형적인 내용이며 서정  
 의 진수이다. 그러므로 시행이나 덧붙여놓으면  
 해결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시의 내용은 항상 시의 종자에 의하여 조건지  
 어 지며 시인이 지향하며 천명하려고 하는 주제  
 사상의 요구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또한 시의 내용이란 항상 시의 형식과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그러므로 시인이 시에 반영하는 생활의 논리를

무시하고 자의로 내용을 더 넣고싶으면 더 넣고  
 빼고싶으면 빼는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시의  
 내용이란 반드시 그 시에만 있어야 할 그 하나밖  
 에 없는 가장 진실하고 적중한 생활, 시인자신도  
 자의대로 할수 없는 객관적인 합법칙성속에 약  
 속된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들의 창작실천에서는  
 시의 사상과 내용을 강화한다는 주관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시행과 련수를 자꾸 불구는가 하면 한  
 련안에도 수다스럽고 잡다한 내용을 끌어넣으려  
 는 경향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운  
 률의 흐름을 파괴할수 있으며 시의 정서적운동을  
 심히 마비시킬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운률조성에 무리를 주는 정도에까지  
 이러저러한 잡다한 내용을 넣는 현상은 웅당 경  
 계 하여야 할것이다.

시의 운률을 홀시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시행을 제멋대로 지나치게 짧게 하거나 지나치게  
 길게 할수 있는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의  
 운률의 순탄성을 방해하며 틀조의 흐름에 장애를  
 조성한다.

시행이란 일정한 음절군의 결합과 반복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틀조의 흐름의 한 단락으로서 련  
 과 시의 전체적운률의 흐름에 복종되어 작용하면  
 서 그 기능을 조절하는데 참가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의 정서적운동의 요구  
 와는 달리 지나치게 긴 장음조를 쓰거나 또는 지  
 나치게 짧은 단음조를 씀으로써 호흡의 자연적흐  
 림에 큰 장애를 줄수 있다.

한 시행안에 지나치게 많은 음절수와 음절군을  
 배열한다면 아주 건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  
 구나 호흡이 딸려 맥폴리어 운률이 처질수 있다.

물론 현대시는 시인의 창작적개성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운률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시인이 흥분하여 시를 써내려가느라  
 면 감정의 흐름과 함께 장음조의 긴 시행을 시도  
 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시는 바로 읊는것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사람들의 자연적이며 생리적인 호흡량에까지 무  
 리를 주어서는 안된다. 지나친 장음조의 시행은  
 우리 인민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지 않으며 따라  
 서 이러한 있을수 있는 경향에 대하여서는 경계  
 하여야 할것 이다.

그와 반대로 시행이 지나치게 짧은것도 운률조  
 성에서 큰 손색을 줄수 있다. 현대시에서 시인이  
 격동적이며 양양된 정서를 강조하기 위하여 시  
 행을 단음절 또는 단음절군으로 분행하여 운률을  
 조성하는 시도들이 나타날수 있다. 물론 이러한  
 창조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다 나무랄수는 없  
 을것이다. 그러나 시인들의 창작실천에서는 혹시  
 시의 정서적내용과는 별로 련관이 없이 단음절

또는 단음절군을 불필요하게 분행하여 별행으로 잡아줌으로써 시행의 룰조를 지나치게 급하게 만들며 사람들로 하여금 사색할 여유조차 없게 만드는 경향을 발로 시킬 수 있다.

그러한 분행이 혹시 시각적효과를 줄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편의상 적당히 분행한 인상밖에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성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앞의 시행들과 연속되고 견인되는 호흡속에 있는 음절군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명백히 타진하고 앞의 시행에 붙이는것이 운률이 순탄하고 안전감을 줄 때는 붙이고 그럴 타당성이 없을 때는 단음절 시행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시행을 단음절군으로 툭툭 끊으며 분행하는 경향은 시행을 무의미하게 분산시킬뿐만아니라 시의 정서적운동을 파탄시킨다. 현대시의 운률조직에서 일정한 고식적인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거나 운률조성의 기본단위를 내용과 분리하여 고립적으로 확정한다는것은 자유률이 가지는 본성적요구에 적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률을 조성하는 현대시라고 하여도 한 시행안에 음절수가 지나치게 짧거나 파다하여서 시를 읽는 사람의 호흡을 숨가쁘게 하거나 맥쫓리게 하는 무법상태에 대하여서는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운률과 정서와의 호상관계에 관한 이 독창적인 명제는 운률문제를 연구하는 리론분야에 대해서도 있을수 있는 편향을 바로잡아주는 가장 훌륭한 방도로 되게 된다.

지난시기 일부 리론가들이 운률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론의들을 전개하여왔는바 그것은 우리 시문학의 발전에 매우 유익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운률문제를 어음론적견지에서 음절수 혹은 음절군의 결합형태에만 매달려 현미경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인들의 창작실천에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주관적인 독단에 빠질수 있다.

또한 운률조성문제를 론의함에 있어서 시행 또는 음조의 기본단위를 내용과 분리하여 고립적으로 확정하려고 시도한다면 누구에게나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없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의 운률조성에서 그 어떤 기본단위를 확정한다고 하면 풍부하고도 다양한 운률의 조성을 단순화할뿐만아니라 정형시의 구속을 박차고 나온 현대시를 또다시 정형률과 같은 규칙적인 음조를 가진 틀속에 강요하는 결과

밖에 가져 올것이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운률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현대시의 내용적측면과 밀접히 관련시켜볼대신에 《운률》을 위한 《운률론》이 된다면 시인들의 창작실천에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할것이다.

우리는 시의 운률문제를 반드시 내용과의 호상관계속에서 심오히 연구하면서 시대적요구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운률을 창조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힘을 집중하여야 할것이다.

\* \* \*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주체적 문예리론은 운률에 관한 문제에 정확하고 과학적인 해답을주는 강령적인 지침으로 된다.

력대의 수많은 시론가들이 작시법을 만들어내고 운률문제를 론의하여왔지만 주체적문예리론에서와 같이 운률문제를 정서와의 호상관계에서 시의 본성적인 속성으로 심오하게 특징지어준데 대하여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실로 이 명제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시문학을 사상예술적으로 높이는데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를 세워주는 탁월한 미학사상이다.

특히 우리 시문학에서 주도적인 편향으로 나타날수 있는 산문화의 경향을 극복할수 있게 하며 운률문제에서 많은 리론적해명을 기다리는 현실정에 비추어볼 때 이 명제가 가지는 리론실천적 의의는 각별히 크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운률과 정서와의 호상관계에 관한 이 독창적인 명제와 함께 운률을 순탄하고 평이하게 조성할데 대한 문제, 시에서 산문화를 극복할데 대한 문제, 운률의 계승성과 창조성에 관한 문제, 시행을 지나치게 짧거나 길게 하지 말데 대한 문제, 운률적인 시어를 선택하는 문제 등 시의 운률문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원칙들과 방도들을 다 밝혀주고있다.

그 모든 리론들은 시인들에게 있어서 운률조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위력한 무기로 되며 주체적인 시문학을 세계 시문학의 상상봉에 올려세우게 될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쳐준 운률에 관한 리론들을 더욱 심오히 연구체득하여 영웅적이며 격동적인 우리 시대의 성격에 맞는 환희와 량만과 기백이 넘치는 아름답고 순탄하고 장중하고 발랄한 새로운 운률을 부단히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 고향땅을 안고 산 청년

락속본

## 1

어떤 경우 오래동안 같이 지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인간의 전부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

나는 어릴적 소꿉동무로서 학교에도 같이 다녔으며 준엄했던 전쟁의 날에는 같은 전선, 같은 대오에서 함께 싸운 장기진에게서 그런것을 느꼈었다.

바로 그것을 나는 여기에 적으려고 한다.

채진격시기에 우리 중대는 나와 장기진의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룡포리 화전부락에서 며칠 묵은 일이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치악산공격전투를 준비했다.

기진이와 나는 한중대에서 복무했는데 나는 부소대장이였고 그는 분대장이였다.

전쟁은 말그대로 전쟁이니만치 사람들의 기질이며 성격도 변화시켰으며 따라서 그것은 행동에까지 미치게도 하였다.

어느날 우리는 치악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눈덮인 룡선에서 공격시 하사관들의 행동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한적이 있었다.

눈우로 불어오는 바람은 맵찔다.

그러나 겨울치고는 좋은 날씨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동남쪽에 서있는 치악산이 더욱 선명히 나타났다.

중대장은 적정료해를 위해 하사관들에게 쌍안경을 돌려가며 보게끔 했다.

쌍안경을 눈에 가져다대니 치악산이 눈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물결처럼 흘러간 산줄기들은 온통 흰눈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있었다.

적들이 굴설한 전호며 화점들, 감시소들이 거밋 거밋하게 보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이제 벌어지게 될 격전이 방불히 그려졌다.

언제 명령이 내릴것인가.

언제면 저 메부리를 우리들이 타고있을것인가.

나도 그렇지만 우리모두가 그 시각이 한시바빠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 혼자만 불췌인가?》

내가 넘겨준 쌍안경을 장기진이 유독 오래 보는데 짜증을 느낀 한 하사관이 소리쳤다.

그러자 기진은 목에서 쌍안경을 벗겨주었는데 그때 그의 얼굴에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이때 그는 나에게 얼굴을 숙이며 불췌 입을 열었다.

《생각나나?》

《뭘말인가?》

《저기에 올라갔던 일말일세.》

《?!...》

《동굴이 발견되지 않았을가?》

《동굴? 그래 동굴이 정말 있었단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적의 방어시설물로 될수도 있겠구만.》

《아니 후면에 있으니 그럴수야 없어. 한데 그놈들이 그걸 발견하고 무슨 창고로 리용했다면 안에것이 파괴될수도 있어. 멋있는것들이 많았는데.》

《뭘라구?!》

나는 어처구니없었다.

그러면 기진이가 치악산을 그토록 표가 나게 본것은 언젠가 열을 올려 자랑하던 동굴안의 《만물상》이 어찌될가봐 신경을 쓴것이란말인가.

공격을 위한 지형연구에서 군사적인것과 거리가 먼 이 심리는 도대체 어떤것인가.

준엄한 이 전쟁조차도 기진이를 변화시키지 못했구나.

나에겐 전쟁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고중 2학년때였다.

어느날 고향에서 멀지 않은곳에 있는 치악산으로 등산을 간적이 있었다.

그때 기진이와 우리 몇명은 해발 1,000미터가 넘는 치악산정점으로 올라갔다.

처음에 우리 일행은 여러명이였으나 가던 도중 대부분의 동무들은 산이 험하다고 중턱에서 내려 오고 나와 몇명의 학생들만이 끝까지 올라갔었다.

선두에는 기진이가 섰다.

산골짜기는 참으로 깊고도 험하였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골짜기는 여러가지 식물들로 뒤덮여있었다. 발밑에서는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우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키높이 자란 오리나무우듬지들엔 머루넝쿨이 묘하게 지붕을 틀어놓아 햇빛조차 스며들지 못했다. 골짜기덤불속 바위밑에서는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무가지들에서는 이름도 모를 새들이 우짖어대고있었다. 여기서부터 기진의 걸음은 점점 떠졌다. 빨리 산으로 오르자고 하는 동무들의 독촉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지 않을바에야 뭣하러 산으로 오르겠느냐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재미있는것들을 보게 될거라고 말했다.

(이 친구가 언제 여길 다 와봤단말인가.)

얼마쯤 올라가니 정말 그의 말대로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앞에 처음으로 나타난것은 그리 크지 않은 《호수》였다.

그밑에는 옥같이 흰 차돌이 한벌 짝 깔려있었다. 물은 맑다못해 물감을 들이고싶도록 파랬다. 그속에서는 산천어들이 꼬리를 저으며 재미있게 헤엄을 치고있었다.

기진이는 만족한 웃음을 띠우고 말했다.

《난 여기에다 양어장을 만들었으면 해. 이 골짜기에 큰 폭을 쌓아올리면 아마 리상적인 양어장이 될수 있을거야.》

《공상가로구나.》

누군가가 받는 말이 었다.

기진은 그 말에 시무죽이 웃었다.

우리는 골짜기로 더 깊이 들어갔다.

산속은 신비롭고도 아름다웠다.

여기서 우리는 백도라지밭이며 부지런히 꿀을 따들이는 꿀벌들도 구경했고 산의 음달면에서 얼음덩이를 캐내기도 했다.

《여름에도 음달에 얼음이 있는 치악산은 우리나라 자연의 네절기를 모두 볼수 있는 자연 <박물관> 이야. 그뿐인줄 아니? 저쪽 저 근악봉밑에 진짜 유명한 지하동굴이 있어.》

동굴이 있다는데 대하여 우리가 반신반의하자 그는 자연동굴에 대하여 더욱 열을 내어 설명했다.

《그속에 들어가면 별의별것이 다 있어. 동룡굴과 백령대굴만 못지않는 지하《금강》이야.》

《여, 이치 단단히 대포를 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실컷 웃었다.

이렇게 되자 장기진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 때 기진의 얼굴은 빨갧게 달아있었다.

모욕감을 줬다고 나는 저으기 미안쩍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치악산을 떠나려할 때

그가 보이지 않았다. 혼자서 자연동굴로 갔다는 것이었다. 그때에야 그의 달아올랐던 얼굴에 비낀 결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비로소 짐작할수 있었다.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좀체로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온 학급이 그를 찾아 펼쳐나섰다.

일이 이처럼 되었을 때 장기진이 불쑥 나타났는데 그의 옷은 후줄근히 젖어있었고 가슴은 풀무처럼 오르내렸다.

손에는 흡사 사슴뿔같은것이 꼭 쥐여져있었다.

그것은 종유석이었다.

그의 자유주의에 대해 선생님이 꾸지람하였으나 기진은 그에 별로 개의치 않고 태연히 서있었다.

우리는 저으기 분개했다.

나도 그랬지만 다른 동무들도 역시 그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우연히 기진이와 같이 걸었었는데 그때 그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난 너희들이 날보고 어떤 말을 해도 일없어. 내가 가슴아픈건 너희들이 제고장을 너무도 모르는거야.》

《?! ...》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기진이가 말한 자연동굴을 꼭 가보리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으로 하여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도 기진은 여전히 치악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이 친구 여전히 학생때 기분이야.)

나는 백포자락을 잔뜩 제껴쓰고 자동총을 짊어잡아 체법 용맹한 군인의 외모는 갖추었으나 여전히 학생때의 그 유별난 취미를 잃지 않은 그를 보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지금이야 전쟁이 아닌가.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에 타고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원썬놈들의 총탄에 쓰러지는 준엄한 현실앞에서 더우기는 이제 고향땅을 완전히 해방해야 할 무거운 전투임무를 앞두고 저런 감정이 무슨 필요가 있단말인가.

그래서 나는 훈련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길에 기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 기진이, 우린 이제 학생이 아니라 군인이야.》

《군인!》

《그렇네, 전쟁이라는걸 명심하게. 아까 나는 너의 얼굴에서 분대를 이끌고 나갈 돌격로를 그

려보는 기진이가 아니라 학교시절에 등산놀이를 갔던 때의 기진이를 느꼈네.》

이에 기진은 한숨을 쉬며 나를 뵈히 보기만 하였다.

기진이가 이러는바람에 나는 다른 말을 더는 하지 못하고 헤어지고말았다.

나는 잡자리에 누웠어도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궁싯거리기만 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포소리는 여기가 최전선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알리는것만 같았다.

## 2

다음날 우리는 간단히 휴식을 하며 정리작업을 하였다.

이것은 전투가 림박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나는 소대전투원들의 무기와 장구류상태를 구체적으로 보고나서 해산에서 입대한 전사를 통나무결상에 앉혀놓고 머리를 깎아주고있었다.

그때 우리는 남의 집 옷간이나 빈집을 수리하여 대체로 분대단위로 들어있었는데 우리 소대 1분대와 2분대는 옛날에 지주가 살았다는 기와집의 사랑채를 리용했었다.

내가 거의 머리를 다 깎았을 때였다.

장기진이 찬 공기를 한가득 맡아안고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긴히 할말이 있어 왔노라고 했다.

대대참모부에 갔다오던 그는 화천인민학교앞을 지나다가 운동장이 폭격에 별동지처럼 된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좀 닦아주자는것이였다.

나는 처음엔 그의 말이 선뜻 리해되지 않았다.

그래 한참이나 리발기를 든채 그의 얼굴을 지켜 보는데 기진이 이렇게 계속했다.

《뒤개 분대면 될것 같네. 그래서 동무하고 토론하고 중대장에게 제기하러고 왔네.》

《... ...》

《왜 말이 없나?》

이때 나는 정말 운동장같은 소릴 다 한다고 나무라고싶었지만 그의 얼굴에 비친 진지한 빛을 보고서는 차마 그렇게는 말할수 없었다.

그래서 중대장에게 제기해보라고 했다.

머리를 깎느라고 앉아있던 것 입대한 전사가 《분대장동지, 이 전쟁판에 운동장이 됩니까?》 하고 불쑥 끼어들어 사람들을 웃기였다.

그 웃음소리는 방안공기를 대신해버렸다.

내옆에서 면도질을 하던 전사가 턱에 묻은 비누물을 툇툇 흘리며 소리없이 웃어댔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기진은 아무말없이 나가버리였다.

기진이가 나간 뒤 나는 전사들을 엄격히 꾸짖었다. 그러나 속으로 전사들에게 괜한 나무람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두시간후 점심식사를 끝내었을 때 우리는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화천인민학교로 갔다.

목적은 운동장을 닦는것이였다.

나는 이것이 기진이의 제기에 의하여 그렇게 되였다는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날 운동장을 멋들어지게 닦아주었다.

우물처럼 깊이 패인 폭탄구덩이들에 막돌을 쓸어넣고 그우에는 흙을 퍼다덮은 다음 표면을 고르게 했다.

우리들이 목고를 메고 달릴 때 아이들은 신이 나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어린것들의 밝게 웃는 얼굴들을 보는 우리들의 기분은 좋았다.

그중에도 기진이가 제일 기뻐했다.

그는 일을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맨내의바람으로 목고를 메고 달리였다.

설참이였다.

한켠 반토굴교실에서 놀랍게도 맑고도 쟁쟁한 피아노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학교강당에서 자주 들군하던 소리였다.

그 소리에 맞추어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야릇한 호기심을 느끼며 그리로 천천히 다가갔다.

이런 시골학교에서 그것도 항차 전쟁때 피아노소리를 듣는다는것이 어쩐지 나에게 신기하게 생각되었기때문이다.

내가 걸음을 가까이 할수록 피아노소리에 맞추어 부르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었다.

음악교원이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있는것 같았다.

힘있고도 맑은 음향, 정서적이면서도 순간마다 기백과 힘이 느껴지는 세련된 화음은 그 어떤 승고한 화폭을 눈앞에 펼쳐놓는것 같았다.

그러다가 피아노소리는 푹 꺼졌다.

또다시 이어지는 피아노소리, 아이들의 노래소리 그 다음 또 중단, 이렇게 피아노소리는 끊어졌다가는 또다시 이어지곤했는데 그 리유는 왜서인지 알수 없었다.

나는 급히 그리로 다가갔다.

반토굴교실안에 들어선 순간 나는 그만 문결에서 굳어지고말았다.

피아노를 타는 사람은 다름아닌 장기진이였기



때문이다.

나는 몹시 놀랐으나 기진이와 아이들의 흥에 뜬 감정을 깨치고싶지 않아 그 자리에 선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어쩌도 노래세계에 깊이 빠져있었던지 내가 다가가는것도 느끼지 못했다.

한소절 한소절 피아노에 맞추어 기진이자신도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대목에 가서는 노래를 끊고 피아노의 건반만 힘있게 짚으며 음의 높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힘에 넘치는 씩씩한 목소리들이 반토굴 안을 가득 채운다.

나는 기진이가 학교시절에 피아노를 잘 탔다는 것은 알고있었으나 이렇게까지 능숙할줄은 몰랐다.

그런데 피아노소리는 또다시 폭 꺼지는것이 아닌가.

순간 것처럼 맑던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덮인다.

이때에야 나를 알아본 기진이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좀 배워주셨네.》 하며 우선우선한 표정을 짓는것이였다.

나는 아무말없이 웃는 얼굴로 대답하고 아이들과 피아노를 번갈아보았다.

이때 기진이는 어느 한 건반을 짚었으나 여전히 소리는 나지 않았다.

이때 아이들속에서 한 소년이 기진이앞으로 불쑥 다가와서 《아저씨, 그것이 맞아요. 며칠전에 피아노가 폭격에 다칠 때 선이 끊어졌대요.》 하고 그 이유를 밝혀내는것이였다.

매우 령리하게 생긴 열두살쯤 되어보이는 소년이었다.

기진이는 피아노의 뒤덮개를 열고 선들을 들여다보았다.

소년의 말대로 선이 끊어져있었다.

기진이는 몹시 상심한 낯빛을 하고 일어섰다.

이날 나는 몹시 이상한 감정속에서 모대기였다.

운동장을 닦아주자는 기진이의 발기를 중대장이 적극 지지한 까닭은 잘 리해되지 않았으나 그 일을 치르고났을 때 어쩐지 마음이 유쾌하고 거뿔해 왔기때문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나에게서 오래가지 못했다.

전쟁이라는 부정할수 없는 준엄한 현실과 운동장이며 피아노소리가 결코 랑립될수 없는 일로만 생각되었기때문이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병실로 돌아왔지만 나는 그 생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기진이를 만나러 2 소대병실로 갔다.

그와 속심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기진은 없었다.

특무장을 통하여 그의 행처를 안 나는 그가 있다는 집으로 찾아갔다.

내가 그 집안에 들어섰을 땐 기진이는 한 소년과 마주앉아 나무총을 만들고있었다.

《누가 찾던가?》

기진이 인기척을 느끼며 나를 알아보고 한 말이었다.

《아니.》 하고 나는 범상히 대답했지만 저도모르게 그만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그는 나의 한숨소리를 느끼지 못하고 《총을 좀 만들어주셨네.》 하고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진이를 줄곧 지켜보던 까만 눈동자가 나를 뻔뻔히 올려다본다.

오늘 기진이가 피아노를 칠 때 선이 끊어졌다고 알려주던 소년이였다.

소년은 이윽도록 말을 하지 않는 나의 기색이 평온치 않음을 느꼈음인지 슬그머니 어디로 나가 버렸다.

방안에 우리 둘만이 남았을 때 나는 부자연스러운것을 느끼였다.

그러나 기진은 여전히 나의 기분을 느끼지 못한 채 칼로 총가목을 다스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총을 깎게 된 이유를 떠껌떠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녁때였네. 이제 그 애가 편지를 가지고 식당으로 찾아왔더군. 군에 갔던 담임선생이 운동장 닦은것을 뒤늦게야 알고 중대장에게 써보내온 것이였네. 그때 나는 소년이 메고있는 총을 보았네. 첫눈에 보기에다 몹시 서툴게 만든 총이였네. 내가 편지를 전달하고 총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고 하면서 재간이 이게 다야 하니까 소년이 뭐라고 했는지 알겠나.》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혹시 소년이 다시 들어오지 않겠는가고 생각했으나 그러질 않았다.

기진이는 계속했다.

《글쎄 그건 진짜총과 같다는거야. 저희 어머니가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원쑤를 갚으라고, 그리구 고향마을에 다시는 원쑤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땅을 지켜야 한다고 그걸 만들어주었다는거야.》

부엌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가 탕탕 하고 들려오고있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나. 글썽 들어보게, 그대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 그 말엔 아무 대답도 안하더군. 내가 다시 물으며 소년을 내려다보니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넘쳐 나고있었네. 조금전에 알았네만 소년의 아버지는 일시적후퇴시기 이곳에서 적들에게 피살당했네.》

가슴아픈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걱정되는것은 이런 가슴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딘가 슬픔에 젖어있는것만 같은 기진의 여리고 연해보이는 감상적인 기분이었다.

전쟁은 사실상 우리들을 많은 힘겨운 고비들과 시련앞에 내세웠다.

평시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들을 레사로이 참고 견디며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만치 전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가장 성스럽고 의로운 감정으로 조국앞에 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영웅들이 우리의 수많은 모범전투원들이 실천행동으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사랑하는 고향마을이 원수 미제놈들의 만행으로 불에 타고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놈들의 더러운 흉탄에 쓰러질 때에도 우리들은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참고 견디어야 하였다.

그런데 기진이에게는 이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기진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여, 만석이, 그 소년도 치악산에 가봤다고 하더군, 그런데 동굴은 아직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동굴이야기를 해줬더니 동굴의 위치를 종이에다 그려달라구 하더군. 그대 대충 그려줬지. 그랬더니 그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곳이 해방되면 이고장에서 제가 제일 선참으로 동굴을 가보겠다구 하더군.》

기진의 두눈은 가느스름해지고 얼굴엔 흥분의 빛이 어렸다.

《...대충 그려준 종이를 그 무슨 귀중한것이라도 되는듯 돌돌 말아쥐고 한시바삐 치악산을 해방하고 저희들과 같이 치악산자연동굴을 구경가자는 거야.

나는 지하동굴위치도를 대충 그려준것을 후회했네. 그래서 나는 소년에게 며칠후에 진짜배기 지하동굴위치도를 잘 그려주겠다는것과 치악산을 해방하고 꼭같이 자연동굴을 탐사하자는 약속을 했네. 그랬더니 더 좋아하더군. 내 목을 그 애리애리한 팔로 막 그러안고 야단을 했네.》

말을 마친 기진은 매우 흥분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리 두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동강나고말았다. 갑자기 비상소집나팔소리가 울려 퍼졌던것이다.

### 3

마을을 떠난 우리는 저녁무렵까지 줄곧 행군했다. 밤이 돼서야 대렬은 멈춰섰다.

중대장은 중대대렬앞에서 상급참모부의 명령을 하달했다.

치악산공격을 앞두고 그곳 주둔 적 련대참모부의 작전문건을 탈취하는 습격조를 파견하는것이였다.

조장으로는 내가 임명되였고 부조장은 장기진, 조원으로는 세명의 전사들이 선발되였다.

그날 우리 습격조는 작전문건을 어렵지 않게 탈취했지만 철수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돌아오던 우리는 적의 포위에 들고말았기때문이다.

등뒤에서 군화소리며 쇠불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눈앞에서도 전지불이 번쩍하며 적병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할것인가.

순간 기진의 벼락같은 고향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기진은 수류탄을 뽑아들고 적들속에 뛰어들었다.

정황은 급변했다.

놈들은 총을 가지고도 기진의 기상에 제압되어 어쩔바를 몰라했다.

이 틈을 타 습격조는 옆으로 빠져나갔다. 우리가 위기를 면했을 때 또 다른 위험이 닥쳐왔다.

은폐되어있던 비밀탐조등이 우리를 마치도 그 어떤 우리속에 몰아넣듯 비쳤기때문이다.

그러나 그 탐조등은 한순간에 하늘로 날아갔다.

기진이가 뽑아들었던 수류탄이 그것을 명중한것이다.

그러나 적들은 우리를 발견하고 집요하게 추격했다.

빨간 불씨들이 정수리며 귀부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날았다.

이때 기진은 《놈들아, 총알을 받아라.》 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결연히 적들을 달고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눈감박할새 벌어진 일이여서 나는 그를 말릴 생각도 못했다.

기진이가 달려간쪽에서는 수류탄 폭발이 일고 파편들이 공기를 찢으며 날아가는 소리가 아찔

게 들렸다.

포위를 벗어난것이 확실해졌을 때 나는 세명의 전사들에게 작전문건을 쥐보내고는 즉시로 되돌아섰다.

총소리를 찾아 향방없이 달리던 나는 옥실대는 적들을 향해 짧은 점발사격을 하는 기진이를 발견했다.

그는 전호같이 생긴 바위틈에 몸을 웅크리고 사격하고있었다.

(무사하구나.)

나는 기쁨을 금치 못하며 《기진이, 기진이.》하고 웨치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때 기진은 나를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섬찍해있는데 불쑥 성난 목소리가 들렸다.

《무엇때문에 왔나?》

그 뒤말은 더 듣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그것은 오직 자기 혼자 막으려던 위험앞에 나까지 서게 된다는 불만이었던것이다.

적들은 작작거리며 덤벼들고있었다.

이때 나는 기진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이었다.

《교호식으로 엄호하며 빠지자구.》

《그래, 먼저 빠지라구.》

기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앞을 쏘아보며 마지막 탄창을 갈아 댔다.

그때에야 나는 그가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것을 느꼈었다.

《부상당했지?》

《일없네. 지혈을 했네. 어서 빠지라구. 저 참나무 밑에 자연동굴이 있네. 입구는 오소리굴처럼 작지만 들어가면 크네. 적들이 발견 못했어. 자네 슬그머니 들어가게.》

《뭐라구?! 동굴이 여기 있단말인가. 그런데 동무는 무엇때문에, 여기에...》

나는 더 말을 하지 못했다.

이 순간 기진이는 웃고있었다. 나는 어둠속에서도 그것을 알아보았다.

이때 나는 다시한번 기진이에게 왜 동굴이 발치에 있다면 몸을 피하지 않았는가고 묻고싶었지만 그럴 계제가 못되었다.

나는 그의 웃는 얼굴에서 (여 만석이,하필 그런것은 무엇때문에 묻는거야, 정황을 보면 몰라?)하고 아량있게 말하고있는것을 느꼈기때문이다.

나는 기진이와 시간을 끌수 없었다.

적들의 떠드는 소리가 바로 앞뒤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생포하라!》

적무리속에서 이런 소리도 들렸다.

철갑모들이 번들거렸다.

나는 숨을 죽이며 차고있던 네개의 수류탄을 모두 고리를 뽑아 두손에 나누어쥐었다.

기진이도 나를 따라 수류탄을 뽑아쥐었다.

순간 앞뒤에서 요란한 폭음이 일었다.

앞에서는 내가, 뒤에서는 기진이가 던진 수류탄이 폭발하는 소리였다.

살아남은놈들은 우리가 쏘는 기관단총에 거의 황천객이 되었다.

이 틈을 타서 나는 기진이의 팔을 끌었다.

그러나 기진은 나의 손을 완강히 뿌리치며 말했다.

《여, 만석이, 자네나 빠지게. 난, 난 이젠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기진이의 목소리는 어쩐지 나에게 애원하는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나는 억지다짐으로 기진이를 돌쳐업고 그가 알려준 자연동굴로 감쪽같이 들어갔다.

뒤덜미를 덮칠듯 들려오던 어지러운 총소리들이 굴안에서는 심리밖에서처럼 들려왔다.

나는 전지불로 동굴속을 조심스럽게 비쳐 마침내 평퍼짐한 자리를 골라잡은 다음 기진이를 눕혔다. 그리고는 그의 다리를 황급히 처치했다.

부상은 대퇴부위의 관통상이었는데 지혈을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내 마음은 조급해졌고 손은 떨리었다.

그런중에도 나는 굴밖의 적정을 육감으로 느꼈으며 만약을 생각하여 수류탄을 허리띠에서 떼어내어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되도록 소리를 죽여가며 말하려고 애썼다.

그러자 기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여, 만석이, 일없어, 여긴 판세상이야.》 하고 안심시켰다.

기진이의 말에 몹시 놀랐으나 인차 그 기분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전에 느끼지 못한 류다른 감정이 일어났다.

이때 나는 무심중에 전지불로 한 지점을 비쳤다. 불빛은 동굴속의 한 점을 야무지게 도려내어 내앞으로 끌어왔다.

빛속에 드러난 모습은 흡사 동화속에 나오는 갑옷 입은 장수같았다.

내가 놀라는것을 느낀 기진은 그 아픔속에서도 입을 열었다.

《여, 만석이, 바로 여기야, 학교때 내가 왔던 동굴이 여기란말이야.》

《?!...》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불을 이쪽으로 비쳐보라구.》

이때 기진은 웬일인지 말을 끊고 호흡을 힘들게 했다.

그러나 기진은 얼마후 아무렇지도 않은듯 나에게 전지불을 옮기라고 독촉했다. 전지불을 그 옆으로 옮기자 빛속에 드러난것은 무시무시한 짐승의 형상이었다. 이제까지 용맹스럽게 달려오던 사자가 전지불빛으로 하여 더는 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두 발통을 뚝 뺀치고 굳어진듯한 모습이었다.

불을 옮길 때마다 매번 새로운것이 나타났다.

이때 기진이 또다시 입을 열었다.

《여 만석이, 저것이 피아노탑이네. 저것을 다쳐보게, 그러면 금시 아름다운 음이 이 굴안을 흔들어놓을거야.》

나의 눈앞에는 키가 큰 석순이 우뚝 서있었다.

그것을 다치자 쨍, 쨍, 찌렁-하는 소리가 굴안 공기를 흔들며 맑게 들려왔다.

다시 한번 다쳐보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툭탕 쪼르르, 툭탕 쪼르르 하는,입으로는 형용기 어려운 소리가 굴안을 가득 채운다.

그것은 어떻게 들으면 키낮은 반토굴교실에서 울리던 피아노소리가 장엄한 합주로 변하여 온 굴벽을 흔드는것 같았다.

《여 만석이, 저걸 가져오라구. 저걸말이야.》

기진은 전지불속에 드러난 주먹만한 회색빛의 돌덩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그것을 가져오자 기진은 그 돌을 여러모로 들여다보며 《야, 이거야, 분명 이 돌이야, 그때 내가 종유석을 따느라고 이것으로 때렸었어.》

하며 마치도 그 어떤 보물을 발견한 사람마냥 희열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이때에 이르러서 나는 기진의 그 어떤 말도 행동도 거의 부정할수 없었다.

기진은 낮은 소리나 속삭이듯 동굴에 대해 말하였다.

《동굴은 지하수가 주변의 암석을 용해하면서 짙을 점차 넓혀가지구 구멍을 형성한단말이야. 여기에 지하수가 피여 동굴이 점차 퍼지는데... 바로 이것두 그렇게 형성된거야.》

학교에서 석회석이 형성되는 과정을 배워 알고 있는 지식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처음 듣는 학생처럼 들었다.

기진의 숨결은 점점 약해갔다. 그러나 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할수는 없었다.

동굴속을 환히 비친 전지불은 이고장에서 태어나 이 땅을 밟고 자라면서도 제고향을 너무도 몰랐던 나의 마음의 빈구석을 밝혀주는것 같았고 또한 한침대우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살면서도 기진이를 너무도 몰랐던 전우의 마음을 날날이 밝혀주는것 같기도 하였다.

어찌 그뿐이라.

아직은 알지 못했던 자연동굴에 대한 이 현실적인 느낌은 장기진이에 대한 새삼스러운 인식이기도 했다.

어찌하여 그 부드러운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를 가진 그가 그리고 언제나 잔잔한 얼굴표정과 크지 않는 몸집을 가진 그가 원수앞에서 그렇듯 용맹한 투사로 변할수 있었던지 전지불을 통하여 너무도 석연히 알수 있었다.

그렇수록 내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기진에 대한 말할수 없이 미안한 감정이었다.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보았던 그에 대한 나의 견해가 결코 옳은것이 아니었다는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를 괴롭혔다.

비록 나는 그에게 말로는 크게 비난한적은 없지만 머리속깊이에 배겨있던 그 관점에서야 (감상적이라고 본 견해) 어떻게 피할수 있단말인가.

죽음의 경지를 문턱같이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전쟁판에서 내가 둘도 없는 전우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것은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아, 실컷 그를 붙들고 지난시기 나의 생각을 반성하고싶었고 더우기 학교시절에 아니 바로 어제 저녁에 그에 대하여 실망까지 했던 일을 두고 뺨을 갈기라고 말하고싶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랴.

전지불속에 드러난것들을 보며 이제껏 말하던 기진이가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모로 쓰러져있는것이 아닌가.

더러 의심이 갔다.

나는 황급히 그를 부둥켜안고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앞섰을 헤치고 가슴에 손을 대여보았다.

심장은 뛰었다.

이때 나는 손끝에 무엇이 찔뚫한것이 마치는것을 느끼었다.

그것은 또아리처럼 말아놓은 여러가지 굵기의 통선이었다.

그런데 그속에는 어느시간에 그렸는지 이 자연동굴의 상세한 지형도가 또한 섞여있는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마치도 전기에라도 감전된듯 찌릿한 충격을 받았다.

선은 틀림없이 화천인민학교의 피아노를 생각하여 적통신선을 자를 때 건사한것임을 알수 있었고 자연동굴도는 아마 훈련의 틈시간을 리용하여 소년과의 약속을 생각하여 그렸음을 알수 있었기때문이다.

나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무작정 그를 업으려는데 기진이 정신을 차렸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는 나의 손을 꼭잡았다.

《만석이, 나를 여기 가만 뒤통. 난 아무래두...》

《여,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정신을 차리라구.》

《고향이 해방되고 전쟁이 승리하면 그 소년을, 아이들을 데리구 이 굴-을 탐사-하려고 생-각-했-었네. 그런데...》

《기진이, 무슨 소릴...》

《그-래서... 여기다가 소년단야영소를 지을수도 있지. 아, 만석-이, 지하-지-하-도-옹굴-도를 보-충-해서 그애-에-게 전해-달-라구...》

기진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침내 푹 끊기고말았다.

《여, 기진이, 기진동무!》

나는 굴이 울리도록 소리를 치며 그를 부둥켜 안고 연방 불렀다.

《기진이, 기진이, 이게 웬일인가. 영, 정신을 차리라구.》

나는 솟구치는 눈물을 그의 얼굴에 떨어뜨리며 그의 몸을 흔들고 또 흔들었다.

얼마후 나는 그를 업고 위험을 가릴새없이 그 캄캄한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이때처럼 나는 기진을 나보다 더 귀중한 사람으로 여겨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자연동굴안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장기진을 회상하곤한다.

그렇라치면 소년에게 총을 짊어주어 조국이 귀중함을 가르쳐주던 일이며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로 아름다운 조국을 보며 마음껏 노래하라고 가슴속에 지하동굴도와 함께 피아노선을 소중히 간직했던 기진의 잊을수 없는 모습이 눈앞에 방불히 그려진다.

그러면 그날밤 습격의 길에서 기진이가 그토록 용감할수 있었던것은 고향땅에 대한 강한 사랑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창조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이라는 생각이 마쳐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나는 취재길에서 새로 뻗은 대통로를 걸거나 준비하게 늘어선 아파트들이며 학교, 탁아소들 그리고 조국땅위에 새로 생겨나는 광산들이며 탄광들을 볼 때마다. 특히 풍치 아름다운곳에 홀로히 일떠선 소년단야영소들을 볼 때면 각별히 잊을수 없는 전우 장기진이 생각난다.

## 풍산민요

강현세

-갓나무 없는 산이 산이라던가  
붓나무 없는 숲은 숲도 아니지  
딸이 많은 귀틀집엔 눈물도 많네...

고사리 산나물 철도 길어서  
그 옛날 처녀들이 부르던 풍산민요  
이깎나무 불안고 눈물짓던 그 노래

삼삼이로 지새던 밤도 길지만  
처녀들의 한숨소리 더욱 길었네  
감자로도 끼니를 에울길 없어  
분떡갈던 얼굴에 주름이 잡혀  
중매군도 왔다가 도로 갔다는...

부대농사 화전에서 치마자락 불에 타고  
이깎나무 장작불에 맘도 타더니  
오늘의 풍산처녀 종다리런가

양떼를 물고물아 흐르는 노래  
가도가도 밀밭천리 넘치는 노래

설움의 민요도 옛말로 되어  
설레이는 더기에서 울리는 가락  
수령님의 그 은덕 노래불러라  
사람도 강산도 모두 변하여  
노래도 새로와진 하늘아래 첫동네

-밀밭 없는 풍산땅이 풍산일소나  
양떼 없는 작업반이 작업반이라  
처녀분조 많은곳엔 노래도 많지요...

아, 산에 산에 갓나무야 키자랑 말아  
붓나무 우듬지에도 노을이 란다  
딸이 있는 어머니를 자랑도 많아  
어버이사랑의 해발 고원위에 눈부시다

가사

## 혁명동지 그 사랑을 노래부르자

심봉원

그 언제 불러도 다정한 이름  
동지여 우리 서로 피도 나눴지  
친바람 전호가에 스며들 때도  
오가는 그 사랑에 가슴 더웠네  
아 화선천리 불속에서 굳게 맺어진  
혁명동지 그 사랑을 노래부르자

우리가 걸은 길 험난했어도  
동지여 그 사랑은 변함 없었지  
시련의 언덕길도 함께 넘었고

기쁨의 눈물도 함께 흘렸네  
아 싸움의 고지에서 붉게 피어난  
혁명동지 그 사랑을 노래부르자

준엄한 나날에도 행복할 때도  
동지여 어디서나 꽃을 피우자  
언제나 그날처럼 사는 길에서  
그 사랑 적탄도 막아주리라  
아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걸어갈  
혁명동지 그 사랑을 노래부르자

가사

## 굴도 한배 미역도 한배

오재신

에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파도우에 등실 배를 띄워라  
나가면서 덤장을 들고  
들어오며 주낙을 추니  
기쁨이 넘쳐나네

에헤  
닷감아라 닷감아라  
갈매기도 쌍쌍 배머리 돌려라

한굽이 돌면 미역밭  
한굽이 돌면 해삼포전  
바다농사 흥이 나네

에헤  
노저어라 노저어라  
어기여차 여차 노를 저어라  
조개도 한배 실고 가세  
굴도 한배 실고 가세  
온 나라에 웃음꽃 피우

## 주추돌

김형집

사람들은 흔히 고층건물에 대해 말할 때 그 아스라한 층고와 건물의 웅장화려함에 놀라거나 경탄을 금치 못해한다.

그러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밑바닥기초에 대해서는 그리깊이 생각하지 않을것이다. 더구나 기초의 한 부분인 주추돌에 대하여서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으나 보이는것보다 못지않은, 땅속에서 묵묵히 건물을 받들어주는 바로 그 주추돌이 있음으로 하여 건물은 그토록 빛이 나고 못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는것이 아니랴!

그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바쳐가는 숨은 영웅들을 나는 취재의 길에서 수많은 만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람이 국가경리와 공동경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재부를 잘 거두고 아껴쓰며 그것들이 인민의 복리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나는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고기와 알을 마음껏 먹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한생을 오리를 키우는데 바쳐가는 한 영웅아바이를 잊을수 없다.

체소한 몸집에 굽을사한 허리, 주름진 이마에 어울리지 않게 짧게 깎은 흰머리, 강기있어보이는 몸가짐...

아바이의 첫인상은 이러하였다.

그런데다 좀체 자기 말을 싫어하는터여서 나는 부득불 그에 대한 취재를 다른 사람을 통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부터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그는 오리속에 묻혀사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리아바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나의 물음에 상대방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오리속에 묻혀사는 사람!

짧으나 그의 일생이 함축되어있는 말이였다.

아바이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는 참으로 많았다.

그에게는 아직 첫닭도 울기전에 새벽이슬을 차며 오리공장을 한바퀴 돌아보는 버릇이 있다.

보안 젖빛 물안개속에 포근히 잠든 대동강기슭을 따라 목젓이 간지러울 정도로 감미롭게 안겨

오는 물비린내를 맡으며 종금직장부터 알깨우기, 살찌우기 직장들을 돌아보는 때가 그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이때면 그는 가장 엄격한 혹은 잔소리 많은 아바이가 되어 그리고 첫사랑에 취한 연인파도 같은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간밤에 알은 얼마나 낳았는가, 갓깨난 햇오리상태는 어떤가, 잘 먹지 못하던 《55 회무리》가 얼마나 배불리 먹고 잘 잤는가 잔잔스레 알아보기도 하고 관리공들과 손을 맞추어 직접 오리를 돌보기도 한다.

이런 때 오리관리를 성실하게 한 관리공은 웃으며 아바이를 뽀뽀이 반겨맞을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관리공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이렇듯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심정그대로 오리에게 뜨거운 애정을 쏟아붓는다고 입빠른 처녀 관리공들사이에 《오리아바이》라 소곤소곤 떠돌던 말이 이제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입말처럼 되어버린것이다.

《오리아바이》! 이 말속에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곽하게 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뜻을 받들고 이악하게 일하는 아바이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과 믿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하기에 그는 포연이 날리는 재더미속에 오리목장의 첫기둥그루를 박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30 년간 이 아침일과를 법칙처럼 지켜오고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몸에 밴 생활습성으로 되였다.

언젠가 한번은 편찮은 몸을 가지고도 오리만 불안고 돌아가는 아바이한테 아침밥을 가지고 나온 안해가 몸도 돌봐야 하지 않느냐고 짜증 비슷한 소리를 한 일이 있었다.

그때 아바이는 안해를 조용히 나무랐다.

《한갑이 넘도록 같이 늙어오면서두 마누란 아직 나를 모르고있구만.》

아바이는 식을세라 안해가 품에 정히 안아가지고 나온 파근파근한 밥그릇을 한켠에 밀어놓으며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던 수첩을 꺼냈다.

수첩의 첫머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 나이 50이 되도록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지못한게 한스럽다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히 먹일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밝아오는 새벽빛아래 평양의 하늘가를 향해 서

며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교시를 뜨겁게 읽어가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어려있었다.

그는 고기문제때문에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는것이 자신이 일을 쓰게 못한다문인것 같아 늘 마음을 썼으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는가고 안해를 타일렀다.

사실 아버지는 고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쉬임 없는 정열을 기울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그 누구보다 가슴뜨겁게 알고있었다.

이 땅우에 누구나 다 골고루 잘사는 인민의 라원을 펼쳐주시고 가금업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어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곳곳에 닭목장, 오리목장을 일떠세워주시고 가금업의 밑천으로 되는 귀중한 원종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서리발총창을 비껴들고 돌격선에 나선 병사들을 부르시여 가금부문의 기술자로 키워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놓이지지 않으시여 그이께서는 빈터에서 움트고 솟아오른 가금업의 싹이 무성하게 자라고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해빛보다 따사로운 사랑의 빔발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였다.

진정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의 재부라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 땅에는 닭, 오리떼가 구름처럼 흐르게 되었으며 고기풍년, 알풍년의 새노래, 행복의 새노래가 나왔다.

그런데도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귀여운 자식들에게 하나를 먹이면 열, 스물을 더 먹이고싶어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더 풍만하고 운택하게 해주시려 그토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것이였다.

《어디 그뿐인가. 수령님께서서는 그전날 남포부두의 가대기군을 당원으로, 큰 고기생산기지를 맡은 책임일군으로 키워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제 한몫 편할 생각만 앞세워? 사람이 받기만 하고 보답할줄을 모르면 사람구실을 못해!》

꾸깃듯하고 돌아서는 아버지.

저고리고름만 만지작거리는 안해의 숙인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후회어린 자책의 맑은 이슬이 구슬처럼 방울지어 흘러내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고기문제를 풀어 그 크나큰 은정에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자.)

이러한 불타는 충성심을 품은 아버지기에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에서 발벗고 나서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계사를 많이 지어 리용할데 대한 교시가 계시였을 때에는 수백리나 되는 곳까지 달려가 수만대의 울짙목과 수만평방의 오리바자를 해결하여온 그였다.

그뿐이라!

늘어나는 생산계획에 축사설비가 따라서지 못하여 계획조절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에는 후보 오리사육에서 《천공야외사육방법》(하늘을 지붕삼아 내놓아 기르는 방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여 걸린 문제를 풀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그는 이처럼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기업소를 이끌어 근 30년이나 기업소앞에 맡겨진 오리고기생산계획을 해마다 훨씬 넘쳐수행하였다.

그러느라니 그의 사생활이나가정에서 제기되는 일이 어찌 한두가지였으랴!

그러나 그는 언제한번 그런 내색을 내지 않고 한생을 묵묵히 오리고기생산에 바쳐가고있다.

힘과 젊음이 넘치던 때만이 아니라 일흔이 가까와오는 오늘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기업소일을 뒤 받침해주고있는 아버지!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보건말건,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그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높고 뜨거운것인가!

바로 아버지처럼 말없이 진심으로 일을 잘해나가는 사람이 진짜 참된 주추돌이 아니겠는가!

정녕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신 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들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화원에 핀 또하나의 향기그윽한 탐스러운 꽃송이이다.

하거니 남모르게 날을 따라 다투어 피어나는 충성의 꽃송이들이 온 나라를 뒤덮을 때 우리 당,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더 부강하고 아름다와질것인가!

그 향기 넘치는 화원의 한가운데 선듯 황홀한 심정에 휩싸여 나는 취재를 마치고도 오래도록 아버지결을 떠나지 못했다.